

# 건축과 도시공간

건축공간연구원이 만드는  
건축도시정책 전문저널

Vol.42 - Summer 2021

LOCAL

로컬 지향의 시대,

FISHING

어촌으로  
가다

漁村

(auri)

이번 호에서는 쇠퇴한 어촌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어촌뉴딜 300사업과 선도사업의 성과, 함께  
를 찾아보고 어촌의 잠재력을 찾아 떠난 사람들의 새로운 시도를 살펴본다. 또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라에서 국민들이 더 친숙하게 어촌을 만날 수 있도록 로컬 지향의 시대에 맞는 어촌·어항 재생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건축과 도시공간

Vol.42 - Summer 2021

( a u r i )



# 건축과 도시공간

Vol.42  
Summer 2021

발행  
2021년 6월 30일

발행인  
박소현

편집책임  
고효진

정책이슈 기획  
서수정

편집  
이미영, 김민자

발행처  
건축공간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편집부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www.auri.re.kr  
information@auri.re.kr

디자인  
(주)디자인인트로  
02.2285.0789  
www.gointro.com

ISSN  
2288-2332

〈건축과 도시공간〉은 건축·도시  
분야 정책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정책전문지입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건축공간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그림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도판의 경우 출처 및 저작권자를  
찾아 명기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밧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거나  
빠진 부분은 추후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정책이슈 및 건축도시 동향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투고가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또한 본지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및 기획에 대한 의견이나  
필진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메일을 통해 제안하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표지

여름 휴가철이면 머리에 떠오르는,  
일상을 벗어나 한때 자연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바다마을'을 넘어  
어촌지역이 가지는 가치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로컬 지향의 시대, 새로운 기획의 무대로서  
어촌의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 로컬 지향의 시대, 어촌으로 가다

어촌뉴딜 사업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정책 방향	김태경	006
인구감소 시대, 어촌의 현황과 대응 전략	박상우	014
어촌뉴딜 선도사업 사례: 소풍 가는 섬, 당진 난지섬	정옥주	022
어촌뉴딜 선도사업 사례: 머물고 싶은 달섬 만들기, 목포 달리도	김주경	030
지역 콘텐츠 기반의 어촌 공간 만들기	김민경	038
로컬의 미래를 위한 어촌·어항재생의 방향	서수정	048

## 통계자료실

국민들은 거리의 공개공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용할까?	김영지	058
-------------------------------	-----	-----

## 건축도시동향

<b>해외동향</b>	프랑스 도심 속 생태농장 실험 배경과 시사점	유무종	064
<b>국내동향</b>	폐철도 부지를 중심으로 본 지역 활력거점 개발방안 통합설계+통합시공으로 만드는 공공시설 복합단지	정현숙 안교필	070 075
<b>해외단신</b>	스웨덴, 1분 도시 향한 'Street Moves' 실험 외		080
<b>국내단신</b>	국토교통부, 지역경관 품질 향상 위해 지자체-민간전문가 협력 강화 외		086

## 세계의 건축·도시 싱크탱크

인도 뭄바이의 도시설계 싱크탱크, UDRI	조시은	090
-------------------------	-----	-----

## 장소탐방

보통의 특수학교 - 서울서진학교	유종수·김빈	098
자락길 위 동네 책방 - 인왕산 초소책방	이충기·김진숙	114

## auri 소식

·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130
· 2021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 “‘주택정책’에서 ‘주거문화정책’으로” 개최	133
· 2021 AURI 경관포럼 ‘국토경관 관리의 성찰과 전망’ 개최	134
· 2021 마을재생포럼 ‘인구감소 시대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 개최	135
· 건축공간연구원-대한건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건축자산 및 역사문화자원 관련 제도와 발전 방향 심포지엄’ 개최	136
· 2021 제1회 근대도시건축연구회-건축공간연구원 공동 학술 세미나 ‘최근 반환된 한반도 내 미군기지 활용방안’ 개최	137
· ‘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38
· 제1회 석·박사 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 ‘2021 AURI 아카데미’ 운영	139
· ‘2021 아시아 도시경관상(Asian Townscape Awards)’ 후보 접수	140
· 군산시민문화회관 재생과정 공유행사 ‘거인의 초대’ 개최	141

# 로컬 지향의 시대, 어촌으로 가다

# 1

뉴노멀시대에는 다양한 취향과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팬데믹 상황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로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로컬 지향의 시대’를 표방하며 지방으로 이주하는 청년들과 신중년,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친환경적이고 지역다움이 남아 있는 장소를 새로운 기회의 장소로 여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이러한 어촌의 가치에 주목하고 어촌다움의 회복, 주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 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역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쇠퇴한 어촌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어촌뉴딜 300사업과 선도사업의 성과, 한계를 짚어 보고 로컬 지향의 시대에 맞는 어촌-어항 재생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양한 배력을 가진 난지도의 워터프린트 경관



해녀의 추억 외관



통영의 배양장 카페



**어촌뉴딜 사업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정책 방향** | 어촌뉴딜300사업은 그간 정부의 투자에서 소외되어 있던 소규모 어항·포구의 집안 및 안전시설 등 낙후된 생활SOC를 개선하여 어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단순 어업에 치중했던 기존의 어촌 산업구조를 다각화하여 어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인구감소 시대, 어촌의 현황과 대응 전략** | 어촌사회는 분명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수산자원, 수려한 자연경관, 마리나, 어촌체험시설의 해양레저 인프라 등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존자원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여가수요 증가에 따라 높은 집객력을 나타내고 있다.

**어촌뉴딜 선도사업 사례: 소풍 가는 섬, 당진 난지섬** | 우리는 과거 개발시대의 계획방식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짜고자 하였다. '대규모'와 '일회성 아이템'을 제공하는 개발을 지양하며, 세심하게 섬 자체의 잠재력과 매력을 발굴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 섬의 인구구성과 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경제구조를 제안하였다.

**어촌뉴딜 선도사업 사례: 머물고 싶은 달섬 만들기, 목포 달리도** | 달리도는 너른 백사장도, 편의시설도 거의 없어 방문자에게 매우 불친절한 섬이다. 대신 달리도에는 고즈넉하고 넉넉한 목가적 풍경이 있고 섬들을 배경으로 하는 시시각각 변화무쌍한 바다 풍광이 있다. 달리도의 어촌뉴딜사업은 이러한 섬의 물리적인 공간환경에 필요한 기능을 담은 마스터플랜으로 마련하였다.

**지역 콘텐츠 기반의 어촌 공간 만들기** |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청년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지역에 내려가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는 늘 따라다닌다. 결국 그곳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지역만의 콘텐츠와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로컬의 미래를 위한 어촌·어항재생의 방향** | 다양한 취향과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촌을 비롯한 지방 소도시를 활동 근거지로 선택하고 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해 낮은 주택가격과 생활비, 여유 있는 공간, 지역의 자연경관과 자연자원을 활용하면 차별화된 콘텐츠를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기회를 쇠퇴해 가는 지방 소도시에서 찾아가고 있다.

어촌뉴딜 사업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정책 방향  
006

인구감소 시대,  
어촌의 현황과 대응 전략  
014

어촌뉴딜 선도사업 사례:  
소풍 가는 섬,  
당진 난지섬  
022

어촌뉴딜 선도사업 사례:  
머물고 싶은 달섬 만들기,  
목포 달리도  
030

지역 콘텐츠 기반의  
어촌 공간 만들기  
038

로컬의 미래를 위한  
어촌·어항재생의 방향  
048

# 어촌뉴딜 사업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정책 방향

김태경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장

근래 바닷가 마을을 지날 때면 ‘○○○항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축하’와 같은 문구를 가진 현수막을 종종 볼 수 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지역 주민들과 연안 지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엄청난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낯선 이름일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은 대체로 도시에 쏠려 있고, 바다는 여름철 휴가를 보내기 위해 방문하는 해수욕장이나 멋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지는 것 외에 어촌에서의 삶을 접할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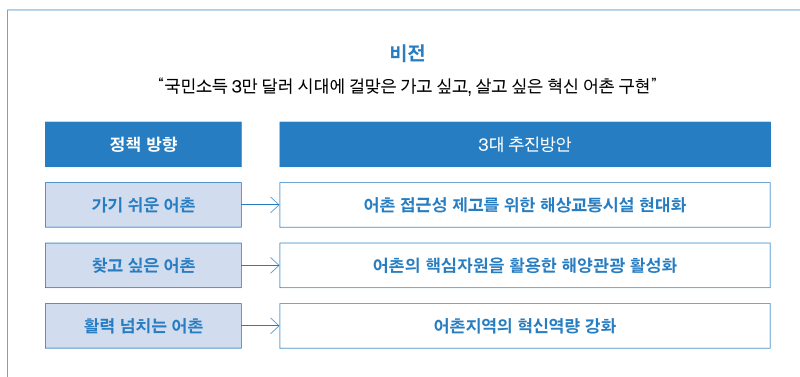
수산업 기반의 우리 어촌과 어항은 식탁에 다양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전래의 어구나 어업방식 보존 등 문화적 가치,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양 영토 수호의 보완적 역할 등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에서 다소 소외되어 타 분야와 비교해 볼 때 산업기반이나 생활기반의 정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 어촌뉴딜 사업과 후속 정책인 포스트 어촌뉴딜에 대한 방향을 소개하려고 한다.

## 어촌뉴딜300사업의 목표와 방향

어촌뉴딜300사업은 ‘가기 쉬운 어촌’, ‘찾고 싶은 어촌’, ‘활력 넘치는 어촌’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낙후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특화 개발함으로써 어촌의 활력을 높이려는 사업이다. 그간 정부의 투자에서 소외되어 있던 소규모 어항·포구의 접안 및 안전시설 등 낙후된 생활SOC를 개선하여 어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단순 어업에 치중했던 기존의 어촌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여 어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2020년 「어촌·어항법」 개정을 통해 ‘어촌·어항재생’에 관한 법적 개념과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틀 안에서 추진되고 있다. ‘어촌뉴딜300’이라는 사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 어항·어촌 중 300개소(전체 2,200여 개)의 혁신을 추진하는 이 사업은 대상지마다 약 100억 원이 투자되며, 2024년까지 추진된다. 2019년 70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120개소, 2021년 60개소 등 현재까지 총 250개소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올해 말 50개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방파제와 호안 등 기반시설 및 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공통사업, 해당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그리고 마을 주민의 역량을 키워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각 사업의 종류는 지역협의체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하고, 향후 운영 방안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다. 수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에 동의하는 10인 이상으로 법인을 구성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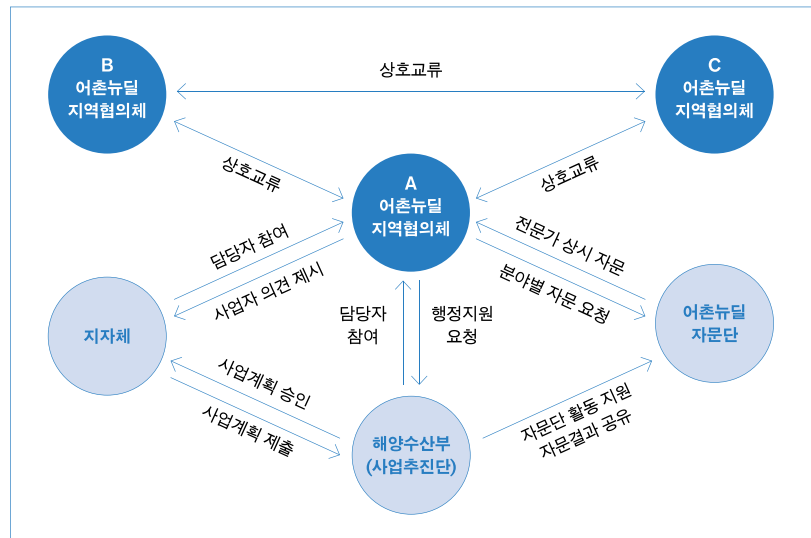


어촌뉴딜300사업 추진계획 주요 내용



도록 하고,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역량 강화 사업도 단순 교육에서 벗어나 마을의 당면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하였다.

이 사업은 어항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배후 어촌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해양수산부의 첫 지역 개발 사업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아울러 사업 준비 단계에서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지역협의체의 구성을 의무화하였으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 시행의 전체 과정에 조언하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화의 목적은 지역 내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끌어내고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업 성과물의 지역 자산화를 통해 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사업 추진 3년째인 현재, 대체로 어촌뉴딜 사업을 계획하는 구조와 절차에 대한 이해, 지역 주민 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2019년도 대상사업에 대한 시설 완공이 이제 막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므로, 해당 시설의 운영이나 지역 자산화 실현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체계

## 선도사업을 통한 새로운 시도와 성과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어촌의 공간환경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좋은 공간환경 조성으로 어촌의 경관 자원을 보존하면서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업활동의 편의성을 높이려 하였다. 또한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장소를 만듦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어촌뉴딜 사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항과 항만 등 토목사업이 많았던 특성상 해양수산부에서는 좋은 공간환경 조성의 토대인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절차에 관한 개념의 이해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선도사업의 디자인 개선 절차를 밟아 모니터링을 진행해 오고 있다.

### 어촌뉴딜300 선도사업 연도별 대상지

<b>2019년(8개소)</b>	경기 화성 백미리, 충남 당진 난지도항, 전북 군산 명도항, 전남 목포 달리도, 전남 여수 안도항, 경남 남해 설리항, 부산 기장 동암항, 강원 동해 어달항
<b>2020년(5개소)</b>	충남 보령 창고도항, 전남 완도 신구항, 경남 통영 달아항/영운항, 부산 청사포항
<b>2021년(3개소)</b>	전남 여수 장지항, 경남 거제 여차항, 강원 삼척 초곡항

2019년도에는 선정된 8개의 선도사업 대상지에 공공건축의 사업 단계별로 이행해야 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규정한 「공공 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시범 적용해 보고, 어촌지역에 적합한 디자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년여에 걸쳐 디자인 거버넌스 운영과 여러 차례의 디자인 검토회의 등을 거치며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어촌뉴딜 선도사업 디자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2019년과 2020년도 선도사업들은 각각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완료하고, 그에 따라 건축물 조성 과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정의 적용이 아니라 지역협의체 등과의 거버넌스 활성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역량강화사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관련 가이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원칙

드라인에 반영하였고, 2021년 선도사업에서는 어촌·어항재생사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 요소 및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모든 선도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전체적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선도사업을 통한 일련의 시도를 통해 어촌의 공간환경 디자인 관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 검토회의나 주민참여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끌어낸 것은 소기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주민의 공용시설, 생활편의시설, 공동체 자부담 시설 등을 통한 공동체 유지와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이 사업계획 초기부터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계획과 운영의 정합성을 제고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어촌뉴딜300 선도사업 중에서도 특히 경기 화성 백미항 사업, 충남 당진 난지도항 사업, 전남 목포 달리도항 사업, 경남 남해 설리항 사업이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이러한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촌뉴딜사업에 대해 디자인 개선 절차를 확대 적용하지 못하고 소수의 선정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추진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아울러 ▲어촌 특유의 폐쇄적 공동체 ▲급속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지역 주민의 상이한 역량 수준과 같은 어촌현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어촌소멸에의 대응 요구와 로컬에 대한 관심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다.

## 앞으로의 어촌·어항재생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보면 해수면 어가 인구는 직전 조사(2015년) 때보다 25%가량 감소한 9만 8,0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고령인구 비중도 36.2%로 5.7%p 증가하였다. 현재의 추세라면 2045년에는 어촌지역의 80% 이상이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어촌 소멸’의 위기는 그저 위험성을 경고하려는 말이 아니라 목전에 닥친 현실이다.

구분	2015년	2020년	비고
어가 인구	128,000명	98,000명	(2020) 전체 인구 대비 0.2%
어가 고령화율(65세~)	30.5%	36.2%	(2020) 전체 인구 고령화율 15.7%
어가 유소년 비율(0~14세)	6.7%	5.7%	(2020) 전체 인구 유소년 비율 12.2%

한편 몇 년 전부터 젊은 층과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농어촌에서 살고자 하는 경향이 생겨났고, ‘로컬 크리에이터’나 ‘로컬 비즈니스’ 등 로컬리즘으로 일컬어지는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또 지역의 자원과 이야기를 활용한 공간들이 소위 ‘핫’한 명소로 알려지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지역,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연안과 섬 등 어촌지역은 위험성이 덜할 곳으로 인식되고, 비대면 근무방식이 일상화되면서 어촌지역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어촌의 소멸 위기에의 대응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에 대한 선호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이다.

어촌뉴딜사업은 지난 3년 동안 어촌·어항의 재생을 통해 어촌 주민의 더 나은 삶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일례로, 사업 효과로 목포에서 직항 여객선이 생기고, 뱃길이 5시간 40분에서 2시간 10분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전남 신안 만재도 사업의 경우 주민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크게 높였다. 이처럼 생활SOC 확충으로 정주기반과 어업활동의 기반은 개선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어촌의 소멸 위험성을 줄여 지속가능한 어촌을 만들고, 지역에서의 삶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어촌으로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만재도 주민들은 예전에는 종선을 이용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여객선에 올랐으나(좌) 선착장을 정비한 이후 배가 바로 접안함에 따라 편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에 오르게 됐다(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어촌·어항재생사업은 다음의 세 가지 변화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첫째, 어촌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어촌 주민’에서 나아가 ‘새롭게 어촌에 정착하려는 사람’들로 정책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들을 위한 주거, 일자리, 생활서비스 등의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촌다움을 토대로 사람들을 어촌으로 이끌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에서는 어촌 빈집 재생과 임대주택 활용 등을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 돌봄·의료·문화 등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적용하고, 거주자의 지속성을 높일 일자리와 어촌의 경관과 특성을 고려한 어촌어메니티의 보전 및 발전방안을 담게 될 것이다.

둘째, 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유형과 지원내용 및 방식을 다각화해야 한다. 어촌뉴딜300사업의 성과평가체계에 따른 추진 성과 분석과 현재 수립 중인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의 열두 가지 지표(인구사회, 경제활성화, 기초인프라 분야)에 따른 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과 목표를 세분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어촌뉴딜300사업에서는 어항을 중심으로 한 배후 어촌으로만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후에는 마을과 권역 등 사업범위 설정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셋째, 사업의 추진주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대체로 공단·공사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협의체 내에 사무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채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

에 해당하는 추진주체의 보완이 절실하다. 지역-주민-신규 유입 희망자 간 링커(linker)로서 역할을 하고, 어촌문화·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기업 혹은 공동체의 활용, 어촌특화지원센터(현재 광역단체별 1개소, 전국 10개소 설치)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이 고려될 수 있는데, 추진주체의 형태나 지원방식 등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 내가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드는 마음으로

어촌은 어업생산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농촌이기도 하고, 레저와 관광이 가능한 휴양 공간이기도 한 다채로운 성격을 가진 곳이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곳이 바닷가 마을, 즉 어촌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생산·정주기반 개선에 초점을 둔 어촌뉴딜300사업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어촌뉴딜사업의 시즌2 ‘포스트 어촌뉴딜’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삶터로서 만족도가 높은 ‘내가 살고 싶은 곳’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 인구감소 시대, 어촌의 현황과 대응 전략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장

##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토 외곽지역의 섬과 어촌

섬과 어촌은 국토의 가장 외곽지역(Outermost Regions)에 위치하고, 입지적인 특성과 여건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공익을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보편적·배분적 이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2020, p.12). 수산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섬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은 ‘수산물의 포획 또는 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 이외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사회후생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류정곤 외, 2018, p.24)’로 볼 수 있다.

연구자의 시각과 정의에 따라 섬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은 다를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섬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활정주기반으로 지역 사회 유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어업활동 전진기지, 국민의 해양레저활동 지원, 국경감시 등 해양영토의 수호, 재난사고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등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섬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해양영토를 둘러싼 인접국가 간에 갈수록 치열해지는 대외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대내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섬과 어촌은 인구규모가 도시와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국토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교육·의료·문화여가 등 생활SOC와 서비



국토의 외곽지역으로서 섬·어촌의 공익적 기능

출처: 류정곤 외(2018)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스 전달체계는 열위에 있고, 이로 인해 어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낮다. 무엇보다도 국토 외곽지역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섬과 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어촌사회의 지역소멸 위기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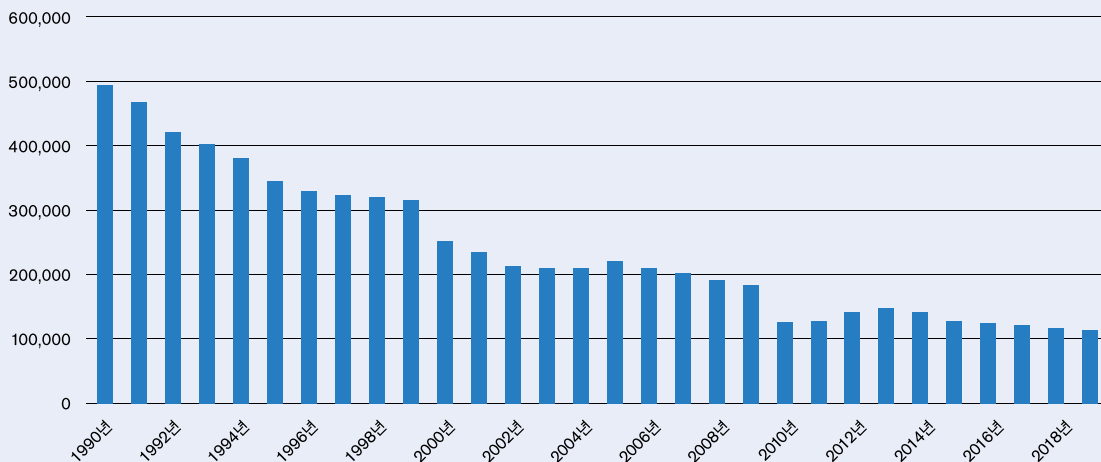
어촌은 어업활동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식량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남획 등으로 어업어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어촌은 빠르게 위축되면서 동시에 늙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어가인구가 1967년 114만 명에서 정점을 찍고, 2019년 기준 11만 명으로 급감하여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위축된 변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어촌사회의 고령화율은 이미 초고령사회를 넘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1990년 기준 5.4%에서 2019년 39.2%로 증가하고 있다. 어촌사회는 반복되는 지역쇠퇴의 순환고리로 인해 정주민구 이탈과 자연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어촌사회의 신규인력 유입은 귀어귀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2010년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동하는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어촌사회에서도 2013년부터 귀어귀촌 통계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어촌사회는 복잡한 면허·허가 제도와 어촌계 가입조건 등 수산업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인력 유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귀어인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39세 이하의 청년 귀어인 수도 전체의 18~1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국민들의 인식 속에 ‘수산업과 어촌은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산업재해가 많은 곳’이라는 부정적인 면이 깔려 있고, 주거공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선과 양식어장 등 어업 인프라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 기인한다.

어촌사회에서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신규인력 유입은 한계를 보이면서 어촌의 미래는 한층 더 어두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촌사회의 인구구조 변화가 현재의 추세대로 이어진다면 2045년에는 지역소멸지수 0.2 미만 지역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지역으로 보면 81.2%가 지역소멸 고위험지역에 들게 된다(박상우 외, 2018, p.77). 섬지역과 어촌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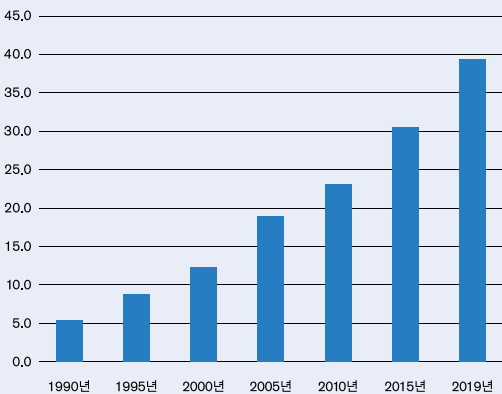
어가인구 추이(1990~2019)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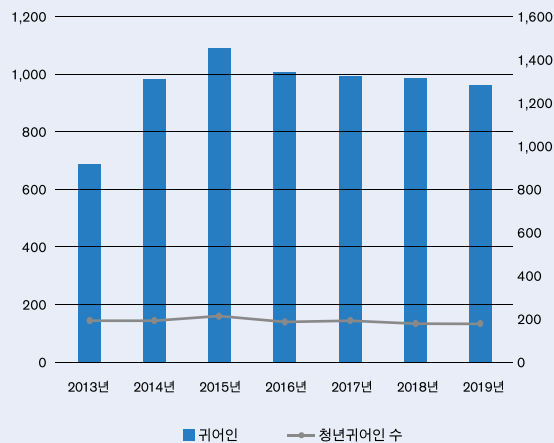
고령화율 추이(1990~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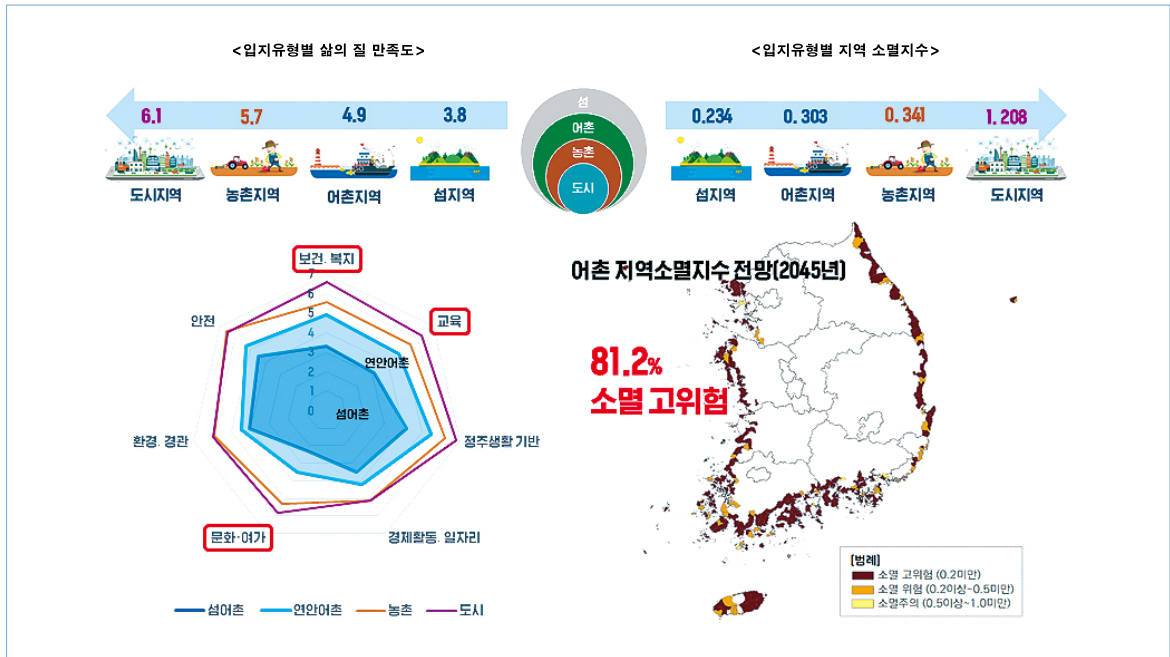
귀어인 수 추이(1990~2019)

단위: 명



## 어촌사회의 인구변화

출처: 통계청, 농림어업조사(각 연도); 귀농어·귀촌통계(각 연도)



어촌 인구·사회 동향 및 전망  
출처: 박상우(2021.3.3, p.6)

의 지역소멸지수는 각각 0.234와 0.303으로 도시 1.208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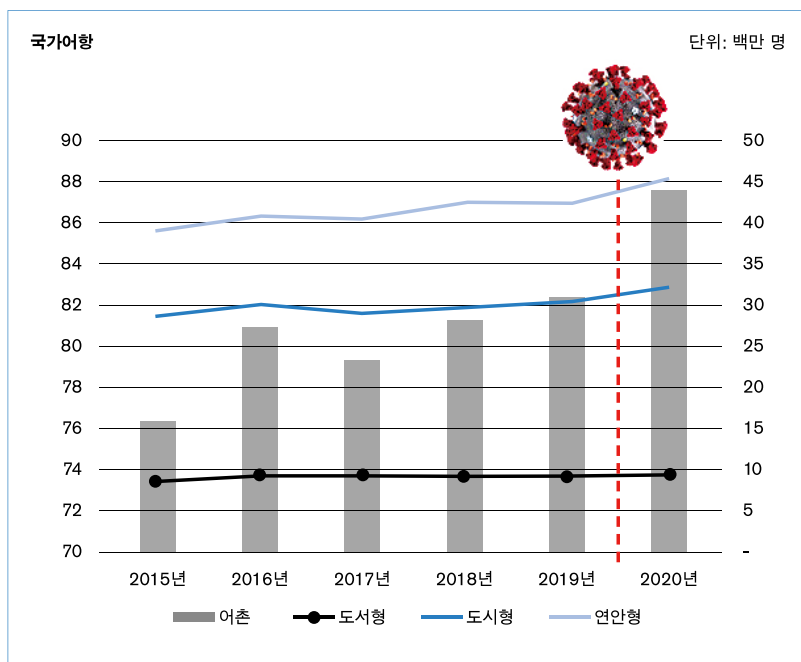
한편 입지유형별로 삶의 질 만족도는 지역소멸지수 결과에 따라 그 대로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삶의 질 만족도는 섬(3.8), 어촌(4.9), 농촌(5.7), 도시(6.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과 어촌의 외곽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게 평가되고 있다. 섬과 어촌은 삶의 질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의 대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필요하다.

## 어촌의 다양한 부존자원과 높은 집객력

어촌사회는 분명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수산자원, 수려한 자연경관, 마리나, 어촌체험시설의 해양레저 인프라 등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존자원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여가수요 증가에 따라 높은 집객력을 나타내고 있다. 수산물 판매장과 관광객들을 위한 편

익시절을 갖추고 있는 어항에서는 연간 400만 명이 넘게 찾아오고 있으며, 인천 소래포구항은 1,300만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집객력은 코로나19 이후 억눌린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픈 국민들의 욕구가 커진 것이 주요 요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어촌지역에서 수산물 구매, 경관 감상, 산책, 차박, \* 유어낚시 등의 레저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전후의 국가어항 및 어촌뉴딜 사업지 유동인구



어촌뉴딜 사업지

단위: 천 명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률
섬지역(60개소)	19,727	22,185	12.5%
도시지역(24개소)	37,902	43,374	14.4%
도시지역(105개소)	61,305	63,031	2.8%

\* 차 안에서 잠을 자는 캠핑의 뜻으로 차와 숙박을 합성한 신조어

최근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어촌의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선제적 대응전략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소멸 대응전략의 핵심은 사람 중심의 어촌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소규모 어촌사회의 변화를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어촌지역 사회경제변화 장기추적 조사’를 통한 어촌 공간통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어촌사회의 경제활동과 정주공간의 분포특성을 고려하여 마을어장·어항·배후촌락을 최소규모 공간단위로 구획하고, 인구사회·산업경제·물리환경 등 조사항목에 기초하여 정밀진단과 미래 전망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섬과 어촌의 지역소멸 위기를 정부와 지자체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근거와 사람 중심의 파격적인 지원내용을 담은 ‘(가칭)국토 외곽지역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까지 어촌정책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으로 청년, 여성, 국내외 어업종사자,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초고령어업인과 소규모 영세어업인 등을 위한 어촌사회 경영 이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 지원의 영역을 생산 이외에도 유통 및 가공, 관광서비스 분야로 확대하여 다양한 소득원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어촌사회 지원정책의 방향성이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어촌사회의 관계인구와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단기체류, 지역연고자, 지역교류자, 관광객들이 어촌마을에 지속적으로 관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인력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낙후된 어촌어항 현대화와 해양레저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어촌의 지역소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이행할 수 있는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을 제2기의 어촌뉴딜로 추진해야 한다. 포스트 어촌뉴딜에서는 어촌사회가 지향해야 할 주민주도형 지역개발, 스마트화, 탄소중립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실행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주민주도형 지역개발은 어촌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의 역량 제고와 지역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어촌사회 문제해결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스마트화는 첨단화된 제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을 통해 어촌사회에 누적되어 해결되지 못했던 현안으로서 어업생산성 향상, 주민 삶의 편의성 제고, 열악한 작업환경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

해 나가야 한다. 또 탄소중립 시대에 어촌사회에서도 노력해야 할 탄소배출의 저감, 탄소흡수 및 저장,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어촌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통한 사회혁신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국토 외곽지역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섬과 어촌을 살리기 위한 국민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참고문헌

- 1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2020).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 확대방안.
- 2 박상우. (2021.3.3.). 2021 어촌사회 전망과 이슈. 2021 해양수산전망대회 발표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3 박상우, 류정곤, 황재희, 이상규. (2018). 인구소멸 시대를 대비한 어촌사회 정책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4 류정곤, 박상우, 고동훈, 윤영준. (2018).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어촌뉴딜 선도사업 사례: 소풍 가는 섬, 당진 난지섬

정옥주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들어가며:  
난지섬의 가능성과  
회복의 시도

어촌뉴딜300사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어촌다움을 회복하고,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경쟁력 있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어촌뉴딜300사업의 방향성을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어촌다움의 회복’과 ‘경쟁력 있는 어촌’이라는 숙제에 대한 목표와 전략 그리고 물리적 구성과 프로그램 등을 도출하여 계획의 틀을 짜는 것이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의 역할이라고 판단하였다.

당진시는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의 대상지로 난지도를 선정하였다. 사업의 취지와 조건에 맞는 대상지였다는 점과 당진시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연환경이라는 점 두 가지가 중요한 선정 이유였다. 난지도는 대난지도와 소난지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9년 12월 기준 총인구가 281명인 작은 어촌이다. 60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55%인 초고령화 지역이며, 유일한 교육기관인 삼봉초등학교 난지분교에 단 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다. 전국의 섬어촌마을에서 드러나는 전형적인 인구문제를 난지도 역시 피해 가지는 못했다.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조선 시대의 난지섬은 충청·전라 지방에서 서울 경창으로 향하는 조운선이 기항하는 곳이자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일제강점기 때 대난지도에 축조된 제방을 통해 조성된 농경지와 염전을 기반으로 1980년대까지 소금 생산이나 농산물 재배와 해산물 양식이 활발한 섬이었다. 모든 것이 풍족하였다. 하지만 1984년 대호방조제가 축



다양한 매력을 가진 난지도의 워터프런트 경관

출처: 당진시(2020, p.131, p.133)



조되고, 이 일대에 석유화학공단이 조성되면서 어장이 황폐해지고 주민의 삶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반등을 기대하면서 2008년 대대적인 난지도 해수욕장 조성을 통해서 관광산업에 눈을 돌렸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난지도 자체의 인구 및 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새로운 처방에 대한 기대와 요청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당진시 차원에서 볼 때도 난지도의 미래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당진시의 워터프런트는 대부분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으며, 왜목마을·행담도·삼교호 그리고 난지도 정도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해양관광자원으로 거론된다. 그중에서도 난지도는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관광지로서의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어 워터프런트로서의 가치가 높아 당진시의 주요한 공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접근성 등 몇 가지 문제점만 개선된다면 당진시의 내륙 관광지와 함께 주요 관광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 소풍 가는 섬, 난지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의 주요 내용과 방향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난지도를 진단한 후 계획의 쟁점 세 가지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해안경관·산지경관·습지경관 등 다양한 자연경관이 공존하는 섬으로서 경관적 가치와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되었지만, 기존의 관광계획은 보유한 자원을 십분 활용하지 못하고 시설 도입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난지도 경관의 잠재력을 어떻게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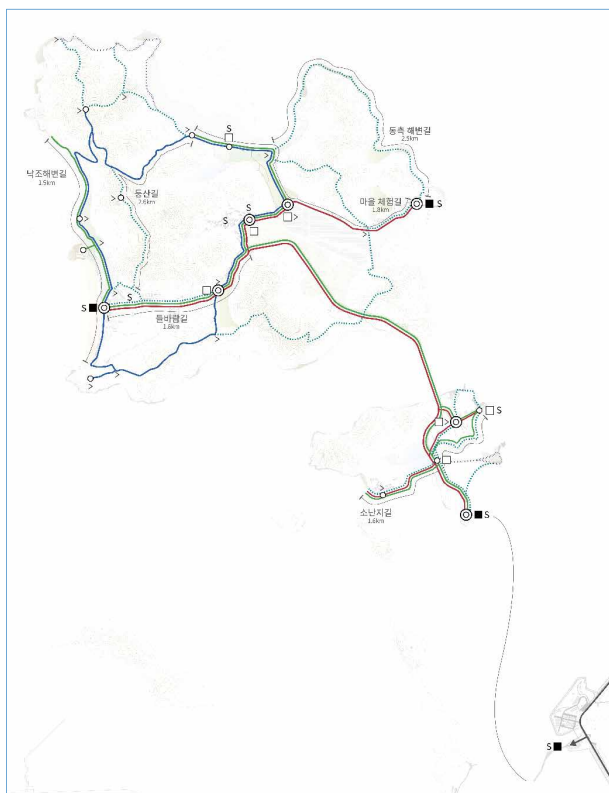
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계획의 주안점이 되었다. 두 번째는 접근성에 관한 것이다. 많은 도서지역이 그러하듯이 난지도도 접근과 이동이 어려운 장소이다. 하지만 배편으로 10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고, 소난지도와 대난지도를 잇는 연도교도 건설 중이어서 섬 전체에 대한 이동성 제고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동수단과 동선체계의 개선은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필요한 계획의 항목으로 판단되었다. 세 번째 계획의 쟁점은 인구와 산업에 관한 것이다. 인구변화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의 어업생산과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역량의 크기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계획의 주안점이 되어야 하였다.

종합분석과 쟁점을 토대로 계획의 지향점을 ①회복의 섬 ②지속가능한 섬 ③소풍 가는 섬으로 설정하였다. 회복은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이다. 유지·관리 비용을 수반하는 강렬하고 자극적인 시설물이나 콘텐츠를 도입하는 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그간 가려졌거나 변형된 자연과 문화경관을 발굴·개선하여 난지도 고유의 매력을 되찾는 회복체제와 과정을 계획하고자 했다. 또 고비용의 급진적인 대형 기반 조성을 지양하고, 쉽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저비용의 지속가능한 난지도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섬자연·섬마을·섬주민이 가진 자원을 발굴하고, 섬의 역량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업기반의 종류와 규모를 조정하고 계획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회복과 지속가능함이라는 대전제하에 ‘소풍 가는 섬’이라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큰마음 먹고 계획을 세워 많은 준비와 함께 떠나야 하는 ‘관광 가는 섬’이 아닌 가벼운 마음과 준비로 언제든지 다녀오는 ‘소풍 가는 섬’을 지향하고자 한 것이다.

‘소풍 가는 난지도’ 만들기는 뉘앙스만큼 가벼운 지역계획전략은 아니다. 이 콘셉트의 단어들은 각각의 전략을 내포하고 있는데, 우선 ‘소풍’은 한 계절 피크 관광으로 대변되는 ‘휴가’의 반대급부 개념으로 세 계절 혹은 사계절 부담 없이 방문이 가능한 틀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휴가’처럼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방식이 아니라, 하루에 몇 명 씩이라도 꾸준히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소풍’이라는 단어에 내재되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는 ‘가는’에 해당하는 접근성 개선에 관한 것이다. 섬에 가는 일은 일상에서의 탈출이기도, 작은 구역에 갇혀 있는 것이기도 하다. 소풍처럼 가볍고 편안하게 방문할 장소라면 쉽고 안정적인 접근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마스터플랜의 성과가 달려 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과제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전략이자 대상은 ‘난지도’ 그 자체이다. 어촌이나 섬을 개발하자고 하면 새로운 볼거리를 수입하고자 하는 관성이 존재한다. 대형 조형물이나 전망대·출렁다리 같은 볼거리는 잠깐 이목을 끌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흥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신상’ 아이템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난지도의 아름다움을 즐기러 오는 것이어야지 지속가능하다. 이곳에서 오래 생활한 주민들에게도 미처 드러내지 못한 섬의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도 마스터플랜의 큰 과제로 보았다.



난지도 접근 및 동선 체계 제안  
출처: 당진시(2020, p.123)



난지도 본연의 경관을 강조할 수 있는 방식 제안  
출처: 당진시(2020, pp.136-137)

‘소풍 가는 난지도’는 방문객만을 위한 전략은 아니다. 얼핏 보면 거주민들의 고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전략은 주민들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첫째, ‘소풍’은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연결된다. 1980년대 어장이 황폐화된 이후 소득이 감소하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해수욕장을 대대적으로 확장 공사하였지만 실패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의 어업은 일정 수익을 취할 수 있지만 예전만큼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므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지역 주민 모두의 관심사이다. 어장도 축소되고 어업도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업과 관광을 겸하는 경제구조를 고민할 시기이다. 소풍의 개념으로 꾸준히 사람들이 방문하는 상황이 전개되면 이를 수익구조로 연결해 줄 다양한 발상이 개발될 수 있다.

둘째, ‘가는’이라는 개념에서 방문객의 접근이 쉽다는 것은 섬 주민들이 육지와 더 편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물론 섬에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위한 육지와 긴밀한 연결은 섬 주민의 주거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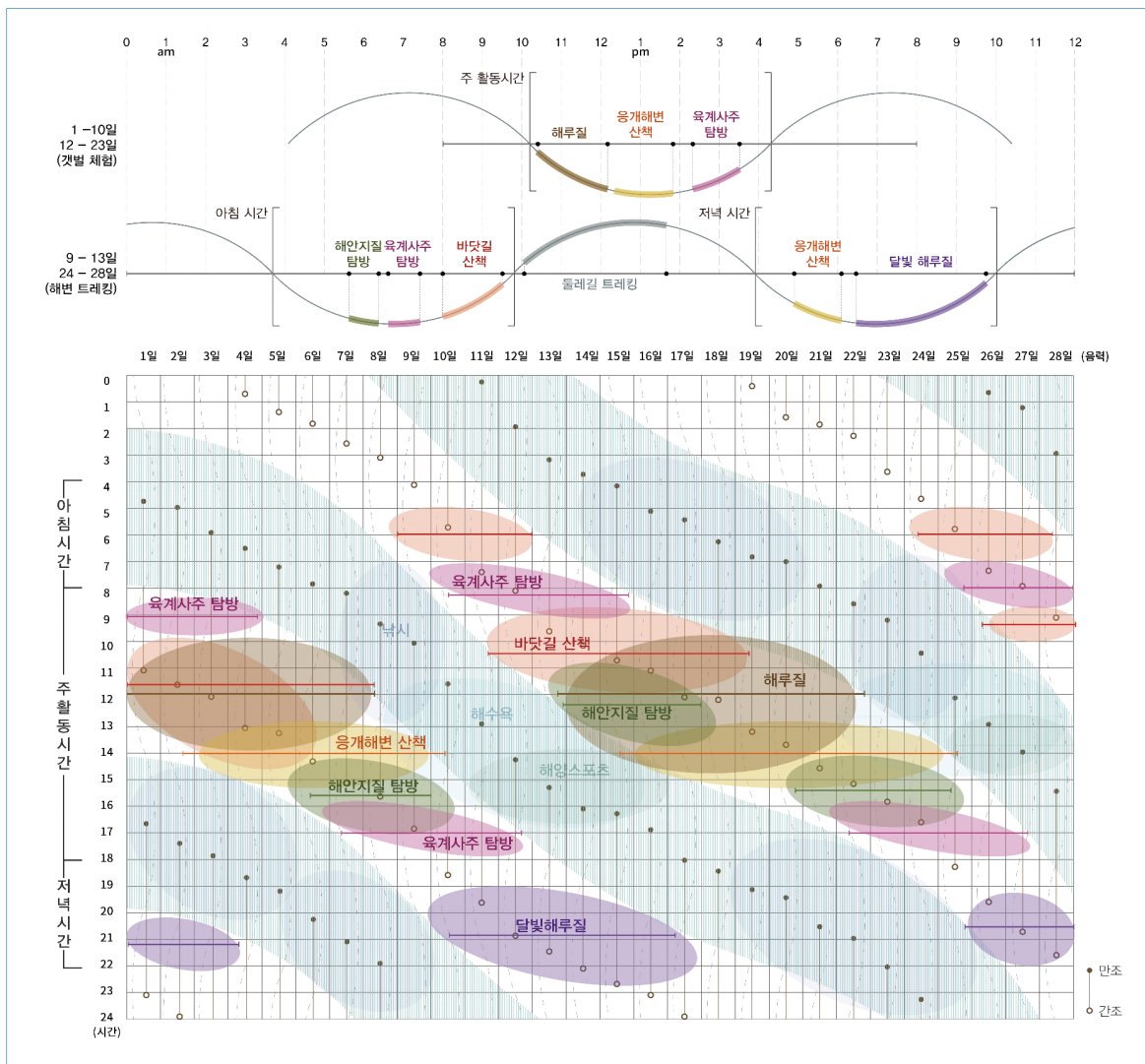
마지막 세 번째는 난지도의 환경이다. 난지도는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다. 생산과 생활의 근간인 섬의 환경이 주민생활 여건과 비례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도시에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자연이 쉽게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섬 자연생태환경의 회복과 복원이 포함된 난지도의 환경 개선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배경이 될 것이다.

계획의 지향점은 자연스럽게 기본구상으로 전개된다. ‘회복의 섬’ 구상은 보존·발굴·개선·복원의 카테고리로 나뉘서 난지도의 주요 경관자원인 갯벌해안·육계사주·육계도·해안습지·해송림·산지경관의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대형 개발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되돌리는 방식을 담는다.

‘지속가능한 섬’ 구상은 크게 이동 인프라와 건축 및 시설물 인프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이동 인프라는 난지도 내 차량 통행을 최소화하는 원칙하에 연도교 완공을 전제로 소난지도 선착장에서 난지해수욕장에 이르는 주 차량동선을 제안하고 마을버스·자전거·보행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이동을 유도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건축 및 시설물 차원에서는 대규모 신규 시설물 개발을 지양하고, 난지도 자연환경의 보존 가치를 극대화하는 구상을 제안하

였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방치된 개발시설을 철거하여 섬의 경관을 개선하면서 기존 유휴 건축물과 시설을 활용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필수시설로 판단되는 섬의 입구격인 소난지도 선착장과 대난지도 어업센터를 주변경관과 기능통합을 고려하면서 신축하도록 제안하였다.

‘소풍 가는 섬’ 구상은 운영 및 프로그램 제안으로 전개된다. 섬의 경험 시나리오 제공을 통해 방문객이 다양하게 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관광 프로그램을 대난지도어업센터·난지섬해수욕장·



조석 주기에 따른 체험 시나리오

출처: 당진시(2020, p.191)

마을·수살미해안·응개해변·소난지도 일대 이상 여섯 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주제를 설정하여 세부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또 방문객 유형별 시나리오와 조식 주기에 따른 체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다양한 소품의 형식을 제시하였다. 경관자원, 동선체계, 운영 프로그램은 개별적이 아닌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방식으로 계획하였다.

## 난지섬의 시작, 여객터미널의 변신과 주민공공시설의 조성

도비도항에서 출발한 여객선은 소난지도 선착장을 들러 대난지도로 떠난다. 소난지도 선착장의 이용객은 그리 많지 않으며, 주민 혹은 소난지도의 펜션 이용 관광객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재 공사 중인 연도교가 완성되고 대난지도와 소난지도가 이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도비도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소난지도 선착장이 전체의 관문이 되고, 육지와와의 거리가 짧아지면서 여객선도 증편될 가능성이 생긴다. 현재 소난지도 선착장은 길고 외진 해안도로의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어서 관문시설로서의 입지는 유리한 면이 많지 않다.



국유지 사면을  
활용한 소난지도  
선착장 제안  
출처: 당진시(2020,  
p.162)



이에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규모의 적정화와 섬 경관의 잠재력 회복 및 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시설계획이라는 목표하에 선착장 측면 국유지 사면을 이용하여 약 160m 선형의 실내대합실과 편의시설 및 관광안내센터를 갖춘 선착장을 제안하였다. 여객선을 맞이하는 고즈넉한 소난지도의 풍경을 연출하면서도 돌출되는 구조물을 최소화하여 해안경관 회복에도 일조하도록 하였다. 무료한 접근도로가 선형의 여객편의시설이 이어지는 흥미로운 길이 되면서 도보권에 있는 육계도와 연계된 체험도 가능하여 관문적 성격과 함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함께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계획은 시설부지가 부족하여 매립지를 조성하고 건축이 도입되는 방식이었으나, 국유지인 선형의 사면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매립계획을 취소하고 주변의 경관을 크게 훼손하거나 변형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시설을 도입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 나가며

우리는 과거 개발시대의 계획방식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짜고자 하였다. ‘대규모’와 ‘일회성 아이템’을 제공하는 개발을 지양하며, 세심하게 섬 자체의 잠재력과 매력을 발굴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 섬의 인구구성과 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경제구조를 제안하였다.

다행히 난지도는 당진시민 혹은 충남도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매력이 잠재한다고 판단된다. 당진시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 가운데는 어린 시절 경험한 난지도에 대한 추억을 간직한 분들이 많다는 점은 ‘소풍’이라는 콘셉트의 기댈 언덕이 되었다. 난지도 주민 의견을 경청하면서 진행된 마스터플랜이지만, 실행단계의 성패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참여가 좌우할 것이다. 선도사업이라는 명칭에 맞게 타의 모범이 될 만한 계획과 실천으로 전개되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494개 유인도서에 유의미한 개발전략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당진시. (2020). 당진시 난지도권역 어촌뉴딜 300사업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보고서.



# 어촌뉴딜 선도사업 사례: 머물고 싶은 달섬 만들기, 목포 달리도

김주경

(주)오우재건축사사무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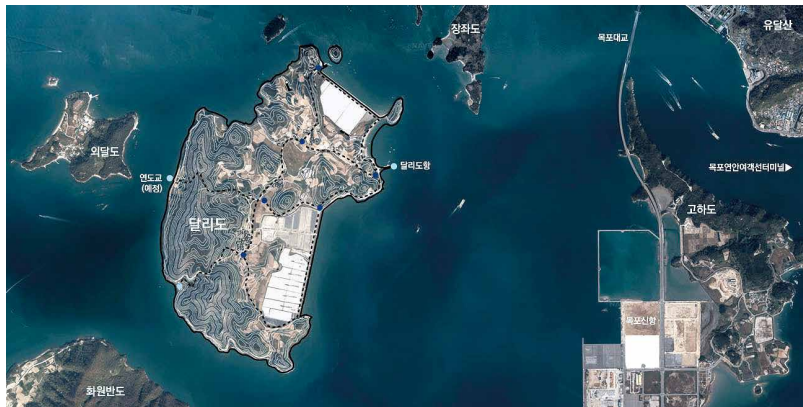
## 들어가며

달리도는 목포 앞바다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작은 섬이다. 모양이 달과 같다 하여 이름 붙여진 이 섬은 목포의 유인도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높다. 한때 500여 명에 달했던 섬 거주 인구가 현재는 100명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벼농사 중심의 농경문화와 갯바위 낚시 등 어업활동이 공존하는 ‘생활의 섬’이다.

달리도에 가기 위해서는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페리선을 타야 한다. 30분이 소요되고 하루 네 번 왕복하는 정기선박으로 달리도는 육지와 이어져 있다. 생필품을 시내에서 구입하는 등 스스로 목포 생활권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섬주민이 적지 않아, 방문자들은 섬 특유의 고립적이고 배타적인 문화보다는 도시인의 개방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하지만 방문자들이 달리도를 처음 찾게 되면 당황하기가 쉽다. 이 섬에는 이방인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숙박시설이 없고 매점이 없으며 공중화장실이 없었다. 당연하게도 이 섬을 찾는 이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다시 찾지 않게 되는데, ‘달리도의 관광객’이란 말은 현재의 조건에서는 형용모순이라 할 수 있다.

내륙의 농촌마을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달리도의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부족한 부분을 도시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섬 내 큰



달리도 위치

출처: 다음지도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개의 섬전이 활황이었을 때는 임노동으로 살던 외지의 인부들이 섬 곳곳에 거주하면서 작은 숙소, 다양한 점포 등 각종 편의 시설이 많았다고 한다. 1990년대 이후 섬전 산업과 김 양식장의 생산성이 떨어지자 인부들은 섬을 떠나게 되고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자취를 감추었다. 그 뒤 주민들은 20여 년간 이것들의 부족을 견뎌오고 있었던 셈이다.

## 어촌뉴딜사업의 시작

달리도의 어촌뉴딜사업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됐다. 달리도 서쪽 인근의 외달도가 해수풀장을 중심으로 관광 섬의 정체성을 강화해 온 것과 달리, 이곳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종합계획 수립자인 (주)명소의 황길식 박사는 인문, 사회적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주민과의 세밀한 면담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조건들을 정리하고 달리도의 물리적인 공간환경에 필요한 기능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크게 두 갈래의 방향성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주민들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생활 자립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동시에 찾아오는 사람을 환대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달리도는 크게 남쪽의 1구와 북쪽의 2구로 행정구역이 나뉜다. 달리 1구가 논농사 중심의 오밀조밀 모여 있는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이라면, 달리 2구는 열 가구 남짓한 마을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주민들의 평균 연



령이 높은 것은 달리도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현재 주민의 대다수는 한때 타지 생활을 했을지언정 유년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있거나 섬 내 정주한 기간이 상당하다. 그만큼 느슨한 연대감을 갖고 있어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어촌뉴딜사업의 대상과 용도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주민소득사업과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 위주로 정해졌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부수적으로 방문자를 위한 공간을 배려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정하면서, 마을 공동체 시설 리모델링, 주민 소득사업 생산시설 신축, 커뮤니티 공간과 손님맞이 공간 확보 세 방향으로 사업을 구체화하였다.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건축가를 선정하였으며, 두 마을의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고, 버려진 옛 김가공공장을 휴게쉼터로 탈바꿈시키며, 수양홍도가공공장을 새로 짓고, 어촌뉴딜사업의 핵심시설인 ‘쉬어家’와 커뮤니티 공간을 짓는 설계를 진행하여 단계별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기다리고 있다. 세 곳을 리모델링하고 두 곳을 신축하는, 모두 다섯 채의 집을 짓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 마을의 중심: 복지회관 들

달리도의 복지회관은 다른 마을에서 흔히 보듯 아래층에 경로당이, 위층에 회합실이 있는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동안 닫혀 있었지만, 1층은 접근이 쉽고 설비도 잘 갖춰져 마을회관으로서 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2층은 가끔 열리는 마을 행사를 제외하면 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주민들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면서 1층은 공간개선 차원에서 접근하고 2층은 작은 숙소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계획 방향을 정하였다.

두 곳 모두 자연녹지지역에 있어 건축물이 놓일 수 있는 면적(건폐율 20%)이 매우 적었다. 이미 법적 허용 면적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리1구 복지회관은 추가로 요청하는 주민공동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계획할 수밖에 없었고, 달리2구는 2층 부분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설비와 공간을 확보하는 정도에서 계획을 가다듬어야만 했다. 단



달리1구 복지회관과 달리2구 복지회관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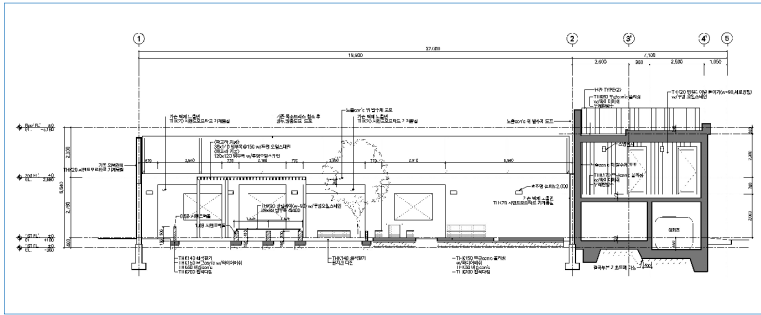
열이 부족하거나 방수가 취약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변형을 가하되 기존의 복지회관의 모습을 유지하는 방법을 취했고, 달리2구의 위층은 가변적인 벽체로 계획하여 숙소 및 회합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행약자를 위한 승강기가 없어서 연로한 주민들이 잘 활용하지 않았던 2층 공간을 명절 때 찾아오는 가족이나 방문객 등 이방인을 위한 환대 공간으로 바꾸는 데 있어 모든 주민들이 흔쾌히 동의해주었으며, 마을의 중심공간이자 찾아오는 나그네를 위한 공간으로 복지회관을 탈바꿈시킬 수 있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시공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이 추가되어 소소하게 변경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을회관 리모델링의 경우 석면 자재나 내진설계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의미 있는 설계를 진행 수 없다. 엄격한 석면관리체계에서 기존의 마감 자재에 대한 조사 작업이 병행해야 하고, 2층 이상에 증축 등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달리도의 경우도 석면조사와 정밀구조안전진단 등의 추가업무를 해야 했고, 설계기간과 사업비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수해야만 했다.

### 주민과 방문객의 휴게 쉼터: 옛 김가공공장

달리도 북쪽 끝에 위치한 김가공공장은 문을 닫은 지 30여 년이 지난 유휴 산업시설이다. 단층 작업장과 복층의 주택이 결합된 블록집으로, 현재는 폐허지만 미래에는 방문객들의 주요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곳이기



옛 김가공공장 단면도



옛 김가공공장 공사 현황

© (주)오우재건축사사무소

도 하다. 북부염전 방파제 끝에 있어 지붕에 오르면 소금밭과 목포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용도를 다한 작업장은 목조트러스의 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미 벽체는 갈라지고 목재는 부분적으로 삭아있었다. 지붕재도 석면 슬레이트여서 걷어내야만 하고, 바닥도 주저앉은 곳이 다수였기 때문에 건축물로서 기능이 다한 상황이었다. 쓸 수 있는 벽체와 트러스를 활용하되 하늘로 열린 공간으로 바꿔, 실내 작업장을 녹색 치유 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기존 복층의 주택 부분은 노후도가 심하여 전부 철거하고 같은 형상으로 새로 지으며, 공공화장실과 전망대의 기능을 새로 부여하였다.

리모델링 공사는 철거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일이 다반사다. 김가공공장도 공사 중 조사해보니, 벽체가 기초 없이 세워져 있고 목조트러스의 가려진 부분의 손괴가 상당하여 당초 계획을 수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공공의 쉼터이기 때문에 안전해야 하고 옛 정취도 지켜야 하기에, 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조성될 것 같다.

## 주민소득사업 생산기지: 수양홍도 가공공장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달리도의 주민소득사업으로 수양홍도 가공사업과 생선 반건조 사업이 있었다. 공공과 주민의 공동투자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라 공정에 따른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조성해야만 하는 시설이었다. 설계공모에서 두 곳의 땅에 개별 건물을 설계하는 것으로 계획설계

를 했었는데, 재원조달 및 사업성 문제로 생선 반건조 사업은 접어야만 했고 남은 예산은 마을 전체 사업인 ‘쉬어家’ 커뮤니티센터에 투입하기로 하고, 수양홍도가 공공공장만 짓기로 정해졌다.

주민들로 구성된 별도 법인을 세워 섬 한가운데 위치한 수양홍도가 자라는 과수원에 가공공장을 짓는 일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하였다. 생산 공정에 대한 기준이 늦게 세워졌고, 감염병으로 주민과의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계획을 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의사결정과정도 다소 느린 편이라 올해 수확한 결실로 생산품을 만드는 것은 어렵게 된 셈이다.

공사비도 넉넉하지 않아서 당초 계획과 달리 경제적인 재료로 설계를 진행해야 했는데, 세 개의 저장고를 포함하는 작업장과 법인사무실과 공공화장실이 있는 사무동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고 최종 주민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마중과 배웅의 공간: 달리도 쉬어家

‘쉬어家’라는 이름이 붙은 이곳은 달리도 어촌뉴딜사업의 중추 공간이다. 방문자들을 위한 숙박시설과 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가 결합된 ‘달리도 쉬어家’는 목포로 연결되는 페리선이 도착하는 섬의 입구에 위치한다. 누구나 달리도에 도착하면 반드시 이곳을 통해 정보를 얻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쉬어家’가 지어질 이 대지 위에는 기존 건축물로 대합실이 막 완공된 상태였다. 대지 정면 중앙에 지어진 이 건물이 한가운데 딱하니 놓여 있었기 때문에 ‘쉬어家’는 대합실의 존재를 존중하면서 계획을 해야만 했다. 알박기처럼 장애요소로 보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를 이용하면 좀 색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았다. 기존 대합실 남쪽으로, 무슨 의도인지는 몰라도, 필로티로 조성된 통로가 놓여 있었다. 마치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암시하는 것 같기도 했으므로, ‘쉬어家’의 입구로 삼기로 했다. 달리도 섬마을 집들을 관찰하여 대표적인 크기의 집을 골라 대합실 뒤로 오밀조밀한 작은 방문자 마을을 만들고 싶었다. 농가한옥 한 채와 복층 나무집 한 채가 하나의 집을 이루고 돌담과 나무담장으로 공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세 집을 구성하였고, 농가한옥과 나무집 사이 공간은 하늘로 열린 거실로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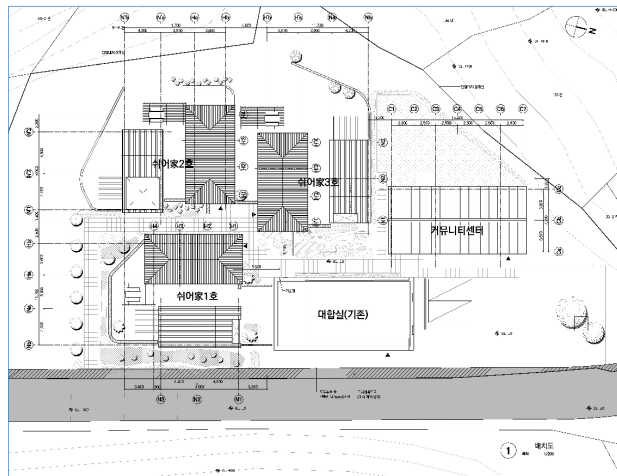
하도록 평상과 그늘막을 설치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채마다 다른 가족이 머물 수도 있고 같이 쓸 수도 있는 융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북쪽으로는 커뮤니티센터를 배치하여 주민 회합이나 방문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합실 사이로 마당을 두고 한편에 정자목을 심어 주민과 이방인의 맞이광장이 되도록 계획했다.

바다를 향한 조망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해안가 펜션과 달리, ‘쉬어家’는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 골목과 돌담, 꽃과 나무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동네가 되기를 희망했다. 일부 주민과 심의 전문위원들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이곳은 수직의 전망대보다는 수평의 평안한 ‘집’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주)오우재건축사사무소



대합실  
통로에서 본  
유달산과  
목포대교



달리도 쉬어家  
배치도



쉬어家 골목길



쉬어家 2호 하늘 거실



쉬어家 조감도

늘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풍광이 되기 어렵다. 산고개를 넘거나 골목길을 돌아 나와 움직임 속에서 찾아질 때, 그 장면은 깊은 감동을 준다. ‘쉬어家’ 골목길을 지나 대합실 통로 사이로 만나게 되는 유달산과 목포대교의 풍경은 그래서 더 값지다. 앞으로 나갈수록 더 넓어지는 목포 앞바다도 사람의 발걸음과 함께할 때 더 역동적으로 다가온다.

## 나가며

달리도는 외부에서 바라볼 때, 그리 매력적인 섬은 아니다. 기암괴석이나 너른 백사장도 없고, 편의시설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방문자에게 매우 불친절한 섬이다. 대신 달리도에는 고즈넉하고 넉넉한 목가적 풍경이 있고 섬들을 배경으로 하는 시시각각 변화무쌍한 바다 풍광이 있다.

정자(亭子)는 그 자체의 생김새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축형식이다. 달리도는 이런 정자를 닮았다. 유달산을 품은 섬, 다도해를 품은 섬. 대개 정자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곳에 있듯이 달리도를 찾기 위해서는 다소 귀찮은 통과의를 거쳐야만 한다. 이제 어촌뉴딜사업으로 머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니 조금만 노력하면 편안한 정자 아래에서 돌도 없는 눈호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 콘텐츠 기반의 어촌 공간 만들기

김민경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 어촌의 재발견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이다. 2만 6,000km 해안선을 따라 자리 잡은 어촌지역은 지역마다 특색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축제, 다양한 액티비티, 여가문화 등이 가능한 여건을 제공하며 로컬을 지향하는 시대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대를 만나면서 밀폐·밀집·밀집에 대한 대응이 보다 쉬운 공간으로서 어촌지역의 잠재력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 또 삶의 가치변화에 따른 한달살이, 반농반X, 리모트워크 등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어촌지역은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도시 지역에 비해 적은 경쟁과 적은 예산으로 실험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 어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공간

그야말로 요즘은 ‘콘텐츠 홍수의 시대’이다. 최근 쇠퇴 또는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국비지원사업에서도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 지역에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도시의 다양한 문화와 기술을 접한 청년들에게 지방도시나 농어촌지역을 그들이 가진 아이디어와 기술로 재생시켜 주길 기대한다.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청년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지역에 내려



가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는 늘 따라다닌다.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다이닝,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연극, 전국의 수많은 캠핑장에서 즐길 수 있는 캠핑이지만 결국 그곳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지역만의 콘텐츠와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최근 어촌지역의 건강한 해산물 등 해양자원, 어촌만이 누릴 수 있는 액티비티, 어업과 관련된 역사를 지역의 유희공간 재생에 접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선 해산물을 콘텐츠로 한 사례로는 빈 채로 방치되어 있던 지역의 활선어 위판장을 재생한 제주의 ‘해녀의 부엌’을 들 수 있다. 목포의 건해산물 상가거리 활성화를 위해 건해산물과 맥주를 결합한 ‘건맥’이라는 콘텐츠로 일회성 축제에서 더 나아가 지역자산화를 통한 마을 팝(pub)을 조성한 사례도 같은 유형이다. 또 강원도 속초의 ‘칠성조선소’와 같이 과거 목선을 제작했던 조선소를 활용해 개인의 이야기를 공공이 향유하는 문화로 제공하거나, 부산영도 항만수리공업소를 리모델링하여 지역 기반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 ‘무명일기’ 등도 있다.

어촌에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접목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양양이라는 지역에 해양액티비티를 콘텐츠로 결합한 ‘서피비치(SURFY BEACH)’, ‘울릉도 한달살이’,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는 거제 장승포항 ‘아웃도어빌리지’도 어촌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활동과 자원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많은 사례 가운데 어촌지역이 가진 잠재력에 지역의 콘텐츠를 입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주)해녀의 부엌의 ‘해녀의 부엌’과 조선업의 쇠퇴로 침체되어 있는 거제의 장승포를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주)공유를 위한창조의 ‘아웃도어빌리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 해녀의 부엌: 지역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청년과 해녀의 상생

### 유희화된 활선어 위판장의 변화

2019년 6월 제주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종달리에 지역주민과의 상생(해녀 문화의 공유), 해양자원의 가치상승을 목표로 해녀의 부엌이 문





해녀의 부엌 외관



©auri

을 열었다. 20여 년 전 유희화된 활선어 위판장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해녀의 부엌은 공간의 화려함보다 해녀의 문화와 이야기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공간을 리모델링하였다. 이러한 진정성을 기반으로 해녀와 다이닝을 결합한 콘텐츠를 제공해 많은 사람의 감동과 공감을 얻어냈으며, 2020년 기준 1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해녀의 부엌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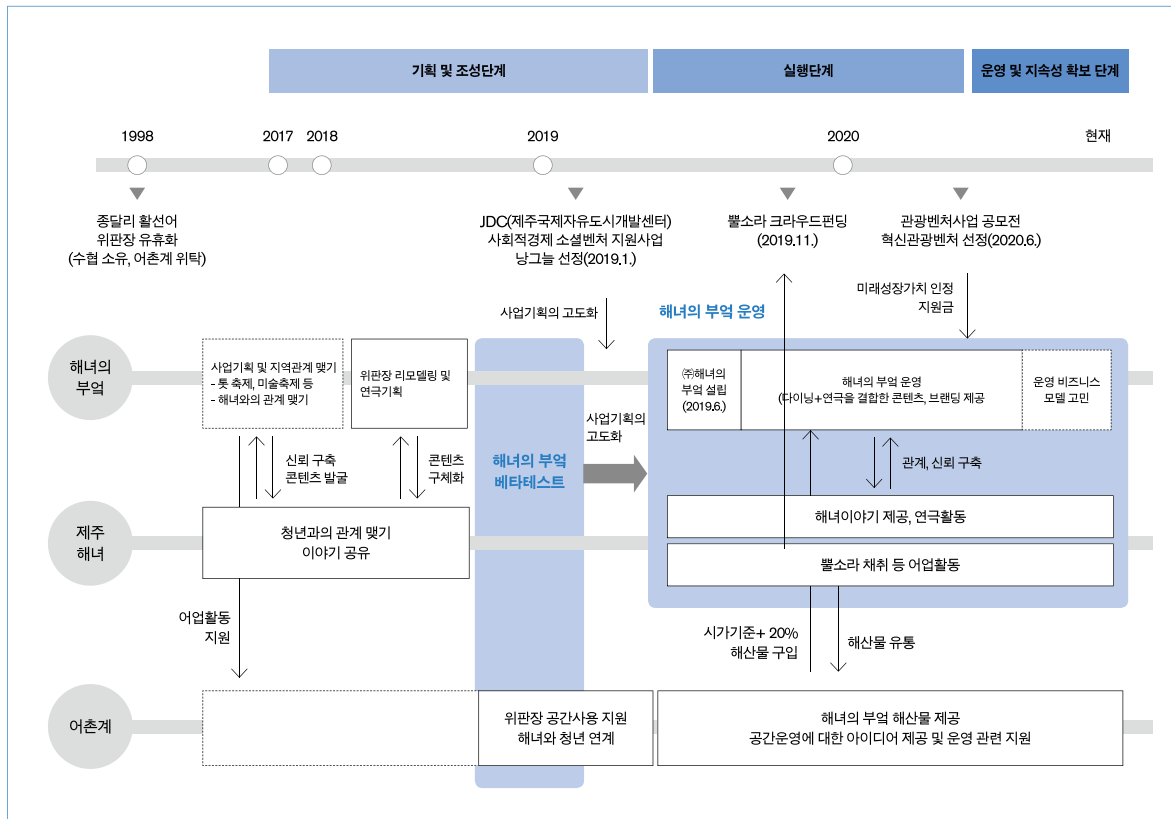
해녀의 부엌은 세 주체들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이루었다. 세 주체는 ▲해녀의 부엌을 기획하고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여 콘텐츠와 공간을 조성한 청년조직 (주)해녀의 부엌 ▲청년들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기획의 기반이 된,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인 제주 해녀들 ▲청년들이 제주지역에 정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준 어촌계(지역사회)이다.

### 지역의 본질적 문제 접근을 통한 진정성 있는 콘텐츠 제공

해녀의 부엌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청년들과 해녀, 지역 주민(어촌계)과의 신뢰 구축을 기반으로 한 라포 형성에 있다. 우선 (주)해녀의 부엌 대표는 제주 해녀의 집안에서 자라 그들의 문화와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어촌지역의 특성상 고령자가 많고, 어업이라는 생계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강하게 형성된 곳에 새로 유입된 청년이 정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

다. 그러기에 (주)해녀의 부업은 자신들이 어촌지역과 이곳 사람들 삶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감을 얻는 과정에 가장 많은 노력을 쏟았다.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는 나서서 어업일을 돕기도 했고, 해녀 분들과 잔치를 벌이고 놀이도 하였다. 그런 시간들이 모여 서로에 대해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자원의 브랜딩 전략을 마련하였다는 점도 주효하였다. 어촌지역은 고령인구가 많고, 대부분 1차산업에 기대어 살아간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해양자원의 질은 높으나 이러한 자원들을 매력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브랜딩과 전략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노력과 수고에 비해 어촌계-수협-도매상의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가치가 낮아지게 된다. 제주 해녀어업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



해녀의 부업 주제별 추진 과정



해녀의 부엌 내부 공간



©auri



해녀의 이야기를 결합한 연극



©auri

로 지정될 정도로 보전·관리할 가치가 있으나 해녀들에 의해 수확되는 빨소라 등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의 자연산 톳과 빨소라는 수확량의 대부분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나 단가와 환율이 낮아지고 코로나19로 수출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양자원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녀의 부엌은 이러한 지역의 본질적 문제에 집중하고 본인들의 경험과 능력을 어떻게 콘텐츠로 연결할지를 고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해녀의 이야기와 연극을 결합하고, 빨소라를 활용한 다이닝을 제공하는 콘텐츠를 발굴해 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노년의 해녀가 직접 전달함으로써 콘텐츠의 진정성을 더했다.

기존의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내려오는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추진하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하드웨어만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지역과 청년과의 관계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



펄소리를 이용한 다이닝 메뉴와 지역 해산물 활용 상품



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해녀의 부엌은 미리 콘텐츠를 결정하고 그에 맞춰 추진하기보다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해녀의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신들의 기술과 능력을 접목해 콘텐츠를 발굴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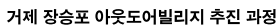
##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하는 거제 장승포

### 부산에서 거제로, 세컨드빌리지의 시작

(주)공유를위한창조는 부산지역에서 2016년 8월 도시민박촌인 ‘이바구 캠프’를 시작으로 2018년 ‘포플러음악다방’, 2019년 1월 영도구 ‘우리가사랑방’이라는 공유공간을 조성하고 공간의 운영자를 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연계·발굴해 왔다.

커뮤니티 기반의 공유공간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공유를위한창조는 부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터 지역을 2019년 거제의 장승포로 결정하였다. 그들이 조선소 항구도시인 거제 장승포를 두 번째 지역으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고향인 부산과 가까우면서도 바다가 있는 곳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들에게 바다는 우선 어릴 적부터 보며 자란 까닭에 삶의 안식처 같은 구실을 하는 곳이다. 그리고 바다는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자원이라고 그들은 인식하였다.

(주)공유를위한창조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마을 둘러보기, 지역주민과 이야기 나누기, 마을의 역사와 문화자원 발굴하기,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 파악하기 등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 6개월간의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맺는 과





정 속에서 지역의 잠재력과 정말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 기반의 생활형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지역의 콘텐츠를 발굴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지역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6개월이라는 시간은 부족하며 최소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 공유공간 ‘밖’-‘여가’-‘거가’의 연계와 유연한 공간 활용

(주)공유를위한창조는 콘텐츠를 발굴한 이후 바다·강·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거제에서 캠핑, 낚시, 서핑, 트레킹, 윈드서핑, 카약킹 등 다양한 액티비티와 그 문화를 즐길 콘텐츠를 실현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조성된 공유공간은 세 곳이다. 로컬 라이프스타일의 시작과 향유를 위한 체크인센터로서의 아웃도어 라운지 ‘밖’, 로컬라이프 스타일이 새로운 상품으로 생산되는 곳 ‘여가’, 로컬스테이 & 메이커작업장으로서의 ‘거가’이다. 조성된 각 공간들은 서로 연계되거나, 지역 내 필요한 기능을 대신하기도 하는 등 지역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작업장에서 공유부역으로 공간의 용도도 유연하게 전환하였다.



‘밖’ 조성 전후



© (주)공유를위한창조



공유공간 ‘여가’ (좌)와 ‘거가’ (우)



© (주)공유를위한창조

콘텐츠와 공간을 기반으로 이 공간을 공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주)공유를위한창조는 아웃도어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세컨드 홈’으로 기능하도록 다양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커뮤니티 클럽을 운영하였으며, 지역과 마을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마을 스터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히 지역의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한달살이’를 제공하여 취향공동체와의 로컬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한달살이에 참여한 20명의 청년 중 2명은 현재 거제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다. 그중 한 명은 커뮤니티라운지 ‘뵈’ 내에 쉼인숍 개념의 커뮤니티 바를 운영한다.

### 취향을 넘어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빌리지로

(주)공유를위한창조는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살고 싶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아웃도어라는 유사한 취미를 가진 청년들에게 관계인구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셈이다. 그리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단순한 모임을 넘어서 가진 능력과 경험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시너지를 일으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선순환체계를 만들고자 지금도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

## 공간과 콘텐츠를 연결하는 힘, 사람

두 사례 모두 해녀 연극과 다이닝,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콘텐츠를 지역의 유희공간인 활선어 위판장과 빈집을 활용하여 실현하고자 하였다. 유희공간을 이들의 콘텐츠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선택한 배경으로 그들은 모두 ‘지역이 가진 역사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들이 조성한 공간은 공간을 단순한 소비로서의 목적에 두지 않고 무엇을 위해 만들어지는 공간인지, 물리적 공간을 통해 어떠한 가치와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를 잘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공간을 구성해야 하는지를 진정성 있게 고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문제와 잠재력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이야기에 주목하였으며, 콘텐츠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콘텐츠와 공간 조성에 유연하게 대응하였다. 새로운 어촌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많은 청년이 콘텐츠를 구상하고 콘텐츠를 실현할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를 지속하게 하고 공간과 지역의 콘텐츠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임을 확인케 하는 사례이다.

#### 참고문헌

- 1 건축공간연구원, 울어바웃. (2020). 지속가능한 村 만들기. 해양수산부.
- 2 박은진, 박정일, 손유진. (2020). 커뮤니티 공유공간 가이드북. 공유를 위한 창조. 거제: 공유를 위한 창조.
- 3 서수정, 이상민, 오세원, 김민경, 임정하, 백하영. (2020). 2020년도 어촌·어항재생사업 디자인제고 모니터링 위탁. 해양수산부.
- 4 박은진. (2021). 아웃도어빌리지@장승포. 제1회 마을재생 세미나 발제자료.
- 5 김하원, 박대철, 권영희 인터뷰(20.7.31, 20.8.1) 내부자료.
- 6 (주)공유를위한창조 블로그. <https://blog.naver.com/cre4sharing>
- 7 (주)해녀의 부엌 홈페이지. <http://haenyeokitchen.com/>



# 로컬의 미래를 위한 어촌·어항재생의 방향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인구감소 시대의 어촌, 로컬의 미래

최근 언론에서 올 고교 입학생이 역대 최저인 41만 3,927명이며,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단 1명도 없는 학교가 전국에 128곳(전년 대비 3만 2,754명 감소)이나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하였다. 올해 출산인구는 인구 1,000명당 5.3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통계청은 2028년 총인구수 5,194만 1,946명으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67년 3,929만 3,827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는 수치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가운데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인구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인구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였다. 지방 소도시는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상생활에서 체감한 지 이미 오래다. 특히 어촌지역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선 읍면은 어촌지역 총 271개 중 231개나 된다(박상우, 2018, p. 52).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어업생산성이 저하된 것도 심각하지만 무엇보다도 어업인구의 고령화로 외국인 노동자로 어업활동을 이어가는 어가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도 오래다.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어촌은 일정 규모의 인구밀도가 유지되어야 운영되는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의 여파로 재난재해 위험도 늘어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교육을 실천하려는 자녀를 둔 30~40대도 있다. IT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는’ 리모트워크가 가능해지면서 ‘2도5촌’을 즐기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멸위기 지역인 어촌은 팬데믹 시기에 가장 안전한 청정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가 일상으로 복귀할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세계적 재앙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먼 미래의 일로 여겨졌던 재택근무의 일상화와 온라인 강의, 화상회의, 랜선 공연 확대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져올 언택트 시대는 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컬의 미래는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지역재생은 ‘쇠퇴한 지역에 새로운 삶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LGA, 2000)’으로, 로컬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어촌의 미래가 우울하지만은 않은 이유이다.

### 로컬의 미래, 지속가능한 어촌을 위한 지역재생의 조건

생태환경운동가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Hodge)는 그의 저서 <오래된 미래>에서 인도 북부 라다크(Ladakh) 지역의 전통이 파괴되고 회복하는 과정을 탐색하면서 “지역의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만이 미래 인류를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생태적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지속가능성은 재화의 생산과 분배가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를 지역으로 가져오기’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역재생은 로컬의 미래를 위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생존전략이다.

로컬 지향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로컬은 단순히 서울과 대비되는 지방 도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로컬을 이야기하는 모종린 교수는 연남동과 홍대·성수동의 카페거리 등 골목상권과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창업활동과 경제행위 모두를 로컬의 범주에 두고 설명한다.

지역은 ‘삶터로서 지역의 공간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 경험하면서 만들어 온 가치(문재원, 2017)가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지역이라는 우리말 대신에 로컬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는 새로운 라

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와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읽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어촌은 생태환경을 중시하고 지역의 먹거리를 즐기면서 일하고 싶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소위 로컬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기회의 장소로 여겨진다. 어업생산기반이 살아 있고 해안경관과 고즈넉한 어촌마을의 정취는 휴양지이자 리모트워커들이 선호하는 일터로서도 가치가 높다. 해양레포츠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은 양양의 서피비치처럼 아웃도어 비즈니스로 발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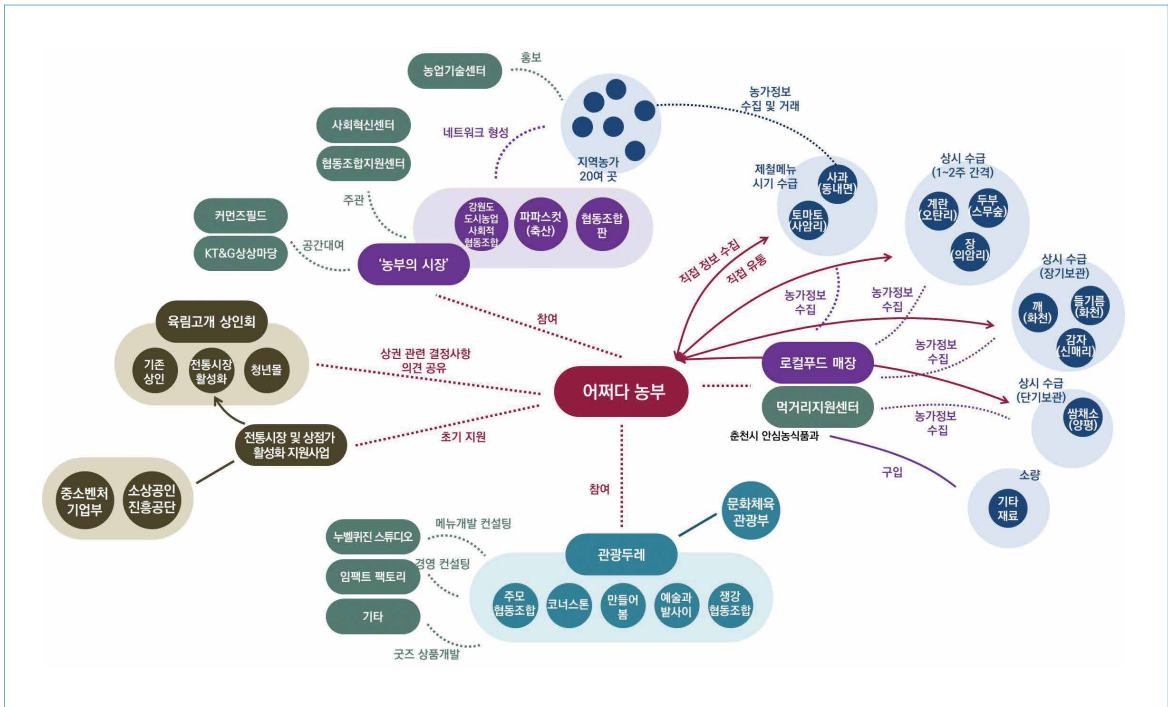
그러나 이들의 활동과 정착이 쇠퇴하는 어촌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로컬을 지향하는 계층의 성향중 하나가 언제 어디라도 움직일 수 있는 ‘유목민’ 성향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촌의 미래는 지역에 사는 사람 누구라도 일상생활 서비스를 누리면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다양한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융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것이 쇠퇴하는 어촌의 지속가능한 재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 지역의 생태계 회복을 통한 어촌·어항재생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여러 주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도 ‘해녀의 부엌’은 로컬 크리에이터의 기획력과 어촌계, 생산을 담당하는 해녀들이 기존 사업을 새로운 콘텐츠와 결합해 새로운 관광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어촌은 아니지만 로컬을 지향하는 사례로는 춘천의 ‘어쩌다 농부’ 식당 운영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식당은 로컬푸드만으로 메뉴를 개발해 운영하는 곳으로 원도심의 유휴공간에 자리를 잡고 관광두레나 사회혁신센터가 운영하는 농부의 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모임 등 다양한 지역활동과 연대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식당 운영을 중심으로 여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기존 농민과 상인들의 협조는 이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로컬의 활동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점적으로 발생하고 연계되었을 때 지역의 경제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경제생태계가 탄탄해



지역의 농업, 관광, 상업, 문화활동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춘천의 로컬 푸드 식당인 '어쩌다 농부'의 활동연계  
출처: 서수정 외(2021), 춘천시 지속가능 도시 공간관리 전략 수립 용역, 미발간 자료

야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대도시로 떠나지 않고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마을 단위, 소규모 개별 어항 중심의 국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몇 곳의 어항과 어촌을 연계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문화, 관광, 복지,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묶음사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한 부처 연계사업이 아니라 기획단계부터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공공사업과 민간 주도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공공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다음으로는 좋은 공간환경을 만드는 데 지역주민과 어촌·어항재생에 참여하는 많은 주체가 협력해야 한다. 좋은 공간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장소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어촌의 해양 생태계와 경관을 살리기 위해 인공적인 시설물과 장식물은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데 재원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생태



환경과 경관이야말로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활동 자원이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해양레저 관광지로 유명한 이탈리아 친퀘테레(Cinque Terre)를 들 수 있다. 친퀘테레는 5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국립공원이다. 친퀘테레 국립공원 지정은 ‘해양경관과 경사지를 활용한 포도경작지를 살리는 것이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인지한 지역주민들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친퀘테레에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설치되었고, 포도경작을 전제로 신규 건축허가와 농업설비시설 조성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생태와 토지이용현황, 인문사회현황을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와 보존해야 할 토지, 경작지로 보존해야 할 토지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관광수입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20%를 전통적인 포도경작지 운영에 재투자하고 있다. 여기서 중세시대부터 조성된 요

암벽과 포도경작지로 둘러싸인  
친퀘테레의 해안경관



©auri

게스트하우스가 모여 있는  
중세 골목에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  
친퀘테레의 골목길(좌),  
포도경작지로 둘러싸인 친퀘테레(우)



새와 같은 건축경관과 포도경작지의 벽쌓기 방식을 유지·관리함으로써 공간환경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친퀘테레에서는 이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재료를 분석·실험하여 전통적인 색채를 찾아내서 신축 또는 증·개축 시 이를 지키도록 한다. 지역주민들은 포도경작지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건식벽 쌓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지역주민과 마을협동조합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2003년부터는 철도회사와 함께 폐역사를 살려 친퀘테레 국립공원의 해안절벽을 따라 철도 운행을 재개하였다. 친퀘테레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기보다는 마을 초입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마을 내부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좁은 경사로와 중세시대의 좁은 골목길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친퀘테레에서 공간환경의 질을 관리하는 것은 국립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친퀘테레만의 독특한 해안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립공원을 지정한 이후 친퀘테레는 포도경작과 가공품, 해양레저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대도시로 떠난 젊은이들이 지역으로 돌아오는 성과도 거뒀다. 그 결과 친퀘테레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800여 개의 세계문화유산 중 ‘문화경관’으로 분류된 지역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장소가 되었다.

쇠퇴하는 어촌에서는 재해에 대비하여 방파제를 보강하고 어민들의 생산활동을 위해 물량장을 정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겠지만, 바다를 매립하고 갯벌 체험장을 확대하면서 훼손되었던 바다생태계를 회복하는 한편 바다경관뿐 아니라 마을경관, 바닷가의 특수한 토양, 어촌배후 산림생태계는 미래 세대를 위한 좋은 자원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어촌·어항재생을 통해 공간환경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결국 해양생태계를 복원하여 지속가능한 어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좋은 공간환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폐어구와 폐자재를 어구보관창고 마감재로 활용하고, 버려진 그물망이나 조개껍질·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를 활용한다면 조형물이나 장식품을 설치해도 좋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해양쓰레기나 어업활동으로 남겨진 폐기물로 만든 에코백과 신발, 의자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은 어민들의 소득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은 로컬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취향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고 경험을 소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개방적인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하며, 어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일자리와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바닷가에 가면 당연히 자연산 횡집을 찾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갯구워낸 빵이 있는 카페, 지역에서 갯 잡은 해산물로 만든 스페인(또는 이탈리아 등) 식당, 바닷가 풍경과 동네 슈퍼가 그려진 그림책이 있는 동네 책방, 시원한 맥주가 있는 브루어리, 오래된 바닷가 창고를 공유 오피스로 바꾼 공간 등 대도시의 문화가 지역감성과 어울려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사람들은 어디라도 찾아간다. 결국 사람들은 공간에 채워지는 내용과 가치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다.

어촌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사회와 지역에 관심을 갖고 유입되는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새로운 경제활동인구가 연대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주효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헴자원과 빈집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새로



기존 공장건물의 구조와 재료를 그대로 살려 카페와 생활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한 강화도의 조양방직 카페



멍게 배양장을 리모델링하여 카페와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통영의 배양장 카페



유입되는 인적자원이 지역에 부족한 문화를 만들어 내고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로컬의 가치를 찾아내는 일을 지자체와 지역공동체가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마을이나 국비와 마중물 사업으로 주민경제활동 지원과 복지향상을 위해 조성한 해산물 판매장, 바다목장 운영관, 어민복지센터 등이 운영되지 않고 유희공간으로 남아 있다. 이 공간부터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 지역주민들과 지역에 정착하고 싶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비롯한 많은 이주희망자가 함께 고민해 본다면 많은 공공재원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건강한 주거와 복지시설이 갖추어진 삶터가 있어야 방문객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떠나지 않고 외지로 떠난 자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무엇보다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다양한



©auri



조선소를  
리모델링하여  
카페와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강릉의 칠성조선소

세대와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교육·돌봄·생활문화 서비스를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촌지역 주민을 위해 교육·의료·복지·문화 서비스 향유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어촌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이 유지될 수 있다. 특히 도서지역은 기상이 악화되면 물으로 나올 수 있는 배편마저 끊겨 응급상황에 대응하기도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와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무인판매소 운영, 기상변화 예측과 대피체계 확보 등은 물론, VR 기술 등을 활용하여 공연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의료서비스 체계는 의료계 협의와 제도적 개선이 선결 요건이지만 부처 협업을 통해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촌마을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 골목길 환경 정비, 노후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력 있는 어촌을 어촌·어항재생의 거점으로 정하고 여기서부터 지역의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데 국비가 쓰이도록 하며, 일시에 국비 총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준비여건과 역량에 따라 단계별로 마중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국비 지원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박상우, 류정곤, 황재희, 이상규. (2018).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2015). 오래된 미래. 중앙북스.

# 국민들은 거리의 공개공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용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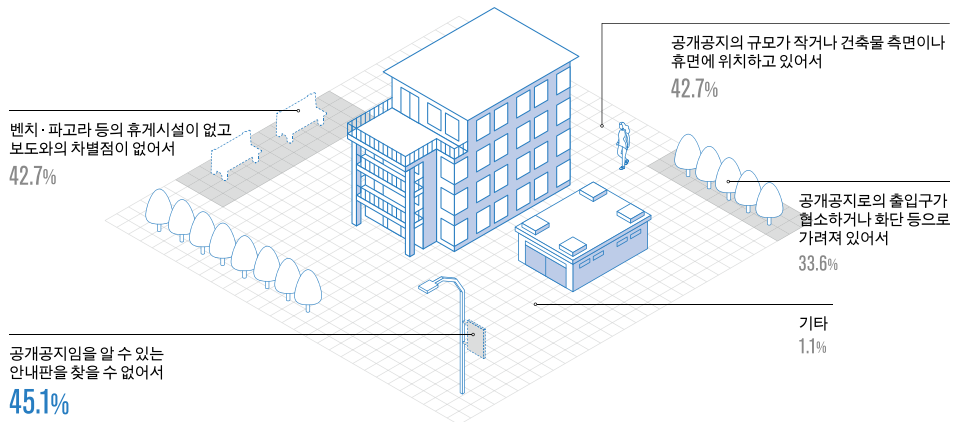
건축공간연구원은 공개공지 개소 수가 많은 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개공지에 대한 인식과 이용행태를 알아보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2020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성인 5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계자료실을 통해 조사 및 분석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 Q 평소 거리에서 공개공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지?

공개공지 인식 용이성



공개공지 인식이 어려운 이유(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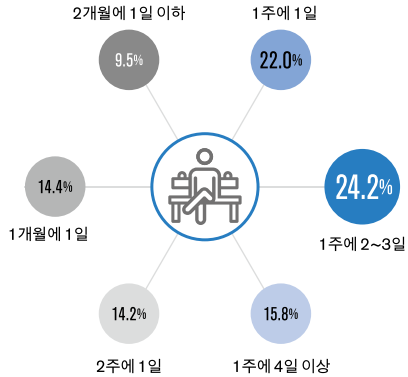
## A 안내판을 찾을 수 없어 공개공지 발견은 어려운 편

응답자들의 68.2%는 공개공지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공개공지임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을 찾을 수 없어서'(45.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공개공지가 작거나 전면에 위치하지 않음'(42.7%), '보도와의 차별성 부족'(42.7%), '협소하고 인식하기 어려운 출입구'(33.6%) 등의 이유가 그 뒤를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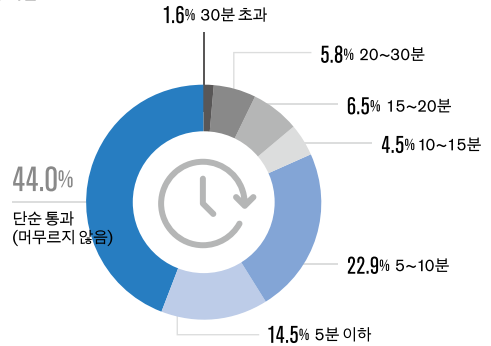
\* 공공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특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공간

## Q 공개공지를 얼마나 자주, 어떻게 이용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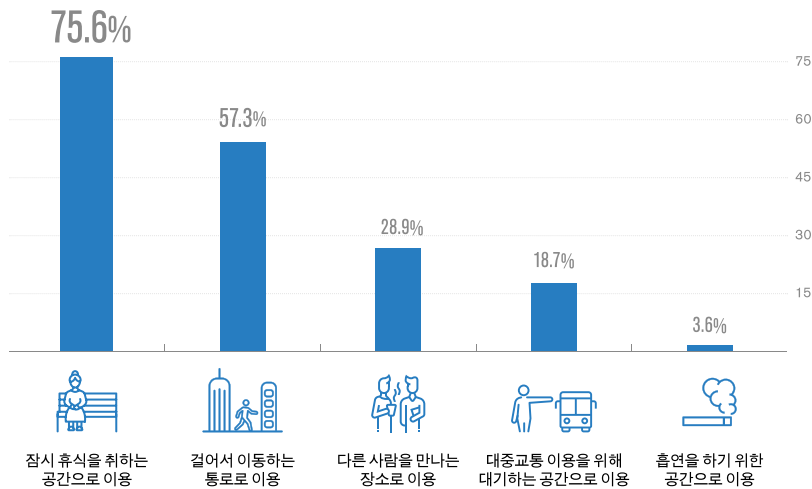
이용 빈도



머무르는 시간



공개공지  
이용행태  
(1+2순위)



## A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동하거나 잠깐 쉬어가는 공간으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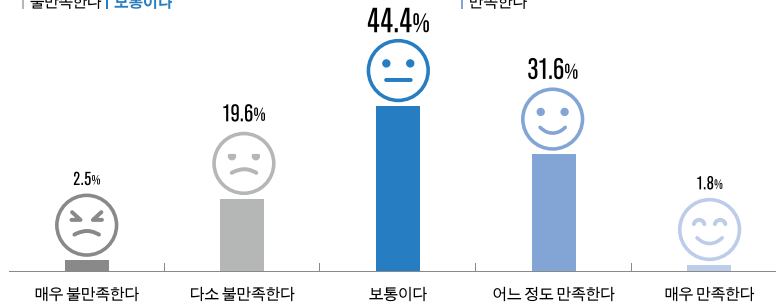
공개공지를 1주일에 한 번 이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62.0%)이며, 응답자의 15.8%는 1주일에 4일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개공지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공공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통로로 이용하거나 10분 이하로 머무른다는 사람들이 대부분(81.4%)으로, 오랫동안 공개공지를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공지 이용 경험이 있는 다수의 시민들은 '휴식공간으로 공개공지를 이용'(75.6%)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동통로로 이용'(57.3%)하거나 '다른 사람과 만나는 장소'(28.9%) 또는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18.7%)로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Q 공개공지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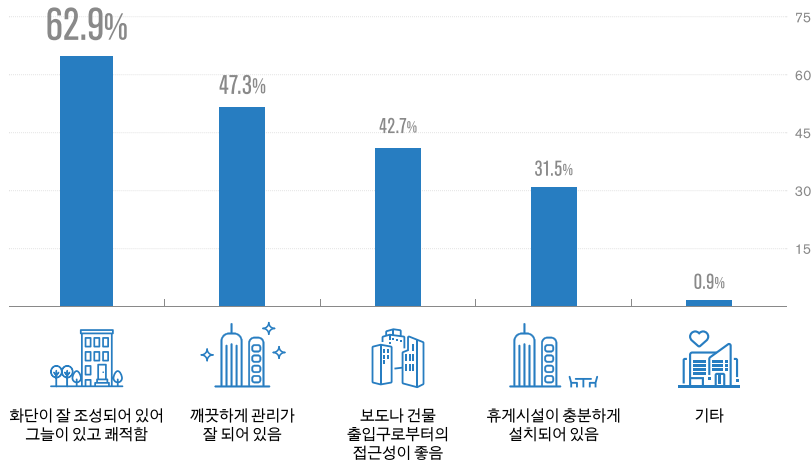
만족도



개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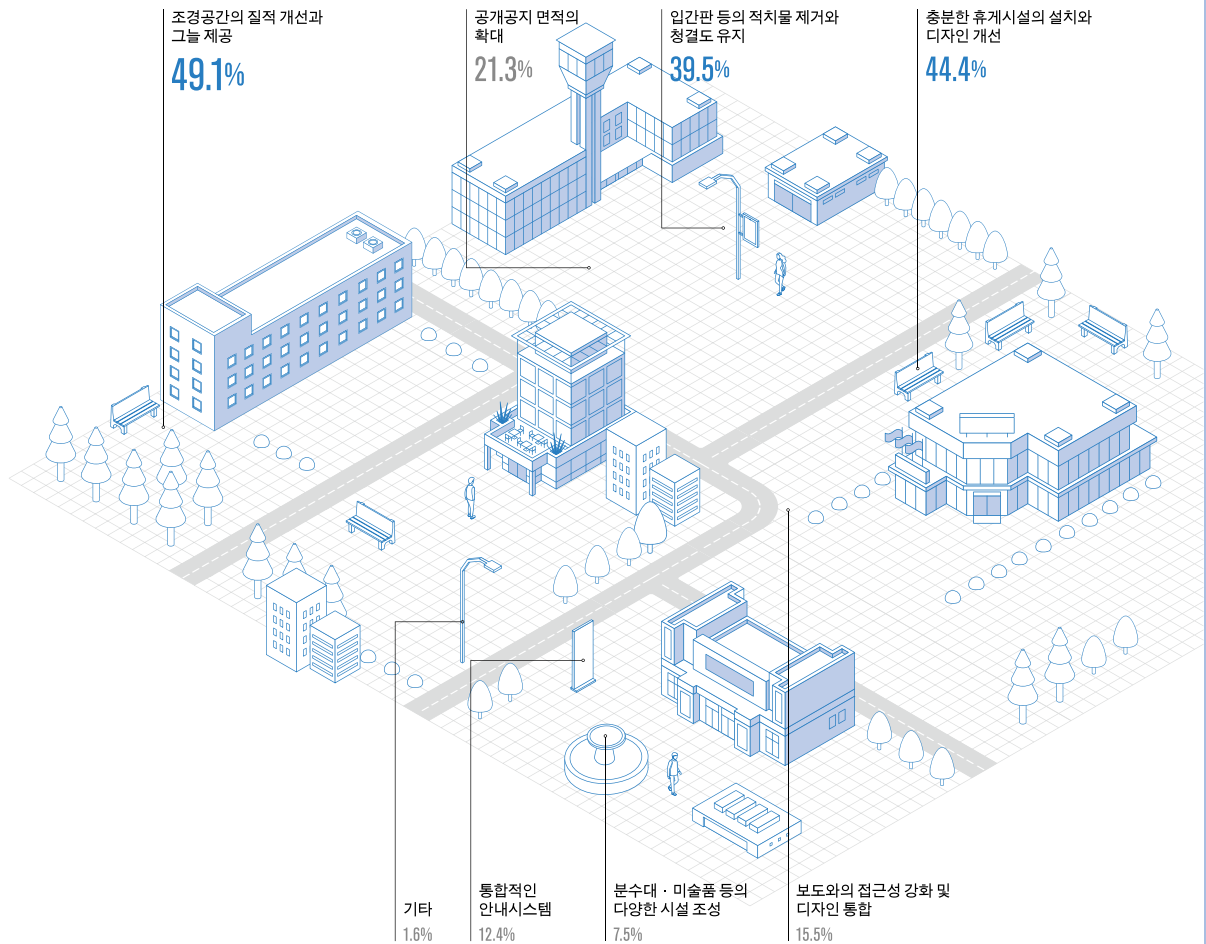
만족하는 이유  
(1+2 순위)



## A 화단이 잘 조성되어 있고 그늘이 있는 공개공지가 높은 만족도 제공

공개공지의 개수 수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의 개수 수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336명) 중 83.3%는 더 많은 공개공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이용자들은 공개공지의 시설환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높은 공개공지는 '화단이 잘 조성되어 있어 그늘이 있고 쾌적하다'는 응답(62.9%)이 가장 많았으며, '깨끗한 관리상태'(47.3%)와 '좋은 접근성'(42.7%) 또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Q 공개공지의 이용 활성화와 질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A 잘 조성된 조경공간과 적절한 그늘, 충분한 휴게시설이 필요

많은 시민이 공개공지를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만큼 '잘 조성된 조경공간과 적절한 그늘의 제공'(49.1%) 및 '충분한 휴게시설의 설치와 디자인 개선'(44.4%)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적치물 제거 및 청결도 유지'(39.5%)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공개공지를 정비하여 '공개공지 규모를 확대'(21.3%)할 필요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보도와의 접근성 강화'(15.5%)와 '안내시스템 통합'(12.4%)이 공개공지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건축과 도시공간

—

Vol. 42

Summer 2021

# 건축 도시 동향

Trend Report

## 2

프랑스에서는 도시공간에서 동식물과 공존하기 위한 실험이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어떤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지 해외동향에서 알아본다.

국내동향으로는 들어가는 폐철도부지, 즉 도시의 유휴부지를 지역 활력거점으로 활용하려는 ‘폐철도부지 활용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통합설계와 통합시공으로 공공시설 복합도시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접근성 있고 질 높은 생활 SOC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행복청의 시도도 살펴본다.



파리 라비레트(La Vilette) 공원의 이동 목축



강촌 레일파크 전경



Street Moves 적용 예시



## 해외

프랑스 도심 속  
생태농장  
실험 배경과 시사점  
064

## 국내

페철도 부지를 중심으로 본  
지역 활력거점 개발방안  
070

통합설계+  
통합시공으로 만드는  
공공시설 복합단지  
075

**프랑스 도심 속 생태농장 실험 배경과 시사점** | 프랑스에서는 몇 가지 사회적 현상을 바탕으로 "도시공간의 확장에 밀려났던 식물과 동물의 서식지를 다시 도심 안으로 들여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시민에게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거주자와 동식물 간의 동거를 재고하고 있다.

**페철도 부지를 중심으로 본 지역 활력거점 개발방안** | 우리나라에서는 페철도부지를 레일바이크·자전거도로·태양광사업·공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히 증가한 페철도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에 대한 다각화가 논의되고 있다.

**통합설계+통합시공으로 만드는 공공시설 복합단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은 2016년 교육청·LH·세종시 등 관계 기관과 '6-4 생활권 복합단지 통합설계 협약'을 체결한 후 총괄건축가를 선정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행복도시에서 처음으로 통합설계 방식으로 추진한 6-4 생활권 복합단지는 건축디자인이 우수하고, 시설물 간 연계성이 높아 조화로운 단지로 조성되었다.

# 프랑스 도심 속 생태농장 실험 배경과 시사점

유무종

프랑스 건축사, 도시설계사

## 들어가며

미래의 도시가 정말로 ‘도시 정글’이 된다면 어떨까? 도시공간에 동식물이 서식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자연과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멧돼지 무리가 활개치는 공원에서 피크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시나리오는 불가능한 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래의 도시를 동식물과 함께 나눌 준비를 해야 한다. 도시를 콘크리트 더미에서 벗어나 자연과 재통합시키고자 할 때 이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주제다.

프랑스에서는 몇 가지 사회적 현상을 바탕으로 “도시공간의 확장에 밀려났던 농작물과 동물의 서식지를 다시 도심 안으로 들여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시민에게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거주자와 동식물 간의 동거를 재고하고 있다.

## 사회적 배경

### 도시공간 확장에 따른 동물 서식지 감소 문제

프랑스 국립통계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에 따르면 1999년과 2010년에 도시공간이 19% 증가했다고 한다.\*

도시가 확장될수록 야생동물 또한 도시에 거주하는 처지가 된다. 프랑스에서 도시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7년마다 하나의 도(道)만큼 확장된다. 동물도 그만큼 서식종이 늘고 그에 맞추어 도시가 점점 더 푸르고 쾌적해짐에 따라 일부 종의 서식지는 분열되고 변형돼 도시가 더 녹지화되는지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민들은 때론 동네에서 야생동물과의 예기치 않은 만남에 행복해하며 먹이를 주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지역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농업 지역의 감소

프랑스에서 나오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마을 확장에 유리한 농업 지역의 점진적 소멸이다.\*\*\* 도시에서 식생활을 영위하려면 운송 등에 상당한 에너지를 써야 하고, 소비 장소에서 점점 더 먼 곳에서 먹거리를 가지고 와야 한다. 또 도시화는 수입 제품 및 가공 산업 제품의 소비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식품 스타일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2016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이러한 식단은 열량에 비해 영양이 부족하여 공중보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폐기물 처리

도시에서 인구가 서비스가 집중되면 상당한 양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연간 300kg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UN habitat, 2010). 폐기물의 총량은 인구 증가와 더불어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증가한다. 도시의 고형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2005년과 2025년 사이에 각각 51%와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Adhikari, 2016). 이는 도시 입장에서 상당한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 환경오염

자연환경에서의 인간활동은 언제나 환경오염, 특히 공기·물·토양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 세계 도시 인구의 20%만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대기 질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WHO, 2016). 도심지에서 흐르는 물은 자동차 및 산업공수로 인한 오염물질을 축적한다. 이와 함께 인위적으로 만든 재질로 구성된 인공토지도 또 다른 오염원으로 토질을 오염시켜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프랑스 농업계열 그랑제콜인 아그로파리테크(AgroParisTech)는 다가



아그로파리테크 옥상공간을 활용한 식물재배 실험

출처: <http://www2.agroparitech.fr/+Le-Monde-sur-les-toits-d+.html>

- \* 1,368개의 최소 행정구가 농촌에서 도시공간으로 이동했으며 대부분 통합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경계는 도시 단위의 합병으로 인한 새로운 도시 조직의 발견과 연결돼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인구 증가가 주된 이유로 오래된 농촌 지역이 도시공간에 흡수됐다.
- \*\* 파리지연사박물관 교수인 필립 클레고(Philippe Clergeau)는 미래의 도시 생물 다양성에 관한 회의에서 이를 두고 도시민이 동물군을 전유하는 기술로 보고 있지만 특정 종의 급속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대함이라고 말했다.
- \*\*\* 일드 프랑스(Ile-de-France)에서는 1990년과 2003년 사이에 농지의 12% 이상이 도시화를 위해 소멸됐다.

을 미래에 도심지에서 소비되는 농·축산물의 수요를 지방의 농장지가 공급할 수 없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도심 속 공동정원의 확장, 버려진 도시공간(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 또는 건물 테라스)을 활용한 온실재배를 연구 중이다. 그들은 먼저 860m<sup>2</sup> 면적의 학교 건물 지붕에 녹지공간(도심 속 쓰레기를 활용한 식물재배)과 룩셈부르크 정원의 양봉가협회에서 관리하는 벌통을 두어 생물의 다양성을 연구하는 중이다.

이들은 도시의 녹지공간, 특히 도심 속 생태농장은 이러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도심 속 생태농장이 제공하는 기능 식량 생산의 기능

도시농업은 운송과 보존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신선한 제품을 도시에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 도시농업과 근교지 농업화는 1999년 농업위원회에 이어 2008년 UN에 의해 도시 식량 문제를 줄이고 위기에 더 탄력적인 도시 건설에 적합한 전략으로 인정받았다(FAO, 2012). 도시농업은 운송비를 줄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균형 잡히고 다양한 식단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식량 안보에 기여한다.

### 경제적 기능

도시농업은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생산 회사, 설치 지원, 전문 지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창출이다. 프랑스 도시농업전문협회(l'Association Française d'agriculture Urbain Professionnelle: AFAUP)는 도시농업의 이해 관계자가 모여 2016년에 설립했다. 이들은 국제 식품가격의 변동에 대한 방안을 제공하고 직·간접적인 일 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 환경 기능

도시농업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환경 혜택(생태계 서비스라고도 함)과 함께 도시공간을 다시 식생시키는 수단이다. 또한 운송 시간과 포장 사용을 줄임으로써 식품 및 온실가스 배출의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도시농업은 동식물에 서식지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다. 이는 도시에서 생성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기능

도시농업은 도시 거주자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원예 활동과 신선한 농산물에 대한 접근을 통해 건강이 증진될 수 있으며 가공품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사람들은 도시농업을 통해 자연에 더 가까워지고 원산지 식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 도심 속 생태 농장 사례

#### 파리 20구 생태밭 조성

파리의 베니베디(Veni Verdi)는 환경과 사회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 지역에 정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1901년 설립된 협회다. 최근 교육 네트워크로 분류된 파리 20구의 Pierre-Mendès-France 대학 내 4,500m<sup>2</sup>의 녹지공간을 채소밭으로 바꾸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협회의 도움으로 생명·지구 과학 교사와 자원봉사자를 위한 워크숍을 통해 이 재배 공간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수확물은 사회적 연대 식료품점에서 판매된다.

#### 파리 철도길 옆 농장 조성

La REcyclerie는 Porte de Clignancourt에 위치한 도시 농장이다. 오래된 철도 노선의 가장자리에는 채소밭, 닭장, 식생 지역 및 퇴비화 시스템이 있다.





Pierre-Mendès-France 대학 내의 소형 채소밭



La REcyclerie 레스토랑

출처: <http://www.Larecyclerie.com>

방문은 모든 연령대를 위해 정기적으로 조직되며, 자원봉사자들은 채소밭 유지를 돕는다. 또 농기구 수리 워크숍과 같은 이벤트가 현장에서 조직되기도 한다.

### 프랑스 릴의 도시 벌집

시(市)와 마을 계획 센터는 2015년 10월부터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마티스 공원(le parc Matisse)에 벌을 위한 실제 서식지를 만드는 건축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 ‘현대 벌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공원에서 쉼을 얻으려 찾아온 도시 거주자들과 꿀벌이 동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들에게 동물을 위한 건축에 대해서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벌집은 곤충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현대적 재료로 마감된다. 프로젝트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첫 번째는 2018년 7월에 시작) 다른 벌집이 다양한 도시 공원에 나타날 수 있으며, 도시 한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꿀 생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주민과 기존의 도시 조직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 생태계를 재창조하는 것이다.



릴의 도시 벌집

출처: <https://www.baseland.fr/recherches/les-animaux-dans-la-ville/>



파리 라빌레트(La Vilette) 공원의 이동 목축

출처: <https://www.enlargeyourparis.fr/societe/des-animaux-de-ferme-en-ville-pourquoi-faire>

### 프랑스 파리의 도심농장화 연구

2019년 4월 10일 자치단체인 그랑파리 메트로폴 (La métropole du Grand Paris)의 주최로 메종알 포르(Maisons-Alfort)에 있는 수의학학교(École Nationale Vétérinaire d'Alfort: ENVA)에서 개최된 파리농업회의에서 사육사이자 국가농업연구소 (Institut National de la Recherche Agronomique: INRAE) 연구원인 조셀린 포르세(Jocelyne Porcher)는 센생드니 전역을 방목화하는 도심농장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도심에서 양을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먼저 양이 접하게 될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이나 산길에서 번잡한 도심의 거리로서 식 환경이 변화하고, 한 명의 목자(牧者)와 여러 마리의 양에서 다수의 도시민과 여러 양들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주요한 변화로 꼽았다. 그리고 양들이 주변 환경에 유동적으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목자들이 습득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보았다. 예를 들어 번잡한 환경 가운데서 양들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소음이 심한 곳에서나 불안해하는 어린이나 어른들 사이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치 지하철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처럼 말이다.

연구는 도심 속 동물의 활용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데,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잔디 깎는 기계 대신으로 양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다. 다만 기계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방목 작업 그리고 무엇보다 도심에서 인간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브리(Ivry) 지역의 이동목축

출처: <https://www.enlargeyourparis.fr/societe/des-animaux-de-ferme-en-ville-pourquoi-faire>

## 마치며

도시 환경에서 동식물에게 주어진 장소에 대한 질문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필수적이다. 도시에 동식물에게 최적화된 공간을 설계할 수 있으려면 먼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의문점을 제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프랑스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례에 나온 몇몇 지역에서는 도시 거주민들과 동식물이 공생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공간의 개발로 생물의 다양성이 위협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이상 기후와 코로나19 등으로 도심 내 녹지공간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이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봐야 하는 시기가 됐다.

모든 동식물의 위계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분명 먹이사슬이 존재하며 사람이 그 정점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도시 공간에 동식물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공생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 참고문헌

- 1 Jocelyne Porcher. (2019). Des animaux de ferme en ville, pourquoi faire ?, 10 Avril 2019.
- 2 Porcher J. (2014). Vivre avec les animaux, une utopie pour le 21<sup>ème</sup> siècle. La Découverte.
- 3 Porcher J. (2019). Cause animale, cause du capital. Le Bord de l'eau.
- 4 <https://jocelyneporcher.fr/>
- 5 <https://www.vet-alfort.fr/actualites-de-l-ecole/les-animaux-d-elevage-en-ville-pour-quoi-faire>
- 6 <https://www.enlargeyourparis.fr/societe/des-animaux-de-ferme-en-ville-pourquoi-faire>
- 7 <https://www.enlargeyourparis.fr/societe/pour-un-grand-paris-agricole>
- 8 <http://www2.agroparistech.fr>
- 9 <https://www.larecyclerie.com/ferme-urbaine/>
- 10 <https://lejournalminimal.fr/des-potagers-dans-paris-grace-a-veni-verdi/>

# 폐철도 부지를 중심으로 본 지역 활력거점 개발방안

정현숙

국가철도공단 자산개발처장

## 유휴부지로서 ‘폐철도 부지’의 현황

우리나라 철도는 2004년 철도구조개혁 이후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대용량의 여객과 화물수송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철도에 대한 투자비중이 증가하면서 열차의 고속주행을 위한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라 신설노선이 직선화되어 기존 역사와 선로는 폐역과 폐선로가 된다.

이렇게 발생한 전국의 폐철도부지는 2017년 5월 기준으로 총면적 1,806만 $m^2$ 이었으나 불과 5년 후인 2021년 현재 2,917만 $m^2$ 에 이르고 있다. 폐철도부지 중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약 2,045만 $m^2$ 이며, 용도는 주로 농경지(20.2%), 공원(14%), 자전거도로(13.9%), 레일바이크(7.5%)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폐철도부지는 대체로 좁고 긴 세장형으로 부지의 특성상 매각과 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무단 경작, 무단 투기, 무단 점용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철도 유휴부지의 종류 및 활용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철도 시설물의 보전가치·특성·활용여건을 고려하여 ▲활용부지 ▲보전부지 ▲기타부지로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활용부지는 주변 입지 및 여건을 바탕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지로, 국가 차원에서 개발계획이 없을 경우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 보전부지는 문화 및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철도시설물로서 기존 형태의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마지막으로 기타부지는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은 부

지역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된 유희부지는 아래와 같이 유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고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활용방향을 설정한다.

유희부지 유형화 분류기준

구분	주요 내용
활용	· 객관적 기준에 따라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지 · 도입되는 기능에 맞게 시설 및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보전	·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폐역사, 폐교량, 페터널 등 · 외관을 보전하면서 기능적으로 활용
기타	· 객관적 기준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지 · 장기간 활용수요가 없는 부지는 수요자에게 매각

출처: 국토교통부. (2018). 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

### 폐철도부지 활용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폐철도부지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개발은 명확한 기준과 연간 기본계획을 담은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한다. 국유재산의 정책방향은 재정수요와 경제성장 등 그 당시의 정책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2011년 이후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 개발·활용’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고, 최근에는 ‘공익실현 및 사회적 가치 제고까지 고려한 개발·활용’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공단은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될 수 있는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전국에 산재한 폐철도부지 중 도심지에 위치한 부지는 풍부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된 도심지에서 확보하기 힘들었던 가용지로, 이를 활용하여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발전 및 철도자산 가치 향상을 위하여 폐철도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먼저 분석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부지 성격에 따라 활용방식을 달리하여 배후 시장 또는 유동인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관광시설과 복합상업시설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잠재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편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가치의 증대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대상지의 발굴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을 추진한다.

### 폐철도부지 활용 개발사업의 추진 경과

우리나라에서는 폐철도부지를 레일바이크, 자전거도로, 태양광사업, 공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히 증가한 폐철도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에 대한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 폐철도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 중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옛 동해남부선 철도시설 개발사업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해운대 블루라인파크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건설로 인하여 발생한 폐철도부지 가운데 수려한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미포~청사포~송정 간 4.8km를 개발한 것으로, 해변열차와 스카й캡슐을 운행하는 해운대의 대표적 관광시설이 되었다. 옛 동해남부선 철도시설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되어 광복 이후에도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나, 지형적 제약으로 인하여 복선전철화에 무리가 있어 결국 동해남부선 신설에 따라 2013년 폐선로가 된 이후

##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전경



청사포 정거장



달맞이 터널

출처: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홈페이지

민간투자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10월 준공 및 영업을 개시하였다. 미포 정거장에서 출발하여 달맞이 터널, 청사포 정거장, 다릿돌 전망대, 구덕포 정거장을 지나 송정 정거장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동해남부선 옛 철길을 따라 조성되었다.

특히 2013년 부산시와 공단 간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NGO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라운드테이블을 거쳐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을 개시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해운대의 해안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해변열차와 스카이크랩 등 체험형 관광시설을 갖춘 해운대 블루라인파크는 부산시가 조성한 산책로 및 친환경

## 강촌레일파크 전경



김유정 송강장



강촌 레일바이크

출처: 강촌레일파크 홈페이지

경생태공원인 그린레일웨이와 연계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2020년 부산시민이 뽑은 부산 10대 히트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 옛 경춘선 철도시설 개발사업 (강촌레일파크)

강촌레일파크는 2010년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발생한 폐철도부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레일바이크 및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테마파크이다.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옛 김유정역부터 경기도 가평군 읍내리에 이르는 김유정~강촌역(8.2km), 경강~백양리역(3.5km), 경강~가평군 읍내리(4.2km) 등 모



두 3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강촌 레일바이크는 다양한 테마가 있는 터널들을 통과하며 북한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춘천시가 보유한 다양한 레포츠 활동지, 영화·드라마 촬영지, 지역축제 등 관광자원은 물론 수도권 지역과의 접근성이 강점으로 더해져 지속적으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강원권의 대표 관광명소로 탈바꿈하였다.

### 옛 영동선 철도시설 개발사업 (하이원추추파크)

하이원추추파크는 석탄사업 사양화로 낙후된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국내 최초로 조성된 철도 테마형 리조트 사업이다. 2011년 영동선 도계~동백산 철도시설사업으로 국내 유일의 스위치백 구간(태백시 통리역~삼척시 도계역 인근 16.5km)이 폐철도부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이를 역사 자원으로 보존하고, 폐광지역이라는 특수한 지역문화 요소와 결합하여 숙박시설과 스위치백 트레인, 관광열차, 레일바이크 등 체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였다. 특히 태백시의 오로라파크와 삼척시의 미인폭포 등 인근 지자체의 주요 관광지와도 연계되어 탄광지역의 명실상부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였다.

#### 현재 추진 중인 폐철도부지 개발사업 현황

현재 운영 중인 3개 사업 외에도 지난해 12월 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선되는 중앙선 폐선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단양군, 안동시, 원주시, 경주시 등 관계 지자체와 상호협력을 통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20년 12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사

업 운행선 변경에 따라 발생한 단양군의 옛 단성역~죽령역 구간 폐철도부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사업주관자 공모와 올해 3월 말 사업추진협약 체결을 거쳐 현재 출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주요 시설로는 풍경열차, 레일바이크 등 관광진흥시설과 지역주민을 위한 농산물판매장 및 청년창업몰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단양군의 새로운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0년 12월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발생한 옛 원주역과 옛 안동역은 역 주변의 도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지난해 타당성조사를 거쳐 현재 공단과 지자체가 함께 방향성을 그려 나가고 있는 단계이다. 보다

#### 하이원추추파크 전경



숙박시설



스위치백트레인  
출처: 하이원추추파크 홈페이지



단양군 개발 조감도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협업 도모를 위해 공단은 원주시(2019. 11.), 안동시(2021. 1.)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올 연말에 폐선 예정인 경주시 구간은 시민과 민간 사업자의 다양한 개발 구상 아이디어를 받아보고자 현재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이 사업 초기부터 이해관계자 간의 참여·소통·협업을 통한 개발 추진이 지역주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지역의 또 다른 활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폐철도부지 활용 개발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공단은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인 소통과 발 빠른 대응으로 발굴하고 사업 계획 수립단계부터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노력 등을 통해 국민체감형·맞춤형 편의시설과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그 결과, 쇠퇴하던 구도심이 지역명소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며,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편의시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는 등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폐철도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국

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개발이익은 선형 및 노후시설 개량 등 철도사업에 재투자하여 공단의 부채 감축 등 경영성과 확보와 국가재정 건전성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폐철도부지 활용 개발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거점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참고문헌

- 1 윤주, 문대섭. (2016). 철도 폐선부지 활용지침에 따른 유휴공간 활용. 한국철도학회.
- 2 김민경. (2017). 철도폐선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평가기준 개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3 김주희. (2019).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한 선형공원의 공간 매력특성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 4 국토교통부. (2018).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 5 기획재정부. (2021). 국유재산 종합계획.
- 6 국가철도공단. (2021). 2021년도 철도 유휴부지 관리계획(안).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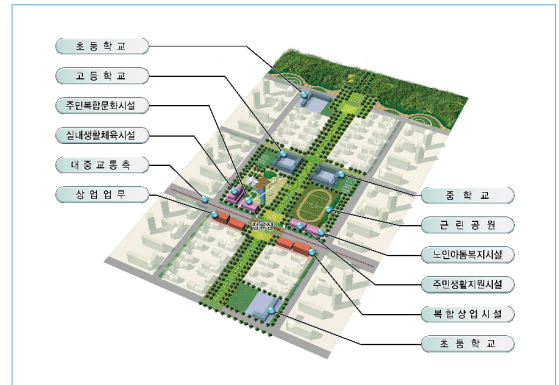
# 통합설계 + 통합시공으로 만드는 공공시설 복합단지

## 안교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관

## 공동체 복원을 위한 공공시설 복합단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에서 직접 건설하는 도시로, 도시 구상 단계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우수한 도시계획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그중 '공공시설 복합화'는 생활권 중심에 학교(유·초·중·고)와 공원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주민센터, 도서관 및 체육·문화시설 등으로 구성) 등 공공시설을 복합화한 것으로, 행복도시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건설기본계획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22개 생활권(동)은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학교·공원 등 생활SOC를 복합화한 공공시설 복합단지(이하 복합단지)를 조성해 오고 있다.



공공시설 복합단지 개념도(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



공공시설을 복합화한 토지이용계획(소담동)





복합단지 내 학교와 공원 간 옹벽 및 울타리 설치



시설물 간 단절 및 연계성 부족

### 행복도시 건설 초기 공공시설 복합단지

행복도시 초기 공공시설 복합화는 공공시설을 한곳에 모으는 물리적 복합단지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주체가 제각각으로 유·초·중·고교는 세종시교육청(이하 교육청), 공원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서 조성함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인접 시설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부지 간 단차가 발생하여 옹벽·울타리가 설치되고, 이로 인해 경관이 훼손되고 동선이 단절되었다. 조성 주체별로 설계와 시공을 진행하다 보니 건축

물의 형태와 입면, 재료의 부조화가 발생한 것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 공공시설 복합단지 통합설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청은 복합단지 통합설계를 추진하였다. 복합단지 통합설계는 총괄건축가(Master Architect)를 선정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시설물 간 연계성을 높여 조화로운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행복청은 2016년 교육청·LH·세종시 등 관계 기관과 ‘6-4 생활권(해밀동) 복합단지 통합설계 협약’을 체결한 후 총괄건축가를 선정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이를 기본으로 각 기관에서 실시설계를 마친 후 공사를 시행하였다. 2021년 5월 말 기준 6-4 생활권 복합단지에는 유·초·중·고교가 개교하였으며, 공원과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행복도시에서 처음으로 통합설계 방식으로 추진한 6-4 생활권 복합단지는 건축디자인이 우수하고, 시설물 간 연계성이 높아 조화로운 단지로 조성



6-4 생활권 복합단지 조성현황(2021년 4월 기준)



6-4 생활권 복합단지 토지이용계획



6-4 생활권 복합단지 기본설계 조감도

되었다. 특히 기존 생활권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학교 건립을 시도하였다. 공원 내에 학교를 배치하고, 공원의 운동장을 중·고교 학생과 지역주민이 시간대를 나눠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신 학교 내 운동장 설치 공간에 저층(1~3층) 건물을 다양하

게 분산 배치하고 학교 곳곳에 외부 공간(마당)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도시와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지형적 단차(약 10m)를 활용한 건축계획, 자연스러운 경사면과 계단을 통한 동선의 원활한 연



낮은 담장(0.5m)



원활한 동선 연결과 경사를 이용한 운동장의 계단 스탠드



결 등 시설물 간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학교 담장 높이를 1.2m에서 0.5m로 낮춰 시각적·물리적 공간 분리를 최소화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6-4 생활권 복합단지는 최근에 정부(생활SOC추진단,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학교+공원+생활SOC’의 모범 사례로 언급되었으며, 실제 사용하는 학생과 주민들로부터도 “공원 속에 위치한 열린 학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외부공간(마당, 공원)에 만족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공공시설 복합단지 통합설계에서 통합설계+통합시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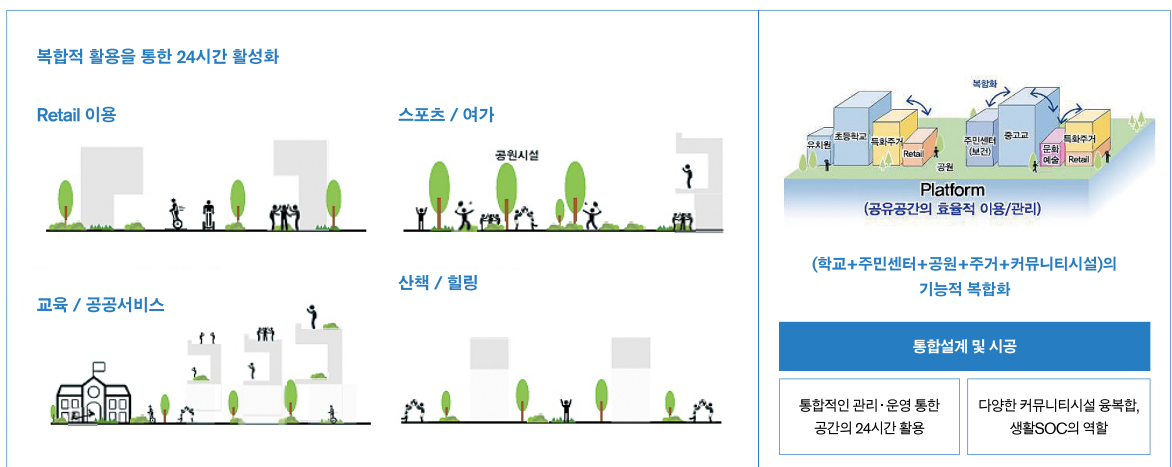
6-4 생활권 복합단지 통합설계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새로운 방식이었으나 일부 개선사항이 있었다. 공공시설로만 이루어져 야간시간대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었고, 총괄건축가의 역할이 당선작 선정까지로 한정되어 복합단지 준공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 코디네이터가 부재하였다. 또 여전히 조성 주체별로 개별 시공되면서 공사 간 간섭으로 준공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등이 발생하였다.



5-2 생활권 공공시설 복합단지 토지이용계획

행복청은 지난 2020년 말에 계획수립을 마친 5-2 생활권 복합단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한 단계 진화한 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2 생활권 복합단지는 기존 복합단지(학교+공원+복합커뮤니티센터)의 기능에 특화주거·

\* 5-2 생활권 복합단지는 유·초·중(교육청)+복합커뮤니티센터.경찰지구대.119안전센터.우체국(행복청)+문화공원(LH)+특화주거 복합단지(LH, 4개 블록)+커뮤니티 도로(LH) 등을 구성하며, 면적은 16만 9,299㎡에 이른다.



5-2 생활권 공공시설 복합단지 개념도

상가·문화시설 등을 추가하여 공동화 현상 없이 24시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시설물 간 공유·복합화를 유도하며, 소셜 믹스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공동주택과 다양한 돌봄 및 세대 교류가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총괄건축가는 마스터플랜 수립, 설계공모 주관, 실시설계 자문 응대, 공사 시 기관 간 이견 조정 등 5-2 생활권 복합단지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총괄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시설물 간 공사간섭, 공사기간 지연을 최소화하고 건축품질 향상을 위해 통합설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합시공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통합시공이란 개별시설물 건립 주체 간 협약을 맺어 한 기관에 건립예산을 위탁하고, 위탁받은 1개 기관(LH)이 단일 사업으로 발주하여 하나의 사업자가 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개별시설물 설계와 운영 노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건립 주체도 설계 및 공사 시 공동 감독으로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지난 4월 5-2 생활권 복합단지의 통합시공 추진을 위해 교육청·LH·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5-2 생활권 복합단지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총괄건축가를 선정하였고, 2022년 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2022년 3월 설계공모를 거쳐 2022년 하반기에 당선작을 선정하여 2024년 공사에 들어가 2026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 중이다.

5-2 생활권 복합단지 통합시공을 위한 첫걸음을 이제 막 내디뎠다. 설계 공사의 통합 발주 방안과 사업비 분담 등을 검토하고, 4개 기관이 동의하는 구체적인 통합시공 협약서를 내년 초까지 체결해야 하는 등 복합단지 통합개발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청은 5-2 생활권 복합단지를 통해 학생과 주민 모두가 조화롭게 사용

할 수 있는 소통과 공유의 공간을 만들면서, 우수한 건축물뿐 아니라 건축 프로세스 개선을 바탕으로 제3기 신도시 등 국내 신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 스웨덴, 1분 도시 향한 'Street Moves' 실험

<https://arkdes.se/arkdes-play/nu-flyttar-streetmoves-fran-stockholm/>

<https://www.vinnova.se/en/news/2021/03/the-street-as-a-meeting-place-instead-of-a-parking-lot/>

<https://www.bloomberg.com/news/features/2021-01-05/a-tiny-twist-on-street-design-the-one-minute-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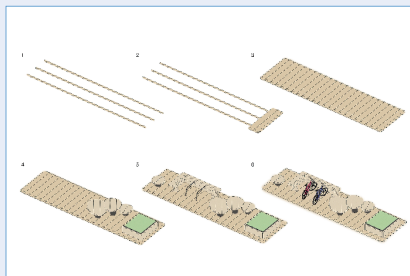
스웨덴이 '1분 도시'를 목표로 집 앞 거리를 커뮤니티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편해 나가는 시도를 하고 있다. 스웨덴 혁신청(Vinnova)과 스웨덴 국립건축·디자인센터(ArkDes)가 진행하는 'Street Moves' 프로젝트는 거리에서 이웃과 만남, 운동 등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리를 활기차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고자 한다.

이때 디자인 회사인 룬드버그디자인(Lundberg Design)과 함께 개발한 목재 가구 키트가 활용되는데, 이 목재 가구 키트는 표준 주차공간 크기에 맞추어 내구성 강한 소나무로 설계되었다. 주민들은 워크숍 등을 통해 각 지역의 디자인 방향을 도출하고, 목재 가구 키트를 조합하고 활용해 원하는 거리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목재 가구 키트에는 벤치 등 좌석, 놀이공간과 운동시설, 텃밭, 자전거와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거치대, 전기차 충전소 등 필요한 시설을 마치 레고(Lego)처럼 부착할 수 있다.

스웨덴 혁신청은 예테보리(Göteborg), 헬싱보리(Helsingborg), 스톡홀름(Stockholm)의 거리에서 'Street Moves'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으며,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70% 이상이 거리의 변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단 10%만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하였다.

스웨덴 혁신청의 전략디자인 디렉터 댄 힐(Dan Hill)은 블룸버그(Bloomberg)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의 Street Moves는 파리의 15분 도시, 바르셀로나 슈퍼블록과 비교해 훨씬 작은 단일 거리, 현관문 바로 앞의 공간에 주목하고 있다"라면서 "거리와 같은 일상적인 인프라야말로 대중과 소통하고, 새로운 것을 제안하며 제공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라고 설명하였다.

스웨덴은 2030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의 모든 거리를 이러한 아이디어 아래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재 가구 키트 활용 예시

출처: <https://pressrum.arkdes.se/media/121137/byggsatsen-systemet-step-for-stepjpg>



Street Moves를 통한 거리공간 활성화 계획

출처: <https://pressrum.arkdes.se/media/150485/street-moves-cred-utopia-arkitekter-utopia-architectspng>



Street Moves 적용 예시

출처: <https://pressrum.arkdes.se/media/121129/exempelbild-gotgatan-byggsats-p-plats-med-gronskajpg>

## 뉴사우스웨일스, 공공공간 품질 구축 위한 평가도구 및 가이드 제안

<https://www.planning.nsw.gov.au/News/2021/Building-quality-into-NSW-public-spaces>

[https://www.dpie.nsw.gov.au/\\_data/assets/pdf\\_file/0007/357505/final-evaluation-tool-digital-english-march-2021.pdf](https://www.dpie.nsw.gov.au/_data/assets/pdf_file/0007/357505/final-evaluation-tool-digital-english-march-2021.pdf)

[https://www.dpie.nsw.gov.au/\\_data/assets/pdf\\_file/0008/357506/final-great-public-spaces-guide-english-march-2021.pdf](https://www.dpie.nsw.gov.au/_data/assets/pdf_file/0008/357506/final-great-public-spaces-guide-english-march-2021.pdf)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지역 사회의 공공공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도구 및 가이드를 제공한다. 주정부가 마련한 평가도구 ‘Evaluation Tool for Public Space and Public Life’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6개 위원회와의 협업을 거쳐 개발 및 시험을 마쳤으며 Gehl, PlacemakingX, Project for Public Spaces 등 공공공간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 4페이지 분량의 평가도구는 네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영어·아랍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공된다.

### 공공공간 품질 평가 기준

거기에 갈 수 있을까요? Am I able to get there?	함께 놀고 참여할 수 있을까요? Am I able to play and participate?
머물 수 있을까요? Am I able to stay?	(사회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Am I able to connect?

이를 통해 공원과 도서관·운동장·거리 등 공공공간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평가 결과를 문서화하여 주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지역사회가 공공공간 활성화를 위한 잠재적인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Great Public Spaces Guide’는 공공시설과 열린 공간, 거리 등 뛰어난 공공공간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를 소개한다. 각각의 요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공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원주민 문화 등 뉴사우스웨일스의 지역적·문화적 특징을 고려함으로써 공공공간을 위한 통찰과 영감을 제안한다.

### Great Public Spaces의 핵심 요소

장소(Location) 공간의 좌표와 규모	현장(Locale) 물리적 특성
목적(Purpose) 정체성과 특징	장소 애착성(Place attachment) 활동과 의미

한편 뉴사우스웨일스주 기획산업환경부는 2023년까지 공공공간에서 도보 10분 이내 도심 주택 비율을 1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뒷받침하는 평가도구와 가이드를 누구나 손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 시드니, 도시 40% 녹지화하는 'Greening Sydney 2030' 발표

<https://news.cityofsydney.nsw.gov.au/articles/city-sydney-greening-plan>

<https://meetings.cityofsydney.nsw.gov.au/documents/s50798/Attachment%20A%20-%20Draft%20Greening%20Sydney%20Strategy.pdf>

시드니시가 공원을 개선하고 옥상·벽면·가로공간 녹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50년까지 도시의 40%를 녹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시의회 승인을 받은 'Greening Sydney 2030' 초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시는 5월 말까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드니 시장은 "도시에서 나무와 녹지는 도로나 광역인터넷망만큼이나 필수적인 인프라"라고 강조하면서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녹지 조성을 통해 지상 온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옥상녹화, 벽면녹화, 녹색골목 개발

이번 계획에는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를 더욱 활발히 추진하고, 콘크리트 차로와 좁은 골목의 녹지 개발을 위해 혁신적인 방안과 디자인을 찾는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시는 계획규제를 점진적으로 수정해 신규 개발 시 옥상녹화를 더 많이 추진하도록 하고,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도 유도할 예정이다.

### 공평한 접근을 고려한 녹지 배분

계획에서는 삶의 질과 녹지의 상관성이 매우 크며, 이를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거리·공원·건물을 분석해 도시 녹지 분포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한 지역에 녹지를 우선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 Green Factor Score 도입

시는 하나의 개발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도시녹화의 양과 질을 정량 평가하는 도구 'Green Factor Score'를 도입한다.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개발 유형과 위치 등에 따라 필요한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며, 관련 계획규제에 이러한 사항이 반영된다.

### Greening Sydney Fund 설립

시는 'Greening Sydney Fund'를 설립해 개발행위 등에서 불가피하게 벌목을 행할 때 보상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특히 사유지 녹지화를 위해 쓰이게 되는데, 주민 식목과 옥상녹화 사업이나 이를 지원하는 보조금 형태로 활용하게 된다.



'Greening Sydney 2030'의 주거지 녹지 확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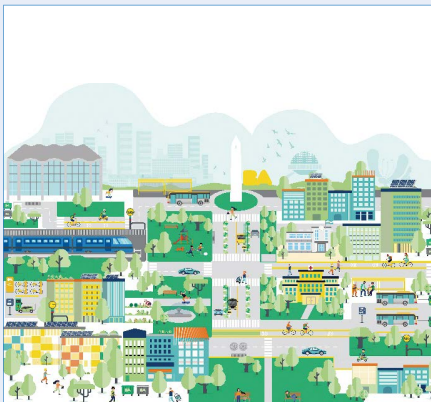
출처: 시드니시 홈페이지. <https://news.cityofsydney.nsw.gov.au/articles/city-sydney-greening-plan>



## 부에노스아이레스, ‘Climate Action Plan 2050’에서 탄소배출량 80% 감소 목표

[https://www.buenosaires.gob.ar/sites/gcaba/files/pac\\_resumen\\_ejecutivo\\_eng\\_0.pdf](https://www.buenosaires.gob.ar/sites/gcaba/files/pac_resumen_ejecutivo_eng_0.pdf)

<https://cities-today.com/how-buenos-aires-plans-to-halve-emissions-by-2030/>



### Climate Action Plan 2050 비전

출처: City of Buenos Aires. (2021). Climate Action Plan 2050(Executive Summary). [https://www.buenosaires.gob.ar/sites/gcaba/files/pac\\_resumen\\_ejecutivo\\_eng\\_0.pdf](https://www.buenosaires.gob.ar/sites/gcaba/files/pac_resumen_ejecutivo_eng_0.pdf)(검색일: 2021. 6. 4.)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도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담아 ‘Climate Action Plan 2050’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을 통해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3%를 줄이는 데 이어 2050년까지는 84% 줄이고 탄소중립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Climate Action Plan 2050은 ▲공공공간과 녹지 등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갖춘 준비성 있는 도시 ▲휴먼스케일로 계획되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동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도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혁신적인 시스템을 추구하는 저탄소 도시 ▲계획에 따른 편익의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는 포용적인 도시 이상 네 가지를 큰 골자로 하여 24개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시민 4분의 3이 대중교통과 비동력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50년까지 전체 주거용 건물의 80%가 엄격한 에너지 효율 기준에 따라 개조되고, 신축 건물의 70%는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또 2025년까지 10만 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고, 2030년까지 새로운 보행자 구역 15개를 추가 시행하며, 2050년까지는 모든 버스를 무배출 시스템화(zero emission)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주민이 녹지공간까지 평균 400m 거리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조정하고, 도시 내 48개 지역에 커뮤니티 모임과 문화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 거리를 조성하게 된다. 자전거 도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데, 2023년까지 하루 100만 번의 자전거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호라시오 로드리게스 라레타(Horacio Rodriguez Larreta)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은 “이번 계획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뿐 아니라 공공공간 확충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에 두고 휴먼스케일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시의 비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 바르셀로나, '제2회 Green Looftop Competition' 우승 프로젝트 발표

[https://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en/noticia/ten-winning-projects-from-the-second-green-rooftops-competition-announced-2\\_1059485](https://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en/noticia/ten-winning-projects-from-the-second-green-rooftops-competition-announced-2_1059485)

<https://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ca/concurs-cobertes-verdes>

바르셀로나는 옥상 내 녹지 조성을 위한 제2회 Green Looftop Competition을 열었다. 이는 지속가능하며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드는 핵심 요소인 옥상 내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녹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바르셀로나는 2020년 기후비상선언에 발맞춰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옥상 내 녹지공간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옥상 내 녹지공간은 녹지공간뿐 아니라 자급자족하는 도시정원, 재생 에너지와 빗물 회수 등 지속가능한 시스템, 커뮤니티 시설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바르셀로나의 높은 주거 밀도와 녹지 부족 등 도시 문제를 해소하고 대기 질 개선 및 온도 조절 등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2017년 열린 제1회 Green Looftop Competition은 45개의 프로젝트가 지원하였고, 10개 우승 프로젝트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5,500m<sup>2</sup> 규모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였다. 올해는 총 47개의 프로젝트가 지원한 가운데 33개 프로젝트가 2단계에 진출하였고, 이 중 10개의 우승 프로젝트 및 10개의 준우승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 선정 기준

- 건물 내 세대수
- 생물 다양성
- 빗물 회수 및 사용 시스템
- 지속가능한 재료
- 재생에너지(풍력, 태양열 등)
- 경관 개선
- 사회적 혜택(커뮤니티 공간 등)
- 경제성

선정된 프로젝트는 전체 비용의 75%(옥상당 10만 유로 내)를 지원받으며, 준우승한 프로젝트의 경우 기술비용에 해당하는 보조금 1,500유로를 수여한다. 향후 2022년까지 프로젝트를 통해 옥상 개조를 마치면 약 2,055m<sup>2</sup> 규모의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택 362채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제2회 Green Looftop Competition 우승 프로젝트

출처: Ajuntament de Barcelona 홈페이지, [https://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en/noticia/ten-winning-projects-from-the-second-green-rooftops-competition-announced-2\\_1059485](https://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en/noticia/ten-winning-projects-from-the-second-green-rooftops-competition-announced-2_1059485)(검색일: 2021. 5. 28.)

## 뉴욕, 차량 통행은 줄이고 공공공간은 확장하는 'Open Boulevards' 발표

<https://archinect.com/news/article/150264000/new-york-city-unveils-plan-to-convert-roads-into-open-public-spaces>

<https://www1.nyc.gov/html/dot/html/pedestrians/openboulevards.shtml>

<https://www.archdaily.com/962388/new-york-expands-activities-across-the-streetscape-with-open-boulevards-initiative>

<https://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352-21/streets-week-mayor-de-blasio-open-boulevards->

뉴욕시는 여러 블록에 걸쳐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식사와 문화 활동, 예술 공연을 위한 공공공간을 확장하는 'Open Boulevards'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뉴욕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도로를 공용 공간으로 만드는 'Open Streets' 프로그램과 보도 및 도로를 활용한 야외 좌석 배치를 지원하는 'Open Restaurants'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다. 특히 Open Streets 지역은 주차·배달·응급차량 등 필수 서비스 외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도로를 전면 폐쇄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약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뉴욕시장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뉴욕 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브롱스, 브루클린, 맨해튼, 퀸스, 스탠포드 아일랜드 등 5개 자치구의 10개 대로를 활용하여 식사 공간 외에도 문화 활동과 지역 기반 커뮤니티 프로그램, 조경 및 예술 설치물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 창출 효과를 입증한 Open Streets 프로그램은 뉴욕 시의회 의결을 통해 영구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정하며, 프로그램 대상 지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NYC D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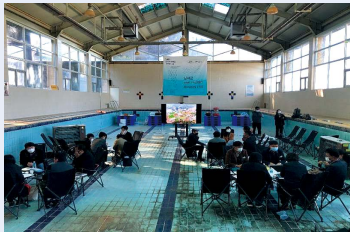
뉴욕 Open Boulevards 로고(상)와 맨해튼에서 진행된 Open Streets 현장(하)

출처: 뉴욕시 홈페이지, <https://www1.nyc.gov/html/dot/html/pedestrians/openboulevards.shtml>(검색일: 2021. 6. 4.)

## 국토교통부, 지역경관 품질 향상 위해 지자체-민간전문가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21. 4. 1.

### 분야별 지원사업 우수 사례(2020)



- 상. **청주 신청사 건립**  
신청사 국제현상설계 추진 등 설계발주방식 개선
- 중. **남해 공공프로젝트 디자인랩**  
노후 스포츠파크 수영장에서 시설활용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 하. **부여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역 공간환경 분석을 통해 정체성을 부여한 차별화된 비전 도출

국토교통부가 4월부터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 수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부터 추진된 사업은 지자체 공간환경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 공공사업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관 종합계획을 토대로 지역경관을 조성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 왔다. 그 결과 지역의 공공건축·개발사업은 디자인 수준 및 사업추진 역량을 크게 개선하였을 뿐 아니라 경관 종합계획을 통해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을 일관된 방향으로 통합 추진 및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집 규모를 기존 11개소에서 15개소로 증원하고 지원 대상도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확대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약 1년간 예산뿐 아니라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과 모니터링, 관련 정보 제공 등 사업 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관리·운영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을 도출하고, 공공건축 운영 매뉴얼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총괄·공공건축가가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부터 설계, 유지 관리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응대 등을 지원하는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 제정 이후 이번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 2021년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선정 결과

구분	지원유형	지원금액	선정지자체
연속	민간전문가 운영	5,000만~6,000만 원/개소	경기 성남시/인천 서구/대구 수성구/경북 구미시·의성군/경남 남해군·창원시 충남 청주시, 부여·홍성군 총 10개소
신규	민간전문가 운영 +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7,500만 원/개소 + 2억 원/개소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서울 서초구/충남 서천군/경남 김해시 총 5개소
	민간전문가 운영	5,500만 원/개소	경기 양주시, 시흥시/전남 순천시 총 3개소
	공간환경전략 계획 수립	지역전체 2억 원/개소 중점구역 1억 3,000만 원/개소	서울 강동구/경기 파주시, 수원시/충북 청주시/충남 당진시, 부여군/경남 남해군 총 7개소

## 국토교통부, 도심 속 위험건축물을 생활 SOC 시설로 정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2021. 4. 15.

###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대상지 현황



상. 경남 진주시 옛 영남백화점  
중. 경북 청도군 공용버스터미널  
하. 경기 여주시 시민회관

국토교통부는 경남 진주, 경북 청도, 경기 여주에 소재한 위험건축물을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 시설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심 속 위험·장기방치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특별공모를 통해 발굴하였으며, 선정된 세 곳에는 도시재생인정사업\* 방식으로 국비 등을 지원한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시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도시재생인정사업 외에 다른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에도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경남 진주시 도시재생사업

30년 동안 방치된 옛 영남백화점 건물(안전등급 D)을 철거하고 진주시 거점 이동복지센터를 조성한다. 옛 영남백화점은 1992년 부도로 영업이 중단된 이후 방치되었고, 2019년 큰 화재로 입은 바 있다. 화재로 깨진 창문의 유리 파편이 지난해 큰 태풍으로 인한 비바람에 주변으로 날아들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진주시는 초등학교 2곳과 청소년 거점복지시설이 위치한 입지의 이점을 살려 영유아 및 어린이 돌봄·놀이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경북 청도군 도시재생사업

1972년 준공된 노후 공용버스터미널(안전등급 D)을 재건축하여 주민 소통공간 및 공용주차장 등 복합기능을 갖춘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한다. 청도역과 청도시장 가운데에 위치한 거점 환승시설인 공용버스터미널은 구도심 쇠퇴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활기를 잃어 가고 있었다. 청도군은 기존 버스 환승 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에 부족한 주민소통공간, 생활체육 시설, 공용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1층은 지역상인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 임대를 보장하는 상생협력상가로 제공하고자 한다.

### 경기 여주시 도시재생사업

1985년에 지어진 시민회관(안전등급 D)을 그린리모델링하고 생활 SOC 시설을 증축하여 시민아울센터로 탈바꿈시킨다. 도시에 위치한 시민회관은 문화·여가생활의 중심기능을 해 왔으나 노후화로 인해 2019년 이후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여주시는 시민회관 전면부 공터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청소년 활동공간을 조성하여 복합 문화·예술의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없이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여 국비를 지원



## 생활공간 속 보행안전 확보 위한 노력

대전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2021. 4. 15.

서울시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021. 4. 19.

제주도 교통정보센터  
2021. 5. 17.

### 대전시,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체크리스트 마련 및 시행

대전시는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체크리스트를 마련,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크리스트는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원칙, 필수 안전시설\*, 위치별 설치기준\*\*을 총 48개 점검 항목으로 정리해 제시하고 각 항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는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시 사업주체에 해당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건축계획 등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주택건설계획승인 신청 시 체크리스트 준수 여부를 교통전문가에게 확인받고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서울시, 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지정

서울시가 노인 보행사고가 빈번한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사고의 40%가 전통시장 근처에서 발생하였으나 이는 「도로교통법」상 구역 지정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시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1월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첫 대상지로는 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4개 전통시장\*\*\*을 선정하여 6월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km로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대비 2배(8만 원)가 부과된다.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되고, 과속단속 CCTV와 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포장 같은 교통안전 시설도 보강된다.

### 제주도,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지속 추진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의 효과가 확인되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보호구역을 벗어난 주 통학구간까지 노란색 노면표시로 지정하여 보·차도를 구분하고 시인성을 높이며 어린이들의 한쪽 보행을 유도한다.

도는 사업 추진 후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2019년 18건 대비 약 39% 감소한 11건에 그쳤고, 특히 사업 완료 구간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에도 총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최근 그중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사업을 마쳤다고 알렸다.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시행 전후  
장전초등학교 통학로 모습

출처: 제주도, (2021),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탁월', 5월 17일 보도자료.

\*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안전보호구역 표지, 조명시설 등

\*\* 진출입로, 교차로 등

\*\*\*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 도봉구 도개비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도시 녹지공간 조성

울산시 녹지공원과  
2021. 4. 5.

인천시 녹지정책과  
2021. 4. 30.

서울시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021. 5. 6.

### 울산시, 도시숲 조성 정책 추진

울산시는 '2050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시숲 조성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전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녹지정책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해 나가면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발생 미세먼지의 도심 유입을 막고 공단 내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시 외곽의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하는 연결 숲을 만들어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는 도시 바람길 숲 ▲학교 주변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학교 숲 ▲어린이보호구역과 연계해 조성하는 자녀안심 그린 숲이 조성될 예정이다.

### 인천시, 석남녹지에 '탄소중립의 숲' 조성

인천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 가운데 온실가스를 정화하는 도시숲 확충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서구 석남녹지에 '탄소 중립의 숲'을 조성할 예정으로, 4월 그 시작을 알리는 식수행사를 진행하였다. 탄소중립의 숲이 조성되는 석남녹지는 총사업비 1,200억 원이 투입된 폭 100m, 길이 2.4km, 총면적 23만 8,503m<sup>2</sup>의 완충녹지로서 지난 2004년부터 4단계에 걸쳐 조성이 추진돼 시민들의 여가 공간이자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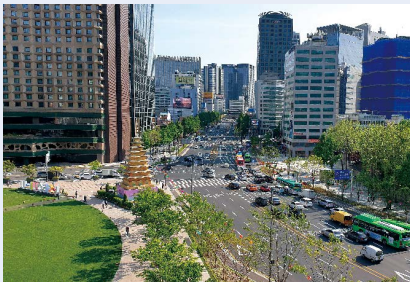
시는 이곳에 2022년까지 도시바람길 확산 숲과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해 녹음을 더하는 등 지역주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숲을 꾸준히 확충할 계획이다.

### 서울시,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완료

서울시가 세종대로 일대의 차로를 줄이고 걷고 싶은 가로숲길로 늘리는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사업을 통해 세종대로 일대는 기존 9~12차로를 7~9차로로 줄이고 보행로 폭을 최대 12m까지 확대하였으며, 전 구간에 자전거 도로가 새로 조성되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지닌 가장 큰 의미는 단순히 차로만 축소할 것을 넘어 수목과 꽃으로 가득한 '도심 가로숲'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녹색 테마숲과 다층식재 녹지대가 조성되었고, 청계광장이나 북창동처럼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곳에는 이동식·고정식 플랜터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숲을 조성하였다.

조성이 완료되면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광화문광장·덕수궁·송례문 등 세종대로의 대표적 명소를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앞으로 사람숲길 도보해설관광 코스를 신설하는 등 관광 콘텐츠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완료 후

출처: 서울시, (2021). 서울시, 1.55km '세종대로 사람숲길' 완성... 가로숲길 녹음 즐기며 단절 없이 걷는다. 5월 6일 보도자료.



# 인도 뭄바이의 도시설계 싱크탱크, UDRI

조시은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 들어가며

Urban Design Research Institute(UDRI)는 뭄바이 관련 도시 연구와 프로젝트를 30년 넘게 해 온 비영리기관이다. UDRI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다양한 층위의 공간들이 얹혀 있는 뭄바이와 같은 복잡한 도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물음을 던지며,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답을 모색해 나가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UDRI의 주요 역할과 기능, 프로젝트들을 알아보고 국내 도시연구에 제공하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기관 소개

UDRI는 1984년 뭄바이에 설립되었다. UDRI의 비전은 뭄바이 광역지역(Mumbai Metropolitan Region)이 균형 발전과 효율적 인프라 조성을 통해 포용적 도시로 성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강의·전시·포럼과 출판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UDRI는 특히 일반 대중과 전문가 그룹 간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매개하여 참여적 계획(participatory planning)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 현안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깊게 관여한다.

UDRI 조직 설립 초기에는 뭄바이 역사지구의 건축문화유산을 조사하고 건축물대장을 대조하여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향후 포트 구역 관리계획(Fort Management Plan)으로 발전하는 등 연구 대상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연구수행의 내용과 활동도 다양해졌다.

## 주요 역할 및 기능

### 프로젝트 및 뭄바이 스튜디오(Mumbai Studio) 운영

UDRI는 도시계획 수립 참여나 역사문화 보존, 디지털 정보 구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매핑(mapping)과 문헌자료 또는 지역조사를 바탕으로 프로포절을 제안하거나 출판물을 발간하여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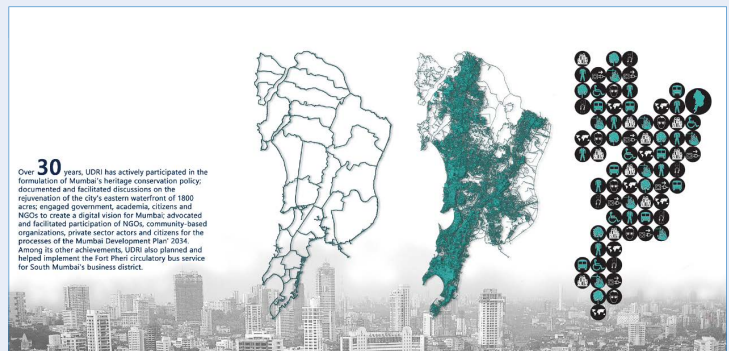
“UDRI는 특히  
일반 대중과 전문가  
그룹 간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매개하여  
참여적 계획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  
현안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깊게 관여한다.”

생성한다. UDRI에서 진행하는 다수의 프로젝트는 뭄바이 스튜디오(Mumbai Studio)와 연계되어 있는데, 뭄바이 스튜디오는 인도의 대학생과 젊은 전문가 그룹이 프로젝트 단위로 협력하여 도시설계, 계획, 도시정책 현안들에 대한 솔루션을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UDRI는 총 15회 이상의 스튜디오를 운영하였으며, 1,500명 이상의 인도 국내외 건축 및 계획학과 학생들이 뭄바이 스튜디오에 참가하였다(UDRI, 2017). UDRI는 미시간 대학(Alfred Taubman College of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University of Michigan), 하버드 대학(Graduate School of Design, Harvard University), MIT(School of Architecture and Planning, MIT), 컬럼비아 대학(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Planning and Preservation, Columbia University) 등 다수의 외국 유수 대학과 협력하여 뭄바이 스튜디오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뭄바이 스튜디오와 연계하여 UDRI는 2008년부터 3년간 젊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연구지원 프로그램(research fellowship programme)을 운영하였다. 연구지원 프로그램의 주제는 슬럼가 이주민 사례 연구, 뭄바이 근린단위 보행환경 개선방안 연구, 그리고 종교시설 건축물 매핑을 통한 장소성 발굴 등 매우 다양하다. 연구지원 프로그램의 결과는 UDRI가 주최한 워크숍을 통해 발표되기도 하였으며, UDRI의 웹사이트를 통해 홍보되었다.

#### 출판 및 홍보(Publications)

UDRI는 1993년부터 주택, 도시 관리, 역사문화 보존 등의 주제와 관련한 단행본·보고서·매뉴얼과 콘퍼런스 자료들을 출판하고 있다. 특히 매년 발간되는 <Mumbai Reader>는 특정한 주제에 국한되기보다는 뭄바이처럼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복잡한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경험되는지를 담고 있다. <Mumbai Reader>에 투고하는 주체 역시 공공정책 입안자를 비롯해 시민 단체·전문가그룹·학계 등 다양하며, 원고의 내용은 뭄바이 도시개발계획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에서부터 여성의 관점에서 경험되는 도시 등과 같은 인문학적



UDRI 프로젝트 소개

출처: <http://www.udri.org/projects/>

“뭄바이 개발계획 2034  
검토 과정에서 UDRI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뭄바이 토지이용  
정보를 일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 공식 요청하여  
정보공개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답론까지 아우른다.\* 이렇듯 UDRI는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알리는 것을 강조하며, 도시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각적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 외에도 UDRI는 인도 현대 건축의 거장인 찰스 코레아(Charles Correa)의 작업을 수집하여 발간물을 제작한 바 있다. 특히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지어지지 않았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하여 출판하는 등 인도의 현대 건축 유산을 보존하고 알리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 공공포럼(Public Forum) 운영

UDRI가 강조하는 다양한 의견의 수렴은 공공포럼(Public Forum) 운영이 기관의 주요 기능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도 재확인된다. UDRI는 대중교통 문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방안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강의와 콘퍼런스 및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총 250회에 걸쳐 공공포럼을 운영하였으며, 누적 참가자가 1만 명에 이른다(UDRI, 2017). 또한 UDRI는 최근 뭄바이의 공공 서비스, 인프라 건설 등과 같은 주요 현안들에 대해 SNS를 비롯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도시문제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도시자료센터(Resource Center) 운영

2003년 이래 운영 중인 도시자료센터는 단행본·보고서·지도·신문기사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공공을 대상으로 개방되어 있다. UDRI는 도시설계 및 계획과 건축뿐 아니라 역사·예술·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자료도 구축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이 보다 쉽게 자료들에 접근하여 도시 이슈들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돕고 있다. 또한 UDRI는 건축가 찰스 코레아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Charles Correa Archives)를 구축하여 코레아의 설계 작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 외에도 뭄바이의 GIS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다.

#### 주요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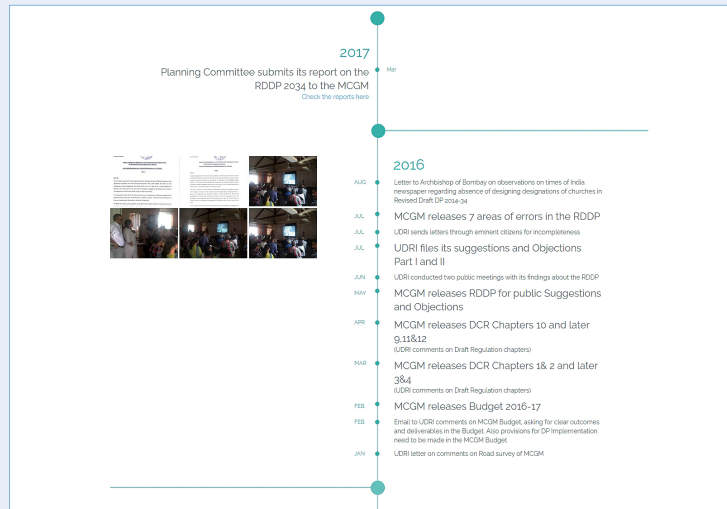
UDRI의 대표적 프로젝트는 도시계획 수립 지원과 관련한 것으로, 뭄바이 개발계획(Mumbai Development Plan) 수립과정 참여와 포트 구역 관리계획(Fort Management Plan) 수립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역사문화 보존 관련 프로젝트와 디지털 정보체계 구축도 UDRI의 주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 도시계획 수립 지원 프로젝트

‘뭄바이 개발계획 2034’는 201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개발계획 내용의 심각한 오류에 대한 이의 제기로 인해 재검토되었으며, UDRI는 개발계획 수정 과정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 UDRI Mumbai Reader. <http://www.udri.org/publication/mumbai-reader-18-2/>

\*\* UDRI Monographs. <http://www.udri.org/publication/buildings-as-id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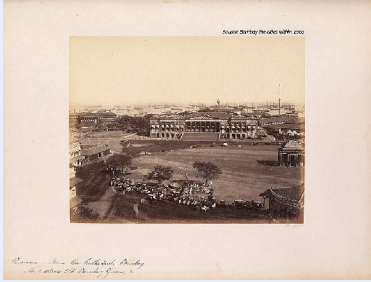
#### UDRI의 뭄바이 개발계획 참여과정 타임라인 일부

출처: <http://www.udri.org/development-timeline/>

뭄바이 개발계획 2034 검토 과정에서 UDRI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뭄바이 토지이용 정보를 일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 공식 요청하여 정보 공개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UDRI는 토지이용지도(Existing Land Use: ELU)를 검토하여 지도상의 오류 3,000여 개를 찾아냈을 뿐 아니라 대규모 슬럼 지역이 토지이용현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발견하였다. UDRI는 개발계획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개발계획 수립을 도모하였고, 궁극적으로 뭄바이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UDRI는 토지이용 검증 가이드(Existing Land Use verification guide)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2010년에는 NGO·시민사회·주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그룹을 형성하고, 2011년에는 뭄바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스튜디오를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등 뭄바이 개발계획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UDRI가 주관한 회의를 통해 24개 주민협의체와 250여 개 NGO 단체 그리고 2,500명 이상의 시민이 개발계획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으며(UDRI, 2017), 이러한 노력은 지방정부(Municipal Corporation of Greater Mumbai: MCGM)가 개발계획의 내용뿐 아니라 예산계획도 수정하는 데 반영되었다. 2018년에 시행된 뭄바이 개발계획 2034는 저소득층 주택 공급 확대, 3,700ha에 달하는 토지 개발, 그리고 친환경구역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The Economic Times(2018).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services/property/-/cstruction/mumbai-gets-new-development-plan-heres-all-you-need-to-know/videoshow/63916681.cms>



'Horniman Circle' 조성 당시 모습(상)

우물 복원 모습(하)

출처: [http://www.udri.org/projects/restoration-pyau-horniman-circle/#iLightbox/gallery\\_image\\_1/4](http://www.udri.org/projects/restoration-pyau-horniman-circle/#iLightbox/gallery_image_1/4)

이와 더불어 UDRI는 뭄바이의 역사지구라 할 수 있는 포트 구역의 관리계획(Fort Management Plan)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UDRI가 1990년대 시작하였던 해당 구역의 건축물 유산 연구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전하였다. UDRI는 문화유산 관리, 공개 공간, 교통, 폐기물 관리 등의 주요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보행자 도로 조성, 주차 관리, 행상인 관련 가이드라인, 폐기물 처리 방안, 사이니지(signage)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UDRI는 포트 구역의 보행환경, 도로 개선, 발라드 단지 관리계획(Ballard Estate Urban Management Plan) 등과 같이 별도의 프로젝트들을 추진하여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 역사문화 보존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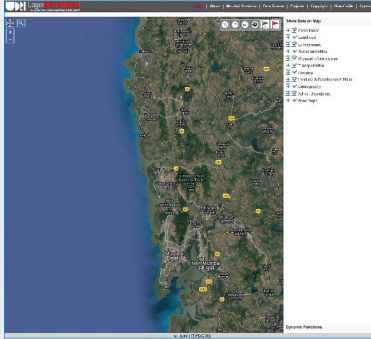
UDRI는 뭄바이의 건축문화유산 보존 정책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 공개 공간, 유적을 발굴하여 보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빅토리아 및 아르 데코 양식과 인도의 건축요소가 혼합된 독특한 양식의 건축물들이 위치한 'Oval Maidan'의 유네스코 등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UDRI는 'Esplanade Mansion'과 'Horniman Circle' 등의 보존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Mahatma Jyotiba Phule' 시장의 보존 및 재개발 연구도 수행하였다. 'Esplanade Mansion'과 'Horniman Circle'은 모두 포트 구역 내 위치한 구조물로, 특히 'Esplanade Mansion'은 영국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가 뭄바이로 운송되어 지어진 인도 최초의 프리패브(prefab) 건축물이다. 1867년에서 1869년에 걸쳐 지어진 'Esplanade Mansion'은 1960년대까지 호텔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시설이 낡아 이용도가 떨어졌는데, UDRI는 해당 건축물의 복원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Horniman Circle'은 포트 구역 내 위치한 18세기 유적으로, 과거에 행인 또는 가축이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만든 우물이었다. 2015년 UDRI는 'Kalaghoda Association'의 커미션을 통해 벤치를 조성하고 1층의 구조물을 지어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복원하였다.

#### 디지털 정보 구축 프로젝트

UDRI는 정부·학계·시민단체·NGO 등과 협력하여 웹 기반 GIS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뭄바이 광역을 위한 디지털 비전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UDRI는 인도 대도시 내 광대역 인터넷 보급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3년 포드재단(Ford Foundation)의 지원을 바탕으로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 방안을 뭄바이 개발계획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UDRI의 활동들을 통해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 정부는 디지털 연결망 구축을 주택 정책 사안 중 하나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UDRI는 "인터넷 보급의 확산을 통해 일반 대중이 도시와 관련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미래에 대해 자율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UDRI는 'LoginMumbai'를 통해 도시 인프라, 커뮤니티 시설, 교통, 주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LoginMumbai’ 인터페이스

출처: <http://www.loginmumbai.org/map.html>

## 나가며

뭄바이는 대도시로서의 다양성과 개발 잠재력을 내포할 뿐 아니라 인도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식민 시대의 유산과 결합되어 다양한 층위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도시이다. 그리고 도시 빈곤의 문제가 깊이 침투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UDRI는 도시라는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의 수렴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UDRI가 진행하는 주요 프로젝트들의 특성들을 보면 참여적 계획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UDRI의 활동이 더욱 의미를 지니는 점은 공공의 의미 있는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도시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 구축을 추구하고, 이를 저소득층 커뮤니티와 같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주체들과 공유하고 소통한다는 사실이다. UDRI가 매년 발간하는 <Mumbai Reader>의 목차에서 드러나듯이 도시는 그곳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든 사람의 공간이며, 또 변모해 가는 장소이다. 그렇기에 UDRI는 뭄바이 시민사회나 지역 기관뿐 아니라 국외 기관들과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도시에 대해 끊임없이 재해석(re-imagine)하고 논의하는 과정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듯하다. 이러한 UDRI의 접근방식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들의 다양성뿐 아니라 도시를 연구하는 방식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https://whc.unesco.org/en/list/1480/>

## 참고문헌

- 1 Urban Design Research Institute[UDRI]. (2017). Projects & Programs. Bombay Studio Resource Centre Public Forum Publications.
- 2 The Economic Times. (2018). Mumbai gets new development plan: Here's all you need to know. 4월 25일 기사.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services/property/-construction/mumbai-gets-new-development-plan-heres-all-you-need-to-know/videoshow/63916681.cms>
- 3 UDRI 홈페이지. <http://www.udri.org/>
- 4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홈페이지. <https://whc.unesco.org/>



건축과 도시공간

—

Vol. 42

Summer 2021

# 장소 탐방

Place Review

# 3

교과과정, 나이대, 신체능력이 서로 다른 학생들을 모두 담아낼 것. 모든 학생이 학교공간을 편히 이용하고, 그 안에서 서로 활발히 소통하며, 충분히 배우고 느낄 수 있을 것. 이를 고민하고 설계에 담아낸 서울서진학교는 특수하기보다, 그저 충분히 학교다운 학교일 것이다.

‘초소’와 ‘책방’,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만남이 새롭다. 50년간 경찰 초소로 사용되던 공간이 관련 주체들의 관심과 노력 덕택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인왕산 자락길 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품은 이 동네 책방은 이제 늘 그 자리에서, 활짝 열려 시민들을 맞이한다.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대학교병원



인공신속광교에세이전



보통의 특수학교

- 서울서진학교

098

자락길 위 동네 책방

- 인왕산 초소책방

114

**보통의 특수학교 - 서울서진학교** | 신축 설계 당시, 학교 이전으로 비워진 공진초등학교 건물을 일부 활용하는 증축도 고려해야 하였다. 기존 건물을 토대로 설계하다 보니 제한 사항도 많았다. 신축 영역의 층고를 기존 건물에 맞춰야 하는 문제도 그중 하나였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공용공간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복도 천장의 일부를 볼트 모양과 보이드(void)로 계획하였다.

**자락길 위 동네 책방 - 인왕산 초소책방** | 인왕산 초소책방 리모델링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증축한 부분의 구조재료인 강구조를 모두 노출하여 기존의 RC 구조와 구분되도록 철골의 구조미를 강조한 점이다. 증축 부분은 모두 H빔과 구조용 각관을 사용하여 시공성과 경량화를 도모하였으며, 벽체는 투명한 유리로 계획하여 가볍게 보이도록 하였다.

# 서울서진학교

## 보통의 특수학교

유종수, 김빈

코어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개요

위치	서울 강서구 양천로55길 22
용도	교육연구시설(특수학교)
대지면적	11,184.5m <sup>2</sup>
건축면적	4,276.78m <sup>2</sup>
연면적	15,188.61m <sup>2</sup>
규모	지상 4층, 지하 1층
높이	15.83m
건폐율	38.24%
용적률	114.58%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구조설계	김앤이구조
설계	유종수, 김빈
설계담당	김현수, 안치원, 이동민
시공	(주)대들보건설
기계·전기설계	(주)하나기연
설계기간	2017. 10.~2018. 3.
시공기간	2018. 8.~2020. 1.
건축주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서진학교



몸이 불편한 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들은 특수학교를 평범하지 않은 공간으로 인식하고는 한다.  
서울서진학교는 특수학교를 ‘특수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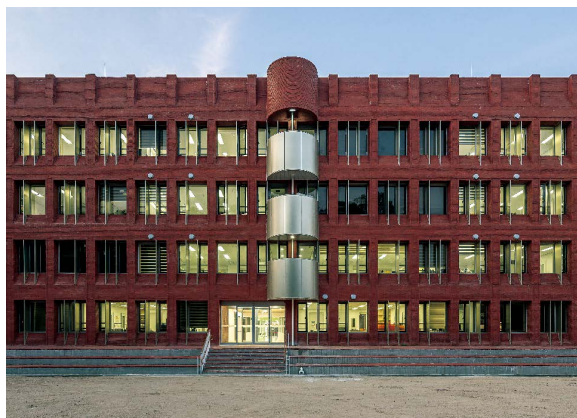


서울서진학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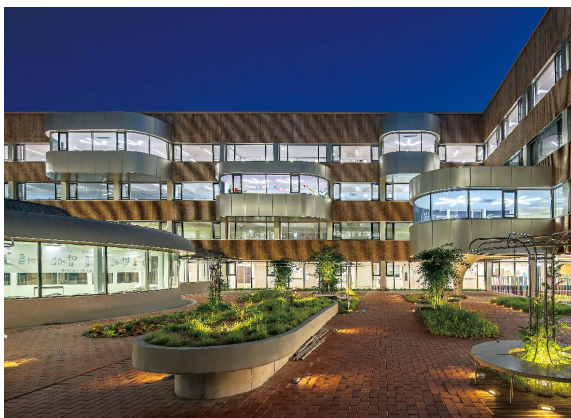








©이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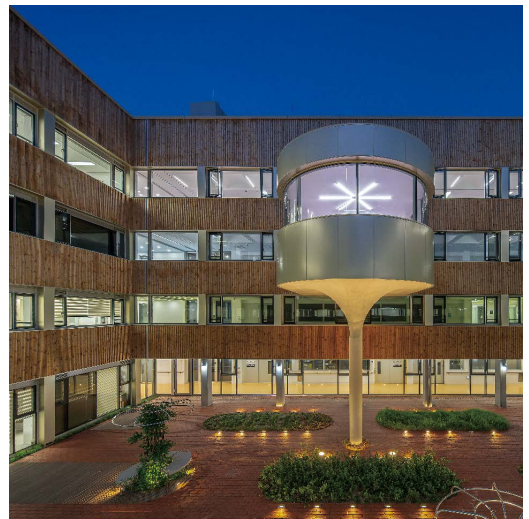


©이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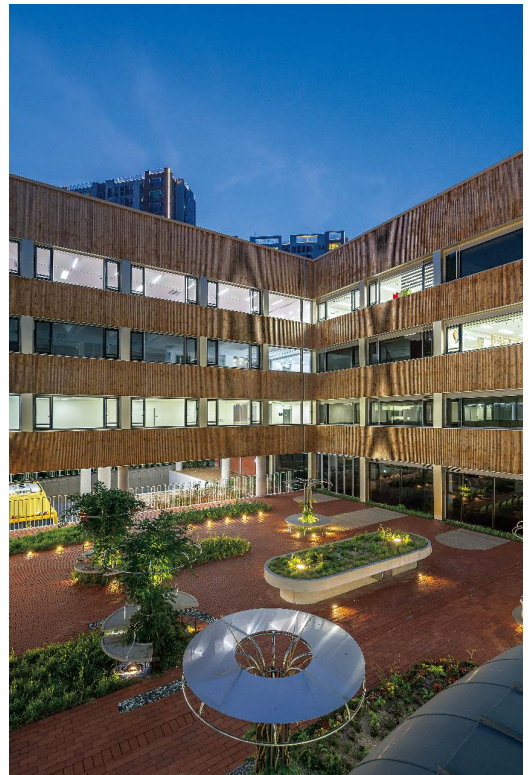
상 운동장과 서울서진학교  
하·좌 발코니처럼 보이는 교실 내 심신안정실  
하·우 중정



©이택수



©이택수



©이택수

- 상 중정에서 보이는 파드(Pod) 공간  
하 다양한 높낮이와 디자인의 중정 구조물





©이텍수



©이텍수

- 상 개방감 있는 복도 설계
- 하 활동 반경이 넓은 학생들을 위해 넓게 설계한 복도





©이택수



©이택수

상 다양한 활동을 담는 복도 파트(Pod) 공간  
하 북카페

서울서진학교는 가운데에 중정을 기준으로  
 ‘ㅁ’자형 구조로 설계하였다. 중정은 교사동과  
 신축 교육시설까지 연결되면서도 외부의 시각으로부터는  
 닫혀있어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선사한다.  
 서울서진학교는 동선부터 교실의 배치까지  
 저마다 성장 속도가 다른 학생들을 고려하여 설계해  
 다양한 나이의 학생들이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태수

운동장에 인접해 위치한 체육관

## 특별하지 않은 특수학교

67.5m<sup>2</sup>는 반세기 동안 교육공간이 만들어지는 데 모듈화된 실의 단위다. 한 반의 학생이 50~60명일 때도, 20~30명일 때도 교실의 크기는 지침에 따라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교육제도는 수차례에 걸친 변화가 이루어져 왔지만, 학교 공간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수많은 학교 공간들이 확일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몸의 불편함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다. 나와 나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이 언제 어디서든 마주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다. 우리는 특수학교를 특별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평범한 교육 공간으로 대하려고 하였다. 특수학교의 건축 이전에 ‘특수하다’는 인식이 지닌 편견을 버려야 할 때다.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인 서울서진학교는 28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곳에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직업교육 전공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저마다 발달장애와 신체 성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에게 편리한 학교를 만들어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학교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발달장애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그들에게 직무 능력과 그에 맞는 체력을 길러주는 장소가 되길 바랐다.

## 신축과 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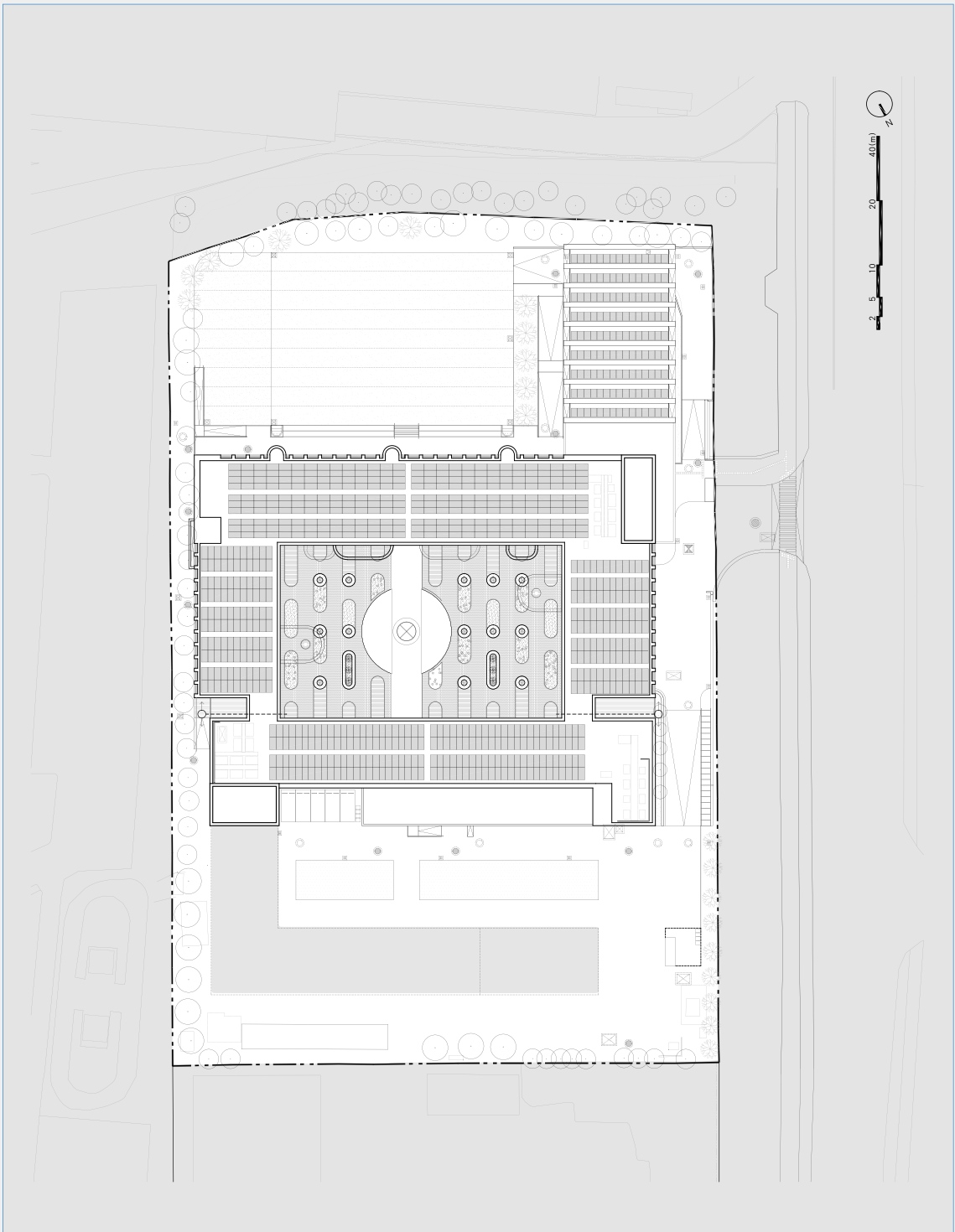
신축 설계 당시, 학교 이전으로 비워진 공진초등학교 건물을 일부 활용하는 증축도 고려해야 하였다. 기존 건물을 토대로 설계하다 보니 제한 사항도 많았다. 기존 학교의 진입을 이용해야 하는 차량 진입부터 층고, 공사비, 규모, 공사기간 등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 특히 특수학교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 예산으로 책정되었다가 설계 이후 부분 증액되어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아쉬운 점이 많았다. 신축 영역의 층고를 기존 건물에 맞춰야 하는 문제도 그중 하나였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공용공간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복도 천장의 일부를 볼트 모양과 보이드(void)로 계획하였다.

00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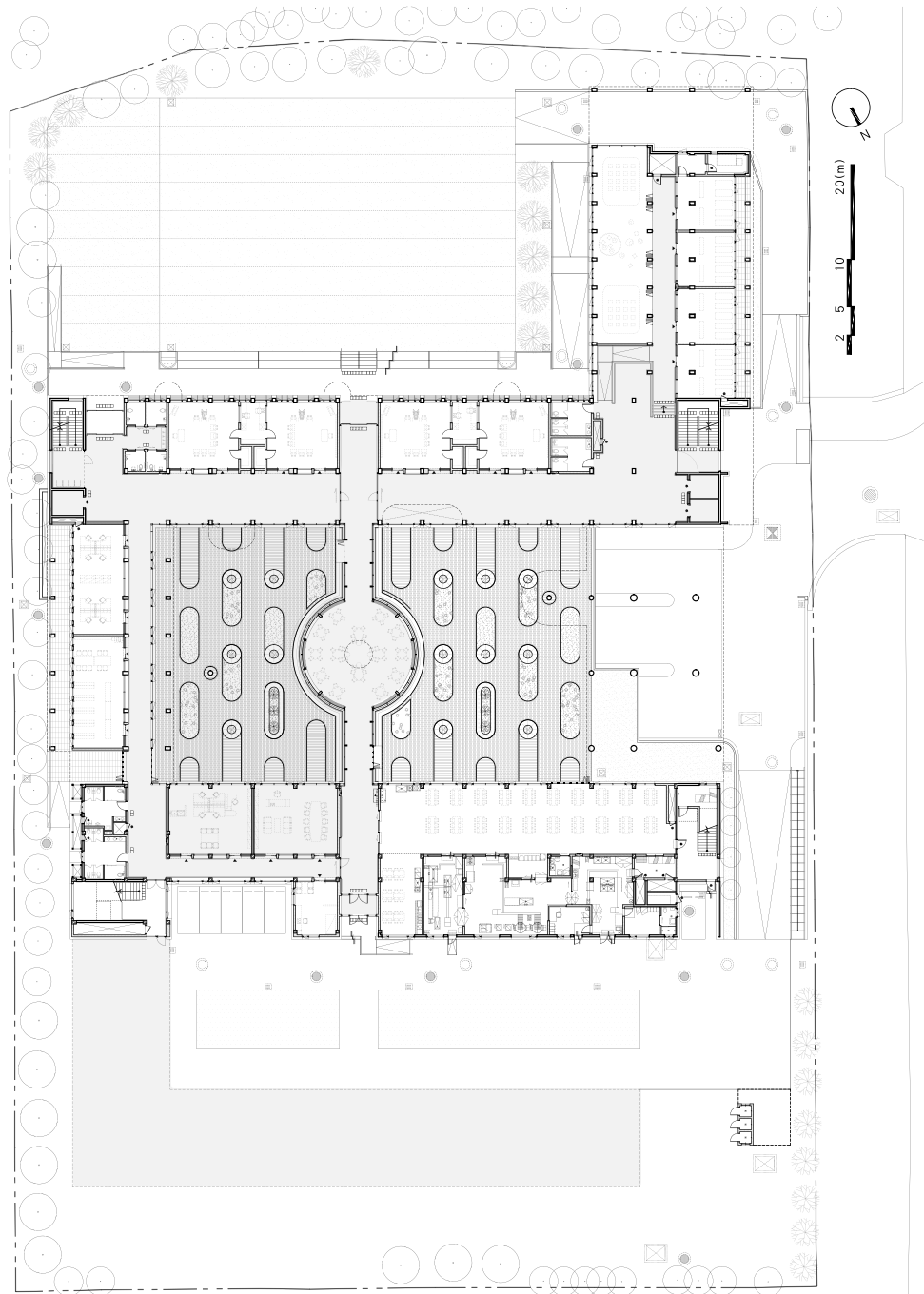


상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서진학교  
하 서울서진학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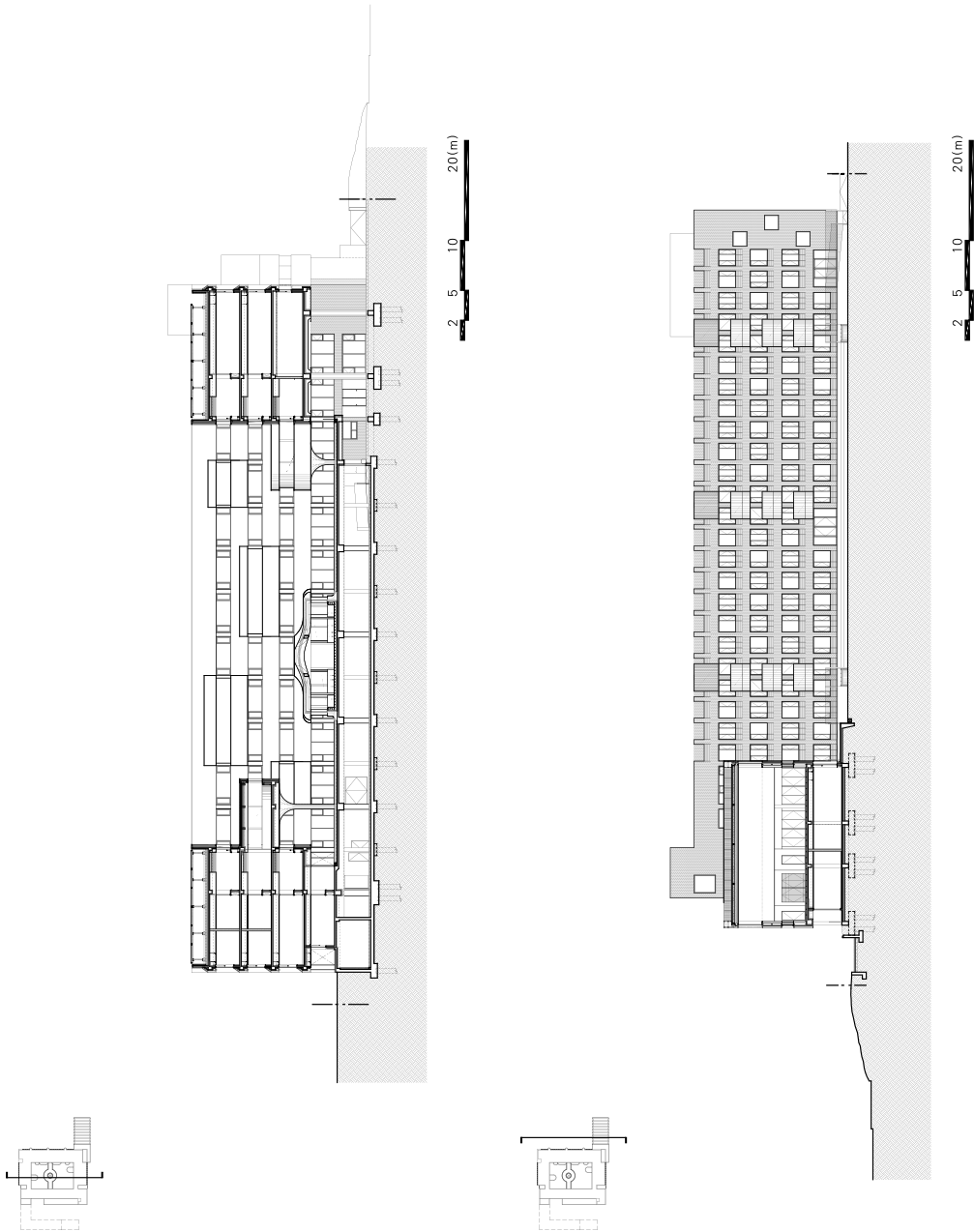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단면도

우리는 오랜 고민 끝에 ‘ㄷ’자형 배치의 학교를 설계하였다. 이러한 배치는 중정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동선을 통해 기존 건물, 증축된 교사동, 신축 교육시설을 연결한다. 중정은 외부의 시각으로부터 닫혀 있어 아늑함을 준다. 이곳에는 여러 구조물과 북카페가 위치하고 있다. 중정에 설치된 구조물은 벤치·음수대·퍼즐러 등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디자인할 때 제각기 다른 학생들의 성장 정도를 염두에 두었다. 북카페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휴식하고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설계하였다.

서울서진학교의 도면을 보면 교실 옆 복도의 너비가 다른 학교의 2배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활동 반경이 넓은 특수학교의 학생들을 고려한 것인데, 이 복도와 중정 사이에는 ‘파드(POD)’라는 공간이 있다. 파드는 층마다 2개씩 계획된 이벤트 공간으로, 우리는 이 공간을 ‘교실의 연장된 영역이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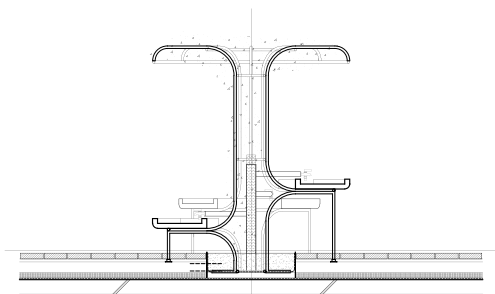
교실에는 교구 보관실 겸 심리안정실을 설계하여 발달장애 학생이 돌발행동을 할 때 이곳에서 심신을 안정시키도록 하였다. 두 교실마다 하나씩 배치된 이 공간은 건물 외관에서 돌출된 반원형 발코니로 보이도록 디자인하였다.

### 사용자 우선의 수평적 프로그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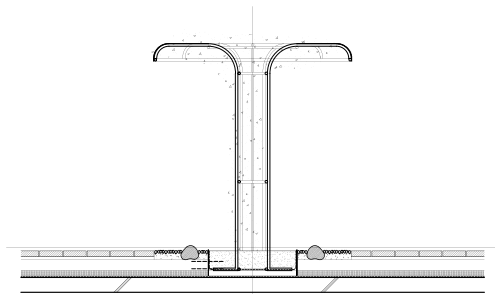
서울서진학교는 초·중·고등학교, 전공과 과정까지 총 30개 학급에 이르는 다양한 나이대의 장애 학생들이 함께 배우며 생활하는 공간이다. 그런 만큼 일반적인 학교의 실 배치와는 다른 전략을 가져가야 하였다. 일반적인 학교라면 시설관리가 용이하도록 유사한 프로그램실들을 근접 배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우리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가까운 곳에 각 학년의 특별실을 두는 제안을 통해 이동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초·중학생이 이용하는 특별실은 초·중학생 교실이 있는 2층과 3층에, 고등학생이 이용하는 특별실은 고등학생 교실이 있는 4층에 계획하였다. 모두가 이용하는 체육관은 운동장을 바라보고 전면의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하여 다양한 학교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사용할 전공과 교실은 1층에 계획하여 학교의 일을 도우면서 동시에 간접적인 사회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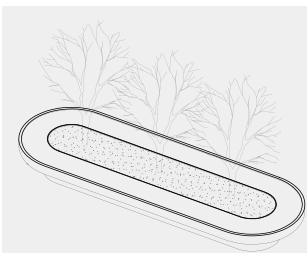
상 발코니처럼 보이는 교실 내 심리안정실  
중 중정  
하 다양한 활동을 담는 복도 파드(Pod)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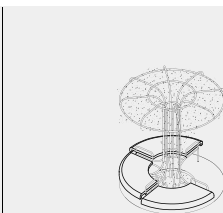
B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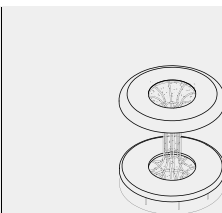
F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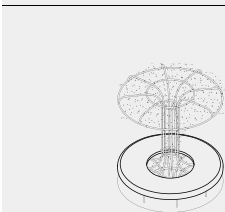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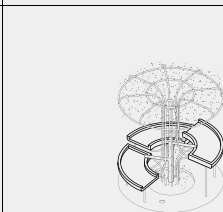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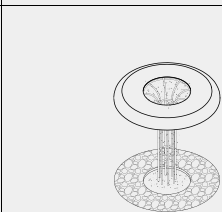
C



D



E



F

중정 구조물 디자인

### 3개의 외부공간

#### 기존 교사동 중정: 마을 교육 공동체 시설을 위한 외부공간

기존 교사동의 ‘ㄷ’자 중앙에는 작은 정원이 있으며, 이를 마을 교육 공동체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 새로운 중정: 학생과 교사를 위한 외부공간

기존 교사동의 일부와 새로 들어선 건물로 인해 만들어지는 ‘ㄱ’자 중정에는 서울서진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 전체(교직원과 학생)가 휴식하고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북카페로 계획하였다. 다른 2개의 외부공간이 1면 또는 2면이 개방된 외부공간이라면, 중정의 정원은 시각적으로는 개방되지만 닫혀 있어 아늑한 정원이다. 또 초·중·고의 다양한 성장기를 지나는 학생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가 다른 벤치·음수대·피걸러 등을 다양한 조경 식재와 함께 계획하였다.

#### 운동장: 활동공간으로서 외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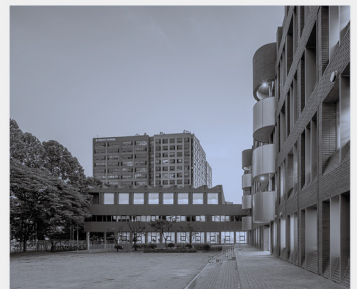
기존 공진초등학교의 운동장이 있던 위치에 신축하는 교사동이 들어서면서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학생들이 외부 체육활동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공간을 마련하였다. 외부 운동장은 실내에 위치한 강당 겸 체육관과 바로 접해 있어 다양한 종류의 운동공간으로 서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육관은 전면 도로에 면하여 소음을 차단하고, 외부의 운동장은 이웃의 주민을 배려하여 주변 아파트 단지의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 단계적 개방으로 지역과 소통하는 교육공간

서울서진학교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출발하여 설계부터 공사까지 수많은 난관을 겪고 개교하였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특수학교를 신설하게 되면서 교육청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 사회 전반의 많은 관심과 우려로 개학이 지연되는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서울서진학교가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 앞으로 이어지는 학교들이 마주할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하길 바란다.

001  
002  
003



- 상 개방감 있는 복도 설계
- 중 활동 반경이 넓은 학생들을 위해 넓게 설계한 복도
- 하 운동장에 인접해 위치한 체육관

# 인왕산 초소책방

## 자락길 위 동네 책방

### 이충기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김진숙

공명건축사사무소 대표

###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산3-1번지 일대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공 관리소)
대지면적	31,980m <sup>2</sup>
건축면적	194,73m <sup>2</sup>
연면적	324,52m <sup>2</sup>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높이	7.57m
건폐율	0.61%
용적률	0.98%
구조	철골구조: 탄소섬유내진보강
시공	(주)고덕종합건설
설계기간	2018. 12. 6.
시공	착공: 2019. 7. 22., 준공: 2020. 5. 3.
공사비	약 11억 원
사업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 초소책방 서측 전경



1968년 무장공비 김신조의 침투 이후 인왕산에는  
청와대 방호를 목적으로 건물이 하나 지어졌다.  
시간이 흘러 목적을 잃은 건물은 철거의 위기에  
놓이기도 하였지만, 책방으로 변신해 지나다니는  
이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 경찰병력이 주둔하며  
보초를 섰기에 이곳의 이름은 초소(哨所).  
이 이름 속에는 지난날의 기억들도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인왕산 초소책방으로 들어가는 길









©김용순



©김용순

상 책방 내부에서 보이는 자연 풍경  
하 남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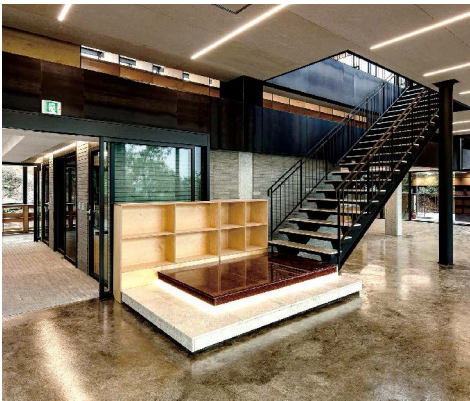
상·좌 새롭게 조성한 외부데크  
 상·우 2층 외부데크에서 바라본 인왕산 초소책방  
 하 전면유리로 개방성을 높인 모습





2층 커뮤니티 공간





상 2층 동측 전경  
하·좌 내부 계단  
하·우 1층 내부 주방



인왕산 초소책방은 기존의 건물을 구조를 살리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구조재료인 강구조를 모두 노출하였다. 이렇게 철골의 구조미를 강조하면서도 벽체를 투명한 유리로 사용하여 가볍게 보이도록 하였다. 기존 건물의 흔적은 외부 조경으로 활용하여 기억과 흔적을 모두 간직한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켰다.



© 인왕산

동측에서 바라본 인왕산 초소책방의 야경

## 청와대 방호용 경찰 건물을 시민에게

인왕산 초소책방의 기반이 된 기존 건물은 1968년 1월 21일 무장공비 김신조의 침투 이후 청와대 방호 목적을 위해 인왕산 자락길에 경찰병력이 주둔하는 용도(인왕CP)로 건축되어 50년간 쓰였으나, 청와대의 인왕산 지역 전면 개방계획에 따라 방호담당 경찰 인력의 축소 및 이전으로 철거가 예정된 건물이었다. 하지만 경찰 건물 주변은 산세가 수려하고 전망이 양호하여 시민들에게 숲속의 새로운 휴식 공간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청와대의 의견에 따라 서울시와 주관기관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서 간의 무상양여협약을 통해 건물 활용이 가능한 여건을 확보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대통령경호처·수도방위사령부·서울지방경찰청 등 청와대의 방호목적 기관과 서울특별시(공원녹지정책과)·종로구(공원녹지과, 건축과)·공공건축가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비공개 방호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제공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9월에서 12월에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도시공간개선단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기획단계를 거쳐 필자(서울시 공공건축가 이충기)에게 설계 재능기부를 요청해 와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다. 2018년 12월에서 2019년 5월까지 약 6개월간의 구조안전진단을 포함한 리모델링 설계 과정을 거쳐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시민들을 위한 인왕산 숲속 새로운 쉼터와 조망의 공간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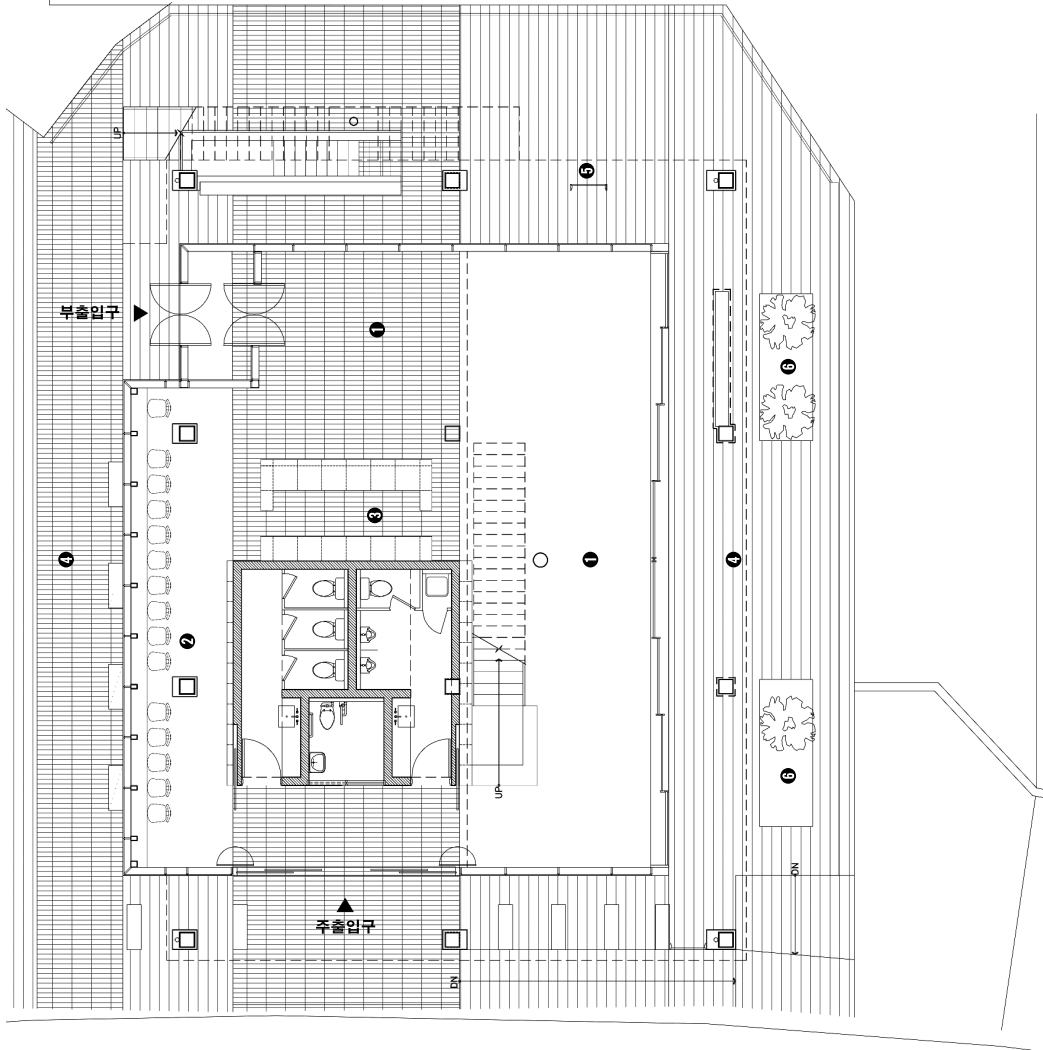
상 인왕산 초소책방 서측 전경  
하 남동측 전경

©이충기



리모델링 전 내외부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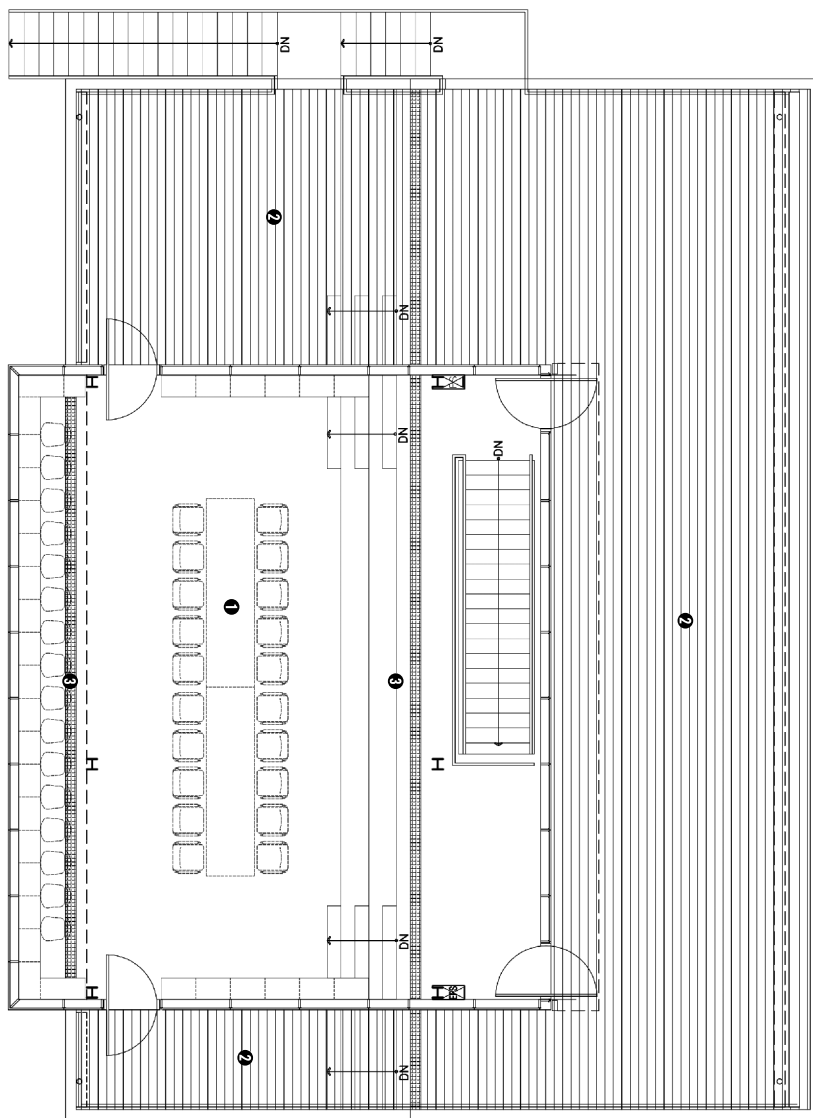
- ❶ 커뮤니티 공간 1
- ❷ 커뮤니티 공간 2
- ❸ 주방
- ❹ 외부데크
- ❺ 기존 철문 활용
- ❻ 기존 수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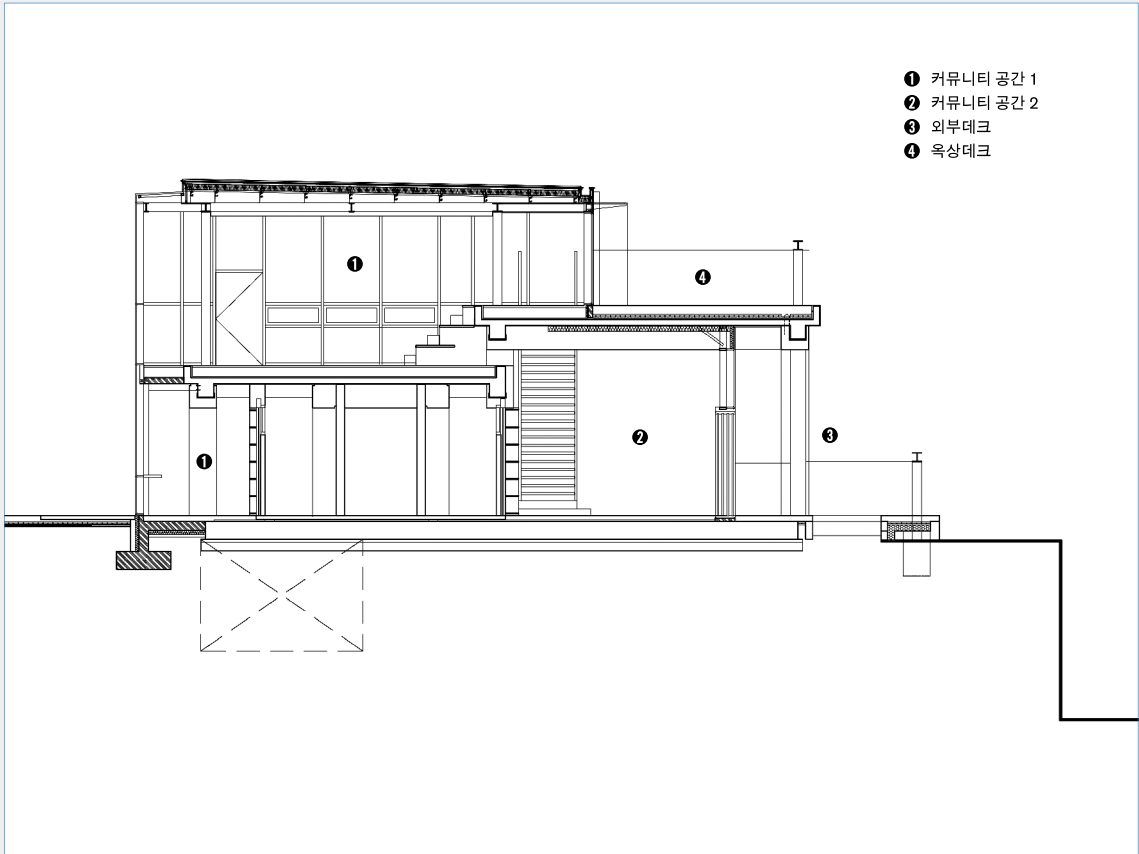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❶ 커뮤니티 공간 1
- ❷ 옥상데크
- ❸ 기존 파라



2층 평면도



종단면도

### 새로운 기능과 공간- 기억과 흔적을 위한 장치

경찰 건물(인왕CP) 증축 및 리모델링은 과거 폐쇄적으로 운영된 경찰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고, 주변의 훼손된 자연경관을 되살리며, 자연과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기존 건물은 1층이지만 2개의 층고를 가진 건물로, 이를 활용하여 낮은 쪽 옥상부분을 2층으로 증축하여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 높은 부분을 전망대로 사용하도록 리모델링하였다.

이와 함께 인왕산스카이웨이를 산책하는 볼특정 공원 이용객들과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개방적 공간을 구성하였고, 특히 인왕산 자락길에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과 양질의 휴게공간을 계획하였

다. 아울러 주변에 조성되었던 기존 콘크리트 등의 인공시설물을 철거하고 훼손되었던 바위와 수목 등의 자연을 복원하였다.

리모델링 설계는 주변 수목과 바위가 이루고 있는 경관이 실내공간으로 흐르도록 유리를 사용하여 외벽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1층에 폭 15.48m에 높이 3.4m의 슬라이딩 도어를 두어 개방 시 내부에서도 자연의 바람과 경관을 느끼도록 하였고, 2층도 2개의 층고를 이용하여 도시경관과 자연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설계하였다.

또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일부는 증축하고 일부는 데크 면적을 넓게 확장하기 위해 기존 벽체보다 후퇴하여 필로티를 만들어 태양과 비를 가릴 수 있는 처마공간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기존 건물의 외벽 시멘트벽돌과 출입문을 일부 보존하여 시선을 차단하거나 벤치로 활용하여 기존 건물에 대한 기억과 흔적의 장치로 계획하였다. 기존 경찰 건물로 운영할 때 사용하던 기름탱크 역시 보존하여 외부 조경요소 및 풍경이 되도록 하였다.

외부는 산책하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휴식하며 경치를 조망토록 친근감 있는 목재 데크로 조성하고 H빔을 이용한 의자를 계획하였으며,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보도와 건축물 출입의 단차가 없도록 설계하였다.

### 증축부의 철골구조와 구조미

기존 건물은 콘크리트 가구식 구조로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외벽은 시멘트벽돌과 플라스틱 판재로 마감된 건물이었다. 이에 리모델링은 외부 벽체와 내부 칸막이벽은 모두 철거하고, 기둥·보·슬래브는 보존하되 탄소섬유로 보강하여 내진 성능을 확보하였으며, 증축 부분은 강구조를 채택하여 설계하였다.

이번 리모델링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증축한 부분의 구조재료인 강구조를 모두 노출하여 기존의 RC 구조와 구분되도록 철골의 구조미를 강조한 점이다. 증축 부분은 모두 H빔과 구조용 각관을 사용하여 시공성과 경량화를 도모하였으며, 벽체는 투명한 유리로 계획하여 가볍게 보이도록 하였다. 2.3m의 낮은 층고와 그로 인한 기계설비와의 간섭, 전면 유리 시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증축 부분의 철골구조와 기존 구조의 내진보강 탄소섬유 보강재를 모두 노출하여 구조미를 강조하였다. 이는 개방감을 높이는 효과로도 작

0204



상 책방 내부에서 보이는 자연 풍경  
중 1층 내부 주방  
하 2층 커뮤니티 공간



상 전면유리로 개방성을 높인 모습  
중 2층 동측 전경  
하 2층 외부데크에서 바라본 초소책방

용하였다. 특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내부와 외부 두 곳에 모두 철골로 설치하였다. 내부 계단은 기존 슬래브를 오픈하고 철골조 계단의 구조미가 드러나도록 대리석 상판을 얹어 디자인하였으며, 천정의 경우 천장재와 H빔 사이를 띄우고 그 사이에 간접조명을 넣어 철골구조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1층 남쪽의 벤치와 2층 데크의 난간 상부를 H빔으로 디자인하여 철골구조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건축 시장의 경우 지금까지는 주로 대형 건축물에서 철골조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신축공급이 거의 끝난 서울시 등 대도시의 경우 향후 소형 건축물의 증축, 리모델링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시공성, 시간 단축, 경량화, 건식·조립식 구조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강구조 사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100m<sup>2</sup>(30평) 규모의 증축이나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향후 소형 건물 리모델링 시장의 강구조 사용 확대에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 auri 소식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130

포럼 및 세미나  
133

연구원 단신  
138

건축공간연구원의 신규 과제를 소개하고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

#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시 과제	감염병 확산 시나리오별 요양병원 시설계획 대응 전략	김꽃송이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연구	권영란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김은희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설계 도입 및 제도화 연구	이종민

## 수시과제

### ① 감염병 확산 시나리오별 요양병원 시설계획 대응 전략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면서 건축적 지원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내감염 예방 및 대응은 운영관리제도(Software)와 시설계획기준(Hardware)을 통해 실현 가능한데, 운영관리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내 감염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감염관리지침이 준수되지 않았을 때에 대비하여 시설계획 측면에서의 지원방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으며, 국외를 중심으로 감염확산 원인 및 시설 특성 파악을 통해 감염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사회적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감염병은 항상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며 감염확산 원인 및 시설현황이 다양하므로, 감염확산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설계획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요양병원 감염관리계획 가이드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내 요양병원의 감염확산 원인 및 시설대응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시설의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원내감염 확산은 대부분 '간병인'으로부터 야기되며, 다중이용시설에 위치한 중소규모의 시설, 15년 이상의 노후도를 가진 요양병원이 감염관리에 취약한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감염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공간격리계획, 밀집도, 종사자(의료진, 간병인 등)-환자 동선 격리'에 주안점을 두고 시설계획이 이뤄져야 하며,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공간 및 원인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한 시설계획요소로 '병실, 층별 전실, 병동, 공용공간, 물리치료실, 공조설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공간별 개선방향은 감염병 확산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평상시'와 '감염 확진자 발생시'로 구분하여 유연한 시설계획으로 제시하되, '기존 시설/신축시설/모든 시설(기존+신축)'에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를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정책적 지원방향으

로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적용단계 개선'과 '기존 요양병원 감염관리계획 개선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결과로 제안한 감염병 확산 시 나리오별 시설계획은 향후 구체화된 건축기준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요양병원 감염관리계획 가이드 개발이 요구된다.

김꽃송이

## ②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연구

역사문화자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6·25와 군부 독재정권, 재난·재해 등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근현대 건축물이 역사문화자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네거티브 헤리티지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대중에게 '철거해야 하는 잔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의 경험'과 '불편한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유산이라는 특징은 해당 유산과 관련 있는 사건 당사자가 동시대에 존재하고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대중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네거티브 헤리티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는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해 기존 의사결정체계와는 다른 별도의 방법론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이 연구는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개념과 특징을 통하여 포지티브 헤리티지와는 차별화된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의사결정체계에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갈등양상과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

사결정체계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의 목표는 해당 유산이 보전·활용되었는지 그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누구와 함께 보전·활용을 논의하였는지 그 과정을 고민하는 것이다.

권영란

## ③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다중주택·공유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거점으로 다양한 실내 놀이·체육서비스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사업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1월 공고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는 새로운 건축물 용도로 '기숙사형 임대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VR시뮬레이터 제공업소', '전기충전소' 등이 추가되는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물 용도기준 개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현행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가 세부 전략으로 포함되어 있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건축행정 규제혁신 등 부처별 실행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정책(2021.2.4.)의 지역지구 규제 완화 및 건축물 용도의 탄력적 운용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건축법」 제19조의 2에 명시된 '건축물의 복수 용도 인정'은 하나의 공간(실)을 2개 이상의 용도(종목)로 지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허용된 용도 범위에서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용도를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신설된 시점의 「건축법」 개정안(2016.1.19.) 설명에 따르면, 복수용도는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잠재된 건축 투자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규정의 취지나 효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지자

체 허가 건수는 20건에도 못 미친다.

이에 이 연구는 현행 복수용도 인정 기준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요구 등을 반영하여 민생·산업 활력 제고라는 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최근 건축물 용도에 관한 정책이슈와 민원수요를 고려하여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는 대상을 정하고 해당 용도의 건축물 계획기준 완화 등 합리적인 법규정 적용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은희

#### ④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설계 도입 및 제도화 연구

최근 연이은 건축물 화재사고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내화피복 두께 기준, 방화구획 설치 면적 기준 등 '시방서 중심의 사양 설계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양 설계기준은 화재안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론적인 기준으로, 과다설계(경제성) 또는 과소설계(안전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재실자 밀도에 따라 화재의 정확한 거동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건축시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성능 설계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재발생 예방, 초기진화, 화재확산 및 전파 억제, 연기 전파 차단 및 신속한 배출, 피난시간 확보 등 실질적인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사양 설계기준뿐만 아니라 성능 설계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건축물의 실질적인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R&D사업(건축물의 성능 위주 화재안전 설계 기준 및 화재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2015.7.~2020.10.)을 추진하여 2020년에 화재안전 성능설계의 기술·공학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기술·공학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법·제도로 도입하기에는 행정절차 및 세부기준, 적용범위, 건축물 생애주기를 고

려한 관리방안,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민수용성, 유관 분야 법률과의 정합성 등 검토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은 상태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화재안전 성능설계의 적용 범위, 성능설계를 위한 소요비용 추정, 성능설계 절차 마련, 성능설계 적용 건축물의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는 한편 화재안전 성능설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등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실질적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여 국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건축시장의 발전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민



## 2021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 “‘주택정책’에서 ‘주거문화정책’으로”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4월 23일(금) 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2021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을 개최하였다.

‘건축도시포럼’은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이해를 높이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분야별 현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논의할 수 있는 발전적 담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포럼은 “‘주택정책’에서 ‘주거문화정책’으로”를 주제로, 물리적 건물을 의미하는 주택(house)에서 문화적·사회적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인 주거 문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삶의 안전선으로서의 주거복지와 삶의 의미를 담아내는 주거문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우리나라 주택 문제의 역사를 짚으며, 정책 실행 방향을 발표하였다. 김영욱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 주거공간’을 통해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는 주거공간이 우리 생활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인구감소시대의 주거문화와 삶 중심의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뉴노멀 시대를 맞아 새로운 주거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규인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향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손동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남철관 (사)나눔과미래 지역활성화국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앞으로의 주거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21 AURI 경관포럼 ‘국토경관 관리의 성찰과 전망’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 5월 6일(목) 세종시 샘커뮤니케이션즈에서 ‘2021 AURI 경관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국토경관 관리의 성찰과 전망’이라는 주제 아래 향후 우리나라 경관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자리로, ‘경관’이 정책적으로 다룰 수 있고 다뤄야 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제자·토론자·행사관계자만 현장에 참석하였으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였다.

기조연설에서 정영선 조경설계 서안(주)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경관관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풍부한 경관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경관관리를 통해 지속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하였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는 ‘소리 없는 공중전: 도시와 자연경

관’을 통해 도시구조적 경관관리를 위한 컨센서스 마련을 강조하였다. 또 강동진 경성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역사경관의 보전, 그 본질적인 접근’을 주제로, 역사경관의 보편화 및 일상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재송 서경대학교 교수는 ‘도시개발에서의 경관관리에 대한 반성과 가치 모색’을 통해 개발사업 과정에서 가치 있는 경관관리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안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심경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김태경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서영애 기술사사무소 이수 소장, 양승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참석해 경관자원조사 및 경관기록 등의 중요성과 시민참여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1  
마을재생포럼  
'인구감소 시대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 6월 11일(금) 대회의실에서 '2021 AURI 마을재생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인구감소 시대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초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도시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지방도시의 주거지 재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와 함께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자 건축도시·사회학·인구학 분야의 전문가 주제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하였다.

주제발표에서는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인구감소 시대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주거지재생'에 대해, 조준배 전주시 지역재생총괄계획가가 '전주시 주거지재생 시도와 한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박소현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김승수 전주시장, 남철관(사)나눔과미래 국장,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조희정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 건축공간연구원-대한건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 ‘건축자산 및 역사문화자원 관련 제도와 발전 방향 심포지엄’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대한건축학회는 지난 4월 22 일(목)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건축자산 및 역사문화자원 관련 제도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건축자산과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정책 교류의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 외에도 건축자산 및 역사문화자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함께 진행하였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김기수 동아대학교 교수가 ‘근대기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제도 고찰’을,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한동수 한양대학

교 교수가 ‘역사문화자산 관련 DB 구축과 활용’을 각각 발표하였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김종현 배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문희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사무관, 송석기 군산대학교 교수, 안창모 경기대학교 교수, 이경아 한국전문문화대학교 교수,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하여 ▲건축자산 및 역사문화자원의 용어 혼용 ▲부처 간 DB(기초조사 방법, 조사항목, 가치판단기준 등) 공유와 업무분장의 필요성 ▲건축자산 및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보전을 위한 내진보강 이슈 해결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 2021 제1회 근대도시건축연구회 -건축공간연구원 공동 학술 세미나 '최근 반환된 한반도 내 미군기지 활용방안'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근대도시건축연구회가 지난 5월 22일(토) 제1회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최근 반환된 한반도 내 미군기지 활용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반환되었거나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현황을 살펴보고, 근대건축자산으로서 미군기지의 위상을 진단하여 그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기조강연에서 안창모 근대도시건축연구회 회장(경기대 교수)은 '미군의 주둔과 미군기지 그리고 건축유산'을 통해 "미군기지의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역사적 교훈으로 확산시키는 보존과 활용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주제발표로는 이은경 경기도 DMZ정책과 주무관·예술감독의 'DMZ 일원 캠프그리브스의 반환 및 예술적 활용'을 시작으로, 김기수 동아대학교 교수의 '캠프 하리아리 반환 및 활용에 관한 소고', 이연경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학술연구교수의 '무기 공장에서 빵 공장으로: 부평 캠프 마켓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안창모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경진 서울대학교 교수, 함은아 이로재 소장, 김백영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여 미군기지의 유형별 분류의 필요성 등 풍성한 논의를 이끌어 냈다.

2021년 제1회  
근대도시건축연구회-건축공간연구원 공동 학술 세미나

### 최근 반환된 한반도 내 미군기지 활용 방안

2021. 5. 22 \*  
14:00~17:00

zoom 온라인 세미나  
회의 URL: <https://zoom.us/j/97930695517>  
회의 ID: 979 3069 5517

14:00~14:20	개회
주최	이창모 근대도시건축연구회 회장(경기대 교수), 한국건축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최	이창모 근대도시건축연구회 회장(경기대 교수), 한국건축문화재단 대표이사
14:20~15:35	발표
주최	이창모 근대도시건축연구회 회장(경기대 교수), 한국건축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최	이창모 근대도시건축연구회 회장(경기대 교수), 한국건축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최	이창모 근대도시건축연구회 회장(경기대 교수), 한국건축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최	이창모 근대도시건축연구회 회장(경기대 교수), 한국건축문화재단 대표이사
15:35~16:50	토론
16:50~17:00	종료

주최 | 근대도시건축연구회 (주최) 건축문화재단 (주최) 근대도시건축연구회, 건축문화재단 (주최) 근대도시건축연구회

## ‘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7월 12일(월)부터 10월 15일(금)까지 ‘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정책입안자와 국민이 함께 건축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공모전 작품을 통해 한국 건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

공모전은 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http://idea.aurum.re.kr>)을 통해 전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영상·포스터·에세이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 건축과 공간환경의 현재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내용 혹은 미래 건축과 환경을 위한 새로운 시도나 실천방안이 담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출품된 작품은 창의성·필요성·작품성·효과성의 기준을 바탕으로 건축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며,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 모두 8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개최된 제1회 공모전에는 총 51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미래 건축에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영상물로 제작한 ‘소소한 변화부터 차곡차곡!’이 대상을 받은 바 있다.

### 시상 내역

구분	건수	포상	포상종류
대상	1	상금 300만 원 및 상장	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
최우수상	1	상금 200만 원 및 상장	국토교통부장관상
우수상	1	상금 100만 원 및 상장	건축공간연구원장상
장려상	5	상금 50만 원 및 상장	대한건축학회·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한국여성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회장상

## 제1회 석·박사 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 '2021 AURI 아카데미' 운영

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도시 분야의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성과 확산 및 차세대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기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제1회 석·박사 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 '2021 AURI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건축·도시·조경 분야 석·박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5월 31일(월)부터 11월 26일(금)까지 약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수행하는 12개의 연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과 논문작성 지원 등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연구 분야

공공건축, 건축서비스산업, 마을재생, 경관, 보행환경, 범죄예방환경, 고령친화, 건축·도시 빅데이터, 기후변화 대응 녹색건축·도시, 스마트도시, 한옥, 건축자산

이에 연구계획서 평가와 면접 등을 통해 지원자(멘티)를 선발하며, 지원자가 희망하는 멘토 또는 연구 분야가 유사한 연구진을 멘토로 매칭하여 진행된다. 또 월 1~2회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연구수행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자료실 등 연구원 시설 이용과 연구원 보유 빅데이터 제공, 논문 투고료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5월 말 지원자 선발을 마쳤으며,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12월 초에는 공동논문·학위논문·워킹페이퍼·활동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한 성과발표회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지원자 전원에게는 AURI 아카데미 수료증이 발급된다.

**(auri) 건축공간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Architectural Technology

**제1회  
석·박사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  
2021  
AURI 아카데미**

**주요**

- 건축·도시·조경 분야 석·박사 대학원생의 역량 강화 및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
- 건축·도시·조경 분야 석·박사 대학원생의 논문 투고료 지원
-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

**선발대상**

건축·도시·조경 분야 석·박사 대학원생

**선발방식**

1. 연구계획서 평가 및 면접을 통한 선발

**지원서류**

1. 연구계획서 (연구분야,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  
2. 자기소개서 (연구분야,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  
3. 학위논문 (연구분야,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  
4. 학위논문 (연구분야,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  
5. 학위논문 (연구분야,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

**지원기간**

2021. 05. 31 (월) ~ 11. 26 (금)

**문의처**

1. 연구기획팀 (02-395-1234) / 2. 연구기획팀 (02-395-1234) / 3. 연구기획팀 (02-395-1234)

**주최**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문의**

064-417-9639 / [www.auri.or.kr](http://www.auri.or.kr)

**QR코드**

‘2021 아시아  
도시경관상  
(Asian  
Townscape  
Awards)’  
후보 접수



건축공간연구원은 유엔해비타트 후쿠오카본부,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 아시아 해비타트협회, 아시아 경관디자인학회와 함께 ‘2021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공동 주최한다. 아시아 도시경관상은 아시아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환경을 구축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다른 도시의 모범이 되며 성과를 이룬 도시·지역·사업 등에 시상한다.

아시아 각국 지역 지방자치단체, NGO와 시민단체, 학술 연구기관, 도시계획·건축설계·경관설계 및 기획 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도시·지역 ▲도시와 지역에 크게 공헌한 대규모 사업 ▲자연·도시 환경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업 ▲지역 발전에 기여한 건조물·프로젝트 ▲경관 발전에 공헌한 단체 등에 시상한다.

이에 지난 6월 30일(수) 신청기관 접수를 마쳤으며, 7~8월 서면 및 현장심사로 진행되는 예비(국내)심사를 거쳐 최종심사에 제출할 작품을

선정한다. 이후 각국 및 지역 심사위원으로부터 서면심사를 받는 최종심사를 통해 11월경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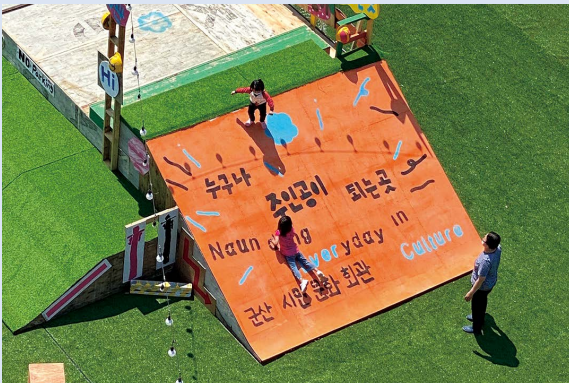
#### 아시아도시경관상의 평가기준

1. 친환경적이며 공존하는 것인가?
2. 안전하고 이용자에게 편리하며 지속성이 있는가?
3. 지역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고 있는가?
4. 예술성이 높은가?
5. 지역의 발전에 공헌하고 타 도시의 모범이 되는가?

한편 지난해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작에는 총 11개 본상과 2개의 심사위원상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강동구와 성동구 그리고 울산시가 본상의 영예를 안았다.



## 군산시민문화회관 재생과정 공유행사 '거인의 초대'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군산시는 지난 5월 19일(수)부터 23일(일)까지 5일간 군산시민문화회관에서 시민문화회관 재생과정을 공유하는 '거인의 초대' 행사를 개최하였다. 2013년 폐관된 시민문화회관의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건축공간연구원과 군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문화회관을 '거인'으로 명명하고 군산시민들을 초대하여 재생 프로젝트의 방향을 알리고 비전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행사는 시민문화회관의 재생과정을 알리는 전시와 투어, 공간 재활용 실험을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전시회는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진이 재생 과정에서 진행해 온 주민 인터뷰를 비롯해 시민문화회관의 역사 관련 자료 수집 등 지역조사의 결과물을 선보였으며, 연구진과 함께 전시회를 돌아보는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행사 기간 중 파크렛(Parklet, 노상주차장을 활용한 소규모 공원)으로 변신한 시민문화회관 주차장과 광장에서 진행된 야외 프로그램은 폐자재를 활용한 의자 만들기 대회,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재활용 요가 클래스, 플리마켓 등 즐길 거리와 댄스공연·노래자랑·영화상영회 등 볼거리로 구성되었다.

# 건축공간연구원 연구보고서 안내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연구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auri.re.kr](http://www.auri.re.kr))에서 보고서를 검색하실 수 있으며,  
발간물 구입에 관해서는 자료실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실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 2020년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2020-1  
민·관 협력을 통한 노후 공영  
재정비 및 관리·운영 방안 연구  
27,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2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물 용도  
기준 개선 방안 연구  
33,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3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연구  
22,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4  
지역 경관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개선 연구  
25,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5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29,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6  
건축자산 보존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 도입 방안 연구  
22,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7  
스마트건축 개념을 바탕으로 한  
건축물 인증제도의 개편 방안  
20,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8  
미세먼지 민감군을 위한 공공건축물  
시설 계획 기준 연구  
26,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9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사·계획 체계 구축 방안  
33,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10  
한국형 법제에방환경설계를 위한  
장소프로파일링 기법 개발 연구  
17,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11  
공공공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제도 개선 연구  
25,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12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19,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13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 재생 방안 연구  
40,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14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수집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  
23,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15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행정정보 개방 범위 확대방안 연구  
21,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16  
리빙랩을 활용한 노인  
커뮤니티케어 주거계획 지원방안  
27,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17  
노상주차의 전략적 관리를 통한  
가로공간 개선방안 연구  
24,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18  
화재안전 건축자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25,000원
- 정책연구보고서 2020-1  
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규제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연구  
17,000원
- 정책연구보고서 2020-2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13,000원
- 정책연구보고서 2020-3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13,000원
- 정책연구보고서 2020-4  
창의적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15,000원
- 정책연구보고서 2020-5  
보행편의지수 개발 및 보행정책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13,000원

- 정책연구보고서 2020-6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외부 발코니 활성화 방안  
8,000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0-1  
국토경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경관법 개정 방안  
15,000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0-2  
고령자의 도시환경 인식 및  
만족도 조사  
16,000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0-3  
고령자 건강 빅데이터 분석과  
지역사회 생활환경의  
고령친화도 진단  
19,000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0-4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효과성 분석  
10,000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0-5  
서울시 도로다이어트사업의 성과 및  
효과평가 연구 - 2018~2019년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  
16,000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0-6  
2019년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의  
성과 및 효과평가 연구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  
14,000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0-7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건축  
지원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22,000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0-8  
그린뉴딜을 통한 도시 기후변화  
정책개선 방안  
19,000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0-9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19,000원

## 2019년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2019-1  
포용적 근린재생을 위한 공영 정책  
개선방안 연구  
21,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19-2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24,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19-3  
지역 공공시설의  
효율적 조성·활용을 위한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26,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19-4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이용자 참여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19-5  
사회경제적 여건과 생활양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공간 조성 방안  
20,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19-6  
한옥 공공건축물의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22,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19-7  
중소도시 마을연계형  
거점공간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16,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19-8  
건축자산 관리와 활용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방안 연구  
23,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19-9  
자연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탄력적 도시설계 연구  
21,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19-10  
지역 정체성 제고를 위한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한옥적용 활성화 방안  
22,000원
- 기본연구보고서 2019-11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효과성 분석 연구  
1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2  
도시 내 공공건축물 저층부 및  
외부공간 개선방안 연구  
2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3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24,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4  
노후 산업단지 공간환경  
현황진단 및 개선방향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5  
건축물 생애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  
3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6  
중·소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차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 방안  
31,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7  
건축 아카이브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18,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8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  
19,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1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방안 연구  
11,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2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조성을 위한  
보행네트워크 분석 연구  
19,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3  
도시지역 새마을사업  
국비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13,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4  
건축물 실내 공간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안전기준 개선 연구  
16,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5  
거주자 행태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대응방안 연구  
10,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6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1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1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방안 연구  
2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2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현황과 과제  
1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3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 -서울시 5개  
CPTED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1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4  
한옥건축양식 개념 및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 담론 연구  
2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5  
한옥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  
18,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6  
지역 특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 세종 - 시민의 일상생활과  
장소인식을 중심으로 -  
1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7  
2019 기후변화 대응  
건축·도시 정책동향  
21,000원

## 2018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2018-1  
공유경제 기반의 지역맞출형  
공동체주거 조성 방안 연구  
21,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2  
녹색도시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한  
공원녹지 지표 개발방안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3  
장소기반 전략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개선방안 연구  
28,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4  
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성과 및 발전 방안  
15,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5  
고령1인가구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개선방안  
19,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6  
지역의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기업사회공헌활동과  
공공사업 연계방안 연구  
23,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7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민관협력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23,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8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19,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9  
커뮤니티 자산으로서의 건축자산  
보존·활용방안 연구  
24,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0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기획 내실화 방안 연구  
27,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1  
클라우드소싱을 활용한 정책사업  
모니터링 방안 연구  
15,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2  
지방중소도시의 스마트축소  
도시재생 모델 개발  
31,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3  
상업적 콘텐츠피케이션 진단체계 연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24,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4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16,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5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미래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6  
유류공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방안 연구  
23,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7  
국토경관 가치인식 향상을 위한  
수요맞출형 경관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8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건축도시환경의 고령친화도 진단 연구  
19,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8-1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14,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8-2  
녹색건축물 채권 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11,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8-3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탐색적 연구  
8,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8-4  
지자체 보행안전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1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1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매뉴얼  
1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2  
201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성과보고서  
1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3  
건축서비스산업의 재발전 -  
우리 사회가 바라본 건축서비스산업  
2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4  
소규모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2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5  
2017 보행자우선도로 현황과 평가  
4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6  
2017 서울시 도로다이어트 현황과 평가  
2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7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계획에 관한  
기초연구  
18,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8  
소방서 조성 기준 및 계획 현황 연구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9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현황과 평가  
2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10  
건축자산 기반 창업 지원  
플랫폼 기획 연구  
21,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11  
한옥 시공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연구  
12,000원

## 건축공간연구원 신간 안내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건축·도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소개 및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www.auri.re.kr](http://www.aur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비매품이 아닌 발간물은 서점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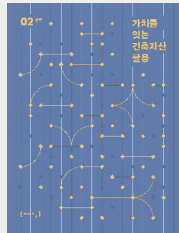
문의 출판·홍보팀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mailto:information@aur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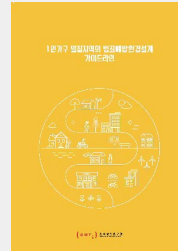
한옥정책,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이종민, 이민경, 김종범  
비매품



거주자가 들려주는  
한옥의 가치  
이종민, 김해리, 유예슬  
비매품



가치를 잇는  
건축자산 활용 02 주택  
이민경, 권영란, 김민지  
비매품



1인가구 밀집지역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손동필, 현태환, 박유나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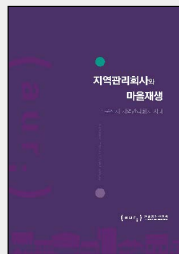
보행자를 위한 설계  
Before & After  
오성훈, 김영지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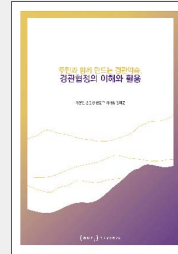
공공건축 가이드 02: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공공건축  
기획업무 가이드  
박석환, 이혜원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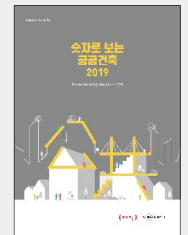
좋은 공공건축 03  
모두가 함께 만든 아이들의  
두번째 집 국공립 연천어린이집  
임유경, 엄운진, 이화영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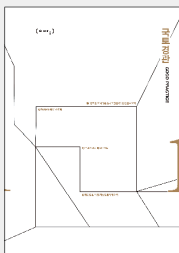
지역관리회사와 마을재생:  
군산시 지역관리회사 사례  
윤주선, 장민영, 김영하  
비매품



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관악속,  
경관협정의 이해와 활용  
이상민, 송윤정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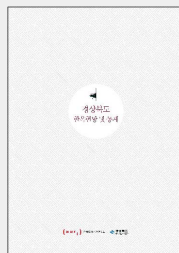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2019  
이경재, 임유경  
비매품



국토경관  
GOOD PRACTICE 1  
심경미, 이상민, 이경재, 송윤정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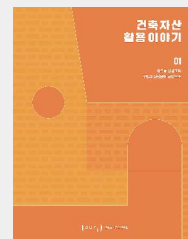
건축서비스산업  
동향과 이슈 2020  
이여경, 송해진  
비매품



경상북도 한옥현황 및 통계  
이민경, 이종민, 방보람  
비매품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선행목구조 안내서  
이종민, 김종범  
비매품



건축자산 활용이야기:  
체부동 성결교회,  
주민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이민경, 이종민, 권영란  
비매품



보내는 사람

성함

주소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21.1.1 ~ 2021.12.31
세종우체국송인 제40061호

받는 사람

( a u r i )

건축공간연구원 출판·홍보팀  
세종특별자치시 장제로 194, 7층

3	0	1	0	3
---	---	---	---	---

이번 호 <건축과 도시공간> 코너에 대한 생각, 필자와 편집진에게 바라는 점을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LOCAL FISHING

漁村

로컬 지향의 시대,  
어촌으로 가다

■ 이번 호 <건축과 도시공간> 코너에 대한 의견

(예) 좋았던 코너와 이유, 해당 코너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주제 등

---

---

---

---

---

---

---

■ <건축과 도시공간>에 바라는 점 또는 제안하는 점

---

---

---

---

---

---

---